님의 노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리운 우리 님의 맑은 노래는
언제나 제 가슴에 젖어 있어요

㉠**긴 날**을 ㉡**문밖에서 서서** 들어도
그리운 우리 님의 고운 노래는
해 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에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고적한**[1]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
내 잠은 포스근히 깊이 들어요

그러나 ㉤**자다 깨면**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들으면 듣는 대로 님의 노래는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 김소월, <님의 노래>

[어휘 풀이]
1)고적(孤寂)하다: 외롭고 쓸쓸하다.

<기본 실력 다지기>

※ 이 작품의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1. **임이 불러 주는 노래를 직접 들으면서 느끼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2. **비격식체의 경어체 어미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느낌을 형성하고 있다.**

3. **7·5조, 3음보의 민요조 율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4. **유사한 음운을 반복하여 운율을 살리고 있다.**

5. **시어나 시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6.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7. **1연에서는 청각적 대상인 '노래'를 촉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8. **2연에서는 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의 자세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9. **3연에서는 과거와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10. **4연에서는 임에 대한 사랑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1. **4연에서 '그러나'를 전후하여 순응적이던 화자의 태도가 저항적으로 변모하고 있다.**

※ 이 작품의 시구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구를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 해 지고 저물도록 귀에 들려요
밤들고 잠들도록 귀에 들려요
ⓑ 내 잠은 그만이나 깊이 들어요
…
내 잠은 포스근히 깊이 들어요
ⓒ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

---

12. **위안과 안식:**

13. **청각적 이미지:**

14. **오래고 간절한 그리움**:

15. **반복을 통한 운율 형성**:

16. **안타까운 현실에 대한 자각**:

17. **'님의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을 <u>모두</u> 고르시오.**

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
② 화자의 정서가 구체화된 것
③ 화자의 각성을 유도하는 것
④ 화자가 극복하고자 하는 대상
⑤ 화자의 사랑을 임에게 전하는 매개체
⑥ 화자로 하여금 임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계기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8. **다음은 윗글에 대한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시는 ( )하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과 그리움을 '( )'를 언제나 듣는 상황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님의 노래'는 실제로 임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주관적으로 듣고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임에 대한 화자의 영원한 ( )과 간절한 그리움, 그 속에서 얻는 ( )이나 ( ) 같은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그러한 노래가 실제로는 부재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임에 대한 사랑을 결코 버리거나 잊지 않을 것임을 ( )으로 표현하고 있다.

19.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이 작품은 ( )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① 음성 상징어
② 일정한 글자 수
③ 경어체의 종결 어미
④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구
⑤ 동일하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

20. **'님의 노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임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다.
② 화자에게 심리적 위안과 안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 화자로 하여금 부재하는 임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이다.
④ 임에 대한 변함없는 화자의 사랑과 간절한 그리움이 투영되어 있다.
⑤ 임이 실제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2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지루한 일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긴'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② ㉡: 화자가 느끼는 소외감을 '문밖에서' 서 있는 상황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③ ㉢: 화자가 겪는 내면적 갈등을 '흔들리는'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을 '고적한'을 통해 암시하고 있다.
⑤ ㉤: 잘못된 과거에 대한 화자의 반성을 '깨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22. **윗글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 잊고
먼 훗날 그때에 "잊었노라"
- 김소월, <먼 후일>

① 윗글과 <보기>는 모두 3음보 율격을 지니고 있다.
② 윗글과 달리 <보기>는 미래를 가정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③ 윗글과 달리 <보기>는 부재하는 임에게 직접 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④ 윗글과 <보기>는 모두 반어적 표현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을 부각하고 있다.
⑤ <보기>와 달리 윗글은 특정 어구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23. **다음은 윗글의 1연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1연에서는 청각적 대상인 ( )을/를 젖어 있는 것으로 ( )하여 표현함으로써 공감각적 이미지[1]를 만들고 있다.

[어휘 풀이]
1) 공감각적 이미지: 하나의 감각을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 예 금빛 게으른 울음(청각적 대상인 '울음'을 '금빛'으로 시각화하여

표현함.)

24.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와 ⓑ의 공통된 의미를 서술하시오.**

조건

- 화자의 인식과 표현 방식을 모두 포함할 것.
- 70자 이내의 한 문장으로 쓸 것.

<작품 완전 분석>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01. 7·5조,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02. 비격식체의 경어체 종결 어미 '-요'를 반복하여 운율을 살리고 있다.
03. 유사한 시어나 시구,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살리고 화자의 상황이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04. '님의 노래'를 '듣는' 상황을 청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다.
05. 부재하는 '님의 노래'를 듣는 상황을 통해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06. '님의 노래'는 부재하는 임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이다.
07. '님의 노래'는 실제로 임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그리움이 투영된 것이다.
08. 화자의 가슴에 언제나 젖어 있고(1연) 오래도록 들리는(2연) '님의 노래'는 변함없고 간절한 화자의 사랑과 통한다.
09. 화자는 '님의 노래'가 맑고(1연) 고우며(2연) 부드럽고 포근하다(3연)고 느끼고 있다.
10. 1연에서는 노래가 가슴에 젖어 있다고 함으로써 청각을 촉각화하여 공감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11. '언제나'는 임에 대한 화자의 변함없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12. '긴 날'은 화자의 오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13. '문밖에서 서서'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세를 표현한 것으로, 임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환기한다.
14. '고이도 흔들리는 노랫가락'은 그 부드러운 속성으로 화자에게 안식과 위안을 준다.
15.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눕는 것은 임이 부재하는 현실을 환기한다.
16. '포스근히'는 운율을 맞추기 위해 만든 말로, 포근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님의 노래'가 화자에게 주는 위안과 안식을 환기한다.
17. '자다 깨면'은 화자가 '님의 노래'가 부재하는 현실을 인식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18. '하나도 남김없이 잃어버려요 ~ 하나도 남김없이 잊고 말아요'에는 현실 인식에 따른 안타까움과 비애가 담겨 있다.
19. 4연의 내용은 1연의 내용과 모순된다는 점에서, '님의 노래'를 잃고 잊는다는 표면적 의미는 화자의 진심이 아니다.
20. 하나도 남김없이 잃고 잊는다는 것은 임을 결코 잃거나 잊지 못한다는 화자의 마음을 반어적 표현을 통해 강조한 것이다.

수(繡)의 비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심의(深衣)[1]도 짓고, 도포[2]도 짓고, 자리옷[3]도 지었습니다.
짓지 아니한 것은 작은 주머니에 수놓는 것뿐입니다.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알지마는, 그러한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주머니에 수를 놓으려면, 나의 마음은 수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 한용운, <수(繡)의 비밀>

[어휘 풀이]
1) 심의(深衣): 예전에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웃옷. 2) 도포(道袍): 예전에, 통상 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겉옷. 소매가 넓고 등 뒤에는 딴 폭을 댄다. 3) 자리옷: 잠잘 때 입는 옷.

<기본 실력 다지기>

※ 이 작품의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1. 아주높임을 표현하는 경어체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청자에 대한 공경과 간곡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2. '당신'에 대한 화자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3. 옷을 짓고 수를 놓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를 여성으로 추측할 수 있다.

4. 화자는 지신이 지은 옷의 종류를 열거하면서 자신의 사랑과 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5.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6. 추상적 관념을 감각적 이미지로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7.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구도적 자세를 강조하고 있다.

8.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9.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0. 대립적 의미를 지닌 시어들을 병치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이 작품의 화자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11. 옷을 짓다가 놓아두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옷의 완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12. '당신'의 옷이 하루빨리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13. 옷을 완성하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 부족을 한탄하고 있다.

14. 수를 놓는 행위를 지속하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15. '당신'을 기다리는 일을 절망적으로 여기고 있다.

16. 수놓기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위안을 얻고 있다.

17. '당신'이 부재하는 현실을 사랑과 기다림의 자세로 극복하려 하고 있다.

18. 이 작품의 시어들이다.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시오.

당신	㉠	ⓐ	사랑과 기다림의 대상
옷	㉡	ⓑ	화자에게 위안과 정화를 주는 것
손때	㉢	ⓒ	대상에 대한 사랑과 정성
금실	㉣	ⓓ	기다림과 사랑을 오랫동안 반복한 결과
맑은 노래	㉤	ⓔ	사랑을 구현해 가는 화자의 분신
보물	㉥	ⓕ	대상에 어울리는 가치 있는 상황이나 존재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9. **다음은 윗글에 대한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작품은 연인, 조국, 절대자, 진리 등으로 폭넓게 이해될 수 있는 '(　)'을 향한 사랑과 구도의 자세를 (　)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화자는'당신'을 위해 사랑과 정성을 담아 옷을 짓지만 끝내 수놓기는 마치지 않은 채 짓다가 놓아두기를 반복하며 완성을 (　)시킨다. 이는 수를 놓는 행위가 화자에는 '당신'을 그리며 기다리는 행위이자 마음을 (　)하는 구도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옷을 완성하는 것은 이 행동을 끝내는 것인 동시에 '당신'의 현실적 부재를 (　)하고 확인하는 것이 되므로, 화자는 수놓기를 반복하며 옷의 완성을 지연시키고 기다림과 사랑의 시간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화자는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이라는 (　) 표현 속에 담아내고 있다.

20.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①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수미상관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③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
④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여 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21. **윗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당신'에 대한 태도를 옷 짓기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②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옷의 완성을 지연시키고 있다.
③ 수를 놓는 행위를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위안을 얻고 있다.
④ 수를 놓는 행위를 통해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지속하고 있다.
⑤ 옷의 완성을 통해 고통스러운 기다림이 끝나기를 소망하고 있다.

2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당신'에 대한 사랑과 정성
② ㉡: 화자의 바람을 구현하는 분신
③ ㉢: '당신'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현실의 고난
④ ㉣: 화자에게 마음의 위안과 정화를 주는 것
⑤ ㉤: '당신'에게 어울릴 만한 가치 있는 상황이나 존재

2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수(繡)의 비밀>에서 역설은 화자가 대상의 부재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즉 임의 부재라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현실을 부인하고[1]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인은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음으로써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2] 상황을 지연시키면서 드러난다. 하지만 행위의 과정에서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는[3] 점에서 그것은 현실 도피라기보다는 주체적 선택이자 극복 의지의 발현[4]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 풀이]
1) 부인(否認)하다: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옳거나 그러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다. 2) 환기(喚起)되다: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가 일어나게 되다. 3) 동반(同伴)되다: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생기다. 4) 발현(發現/發顯):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거나 그렇게 나타나게 함. 또는 그런 결과.

①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를 통해 화자의 일상적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②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에는 임의 부재라는 현실을 부인하고 싶은 화자의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군.
③ '마음이 아프고 쓰린'에는 화자의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④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에서 수를 놓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자기 정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군.
⑤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에는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군.

24. **ⓐ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 = (㉮)를 완료하지 않는 이유	
사랑, 정화, 구도의 행위이므로 끝낼 수 없음.	
↗	↖
화자의 소망과 (㉯)	상황 인식
• 사랑, 정화, 구도를 (㉰) 하고자 함. • 계속 임을 그리며 기다리고자 함. → 임의(㉱)를 인정하지 않음.	가치 있는 것이 (㉲)된 상황

25.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환자 A의 대답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단, '먹다'라는 동사와 ⓑ의 표현 방식을 활용할 것.)**

환자 A는 먹는 것을 삶의 이유라고 생각할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먹는 양이 너무 많아 비만을 넘어 생명이 위협받는 상태에 이르렀다. 의사는 환자 A에게 먹는 양을 줄일 것을 조언했고, 환자 A는 음식을 남기면서 의사에게 대답했다.

<작품 완전 분석>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01. '당신'을 청자로 설정하여 수놓기에 담긴 화자의 비밀을 고백하고 있다.
02. 아주높임을 나타내는 경어체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청자인 '당신'에 대한 공경과 간곡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03. 옷을 짓고 수를 놓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여성으로 추측할 수 있다.
04. 화자는 부재하는 대상인 '당신'의 옷을 짓고 있으므로, '옷 짓기'는 임에 대한 사랑과 정성, 기다림의 자세를 함축한다.
05. 1연 2행에서는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여 옷을 짓는 화자의 정성을 구체화하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6. 1연에서 수를 마치지 않는 상황을 제시하며 궁금증을 유발한 뒤, 2연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07. '손때'는 짓다가 그만두는 화자의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되었음을 보여 준다.
08. '수의 비밀'은 '짓다가 놓아두고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으로 화자가 수놓기를 완료하지 않는 이유이자 수놓기를 지속하는 이유에 해당한다.
09. 화자는 수놓기를 완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부정하고 있다.
10.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는 임의 부재로 인해 화자가 경험하는 고통의 시간을 표현한 것이다.
11. '금실'은 수놓기를 통해 임의 존재를 구현하는 화자의 분신에 해당하고, '맑은 노래'는 그러한 수놓기를 통해 얻게 되는 마음의 정화와 위안에 해당한다.
12. 수놓기는 '아프고 쓰린' 화자의 마음을 정화하고 위안을 주는 역할을 한다.
13. 화자는 마음의 변화라는 추상적 관념을 수를 놓는 구체적 행위로 형상화하고 있다.
14. 화자는 수놓기를 통한 위안과 정화를 첫 번째 '수의 비밀'로 제시하고 있다.
15. 화자에게 수놓기는 임을 그리며 기다리는 행위이자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구도적 행위이다. 따라서 수놓기를 완료하는 것은 사랑과 정화, 구도의 행위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화자의 바람과 배치된다.
16. 화자는 계속 임을 그리며 기다리는 행위 속에서 부재하는 임을 구현하고자 한다.
17. 화자가 두 번째 '수의 비밀'로 제시한 것은 '보물'의 부재, 즉 결핍의 상황이다. '보물'은 '당신'의 '주머니에 넣을 만한' 것이므로 '당신'에게 어울리는 가치 있는 존재나 상황을 의미한다.
18. 마지막 행에서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라는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비밀'의 의미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9. 화자는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라는 시구를 통해 자신의 행위가 의지적, 주체적 행위임을 부각하고 있다.

윤사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송홧가루[1]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2] 해 길다
㉠**꾀꼬리** 울면

산지기 외딴집
㉡**눈먼 처녀**사

문설주[3]에 귀 대이고
엿듣고 있다

- 박목월, <윤사월>

[어휘 풀이]
1) 송홧가루: 소나무의 꽃가루. 빛은 노랗고 달착지근한 향내가 난다. 2) 윤사월(閏四月): 음력으로 사월에 든 윤달(달력의 계절과 실제 계절 사이의 차이를 조절하기 위하여 1년 중의 달수를 13개월로 하는 해에 새로 추가된 달). 3) 문설주: 문짝을 끼워 달기 위하여 문의 양쪽에 세운 기둥.

<기본 실력 다지기>

※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26. 7·5조,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7.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28. 대구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29. '기-승-전-결'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0. 화자는 봄 풍경과 처녀의 모습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위치에 있다.

31. 화자의 시선은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32.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여 간결한 인상을 주고 있다.

33. 자연과의 대비를 통해 인간의 유한성을 부각하고 있다.

34. 1연에서는 시각, 2연에서는 청각을 통해 계절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35. '꾀꼬리'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고 있다.

36. '눈먼 처녀'가 '문설주에 귀 대이'는 모습은 바깥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 그리움과 연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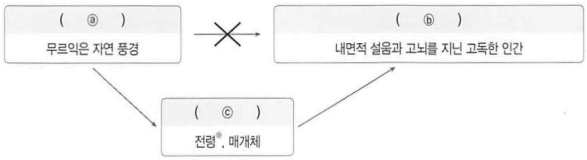
※ 이 작품의 소재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소재를 찾아 쓰시오.

37.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은 '(　　)'이고, 시간적 배경은 '(　　)'이다.

38. '(　　)'와 '(　　)'은 바깥세상과 단절된 세계로, '눈먼 처녀'의 비극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39. '(　　)'가 연출하는 시각적 풍경을 보지 못하는 '눈먼 처녀'는 '(　　)'를 통해 자연을 청각적으로 느끼고 있다.

40. 이 작품에 쓰인 시어들의 의미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41. 다음은 윗글에 대한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작품은 ( ) 산골의 늦봄 혹은 초여름에 해당하는 ( ) 풍경과, 외딴 집에 사는 ( )의 애틋한 모습을 서경적으로 그리고 있다. 7·5조, ( )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바탕으로 한국적 서정과 정감을 절제된 언어와 간결한 형식으로 인상 깊게 표현하고 있다.

깊은 산중에 찾아온 늦봄(초여름)의 풍경을 눈(보는 것)이 아닌 귀(듣는 것)로 느끼는 '눈먼 처녀'의 모습을 통해 인간 본연의 ( )를 표현함과 동시에 자연의 일부로 ( )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42.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기승전결의 전개 방식을 보이고 있다.
② 절제된 언어를 통해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③ 색채 대비를 통해 선명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④ 일정한 글자 수와 음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는 화자의 시선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43. 윗글의 화자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정경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위치에 서 있다.
② 청자에게 자기 성찰과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③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다지고 있다.
④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하고 있다.
⑤ '눈먼 처녀'를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고 있다.

44. 윗글의 각 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3연과 4연에서는 대상의 행동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다.
② 3연에서는 점층적 열거를 통해 감정의 고조를 드러내고 있다.
③ 2연에서는 특정 대상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④ 4연에서는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⑤ 1연과 2연에서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45. 윗글에 사용된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① '꾀꼬리'의 울음은 대상과 이별한 존재의 아픔과 그리움을 표현한다.
② 홀로 우뚝 솟은 '외딴 봉우리'는 대상의 고고함과 초연함을 상징한다.
③ '눈먼 처녀'는 대상에 대한 맹목적 사랑과 헌신의 자세를 함축한다.
④ '송홧가루'가 날리는 것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숙명을 암시한다.
⑤ 바깥세상과 단절된 '외딴집'은 '눈먼 처녀'의 애틋한 동경을 강화한다.

46. ㉠과 <보기>의 ㉮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펄펄 나는 저 ㉮<u>꾀꼬리</u>
암수 서로 정다운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꼬
- 유리왕, <황조가>

① ㉠과 ㉮는 모두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다.
② ㉠과 ㉮는 모두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자연물이다.
③ ㉠은 시적 대상의 분신이고, ㉮는 화자의 분신이다.
④ ㉠은 계절을 알리는 전령이고, ㉮는 정서를 촉발하는 자극제이다.
⑤ ㉠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고, ㉮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존재이다.

47. 다음은 ㉡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서 적절한 말을 각각 골라 쓰시오.

㉡은 장애 때문에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다. 따라서 바깥세상과 (결속 / 단절)된 존재이며 그로 인해 내면적 (기쁨 / 슬픔)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이는 곧 인간 존재의 근원적 (애수[1] /

향수[2])와도 연결된다.

[어휘 풀이]
1) 애수(哀愁):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슬픈 시름. 2) 향수(鄕愁):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시름.

---

48.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4연에 묘사된 눈먼 처녀의 행동의 의미를 70자 이내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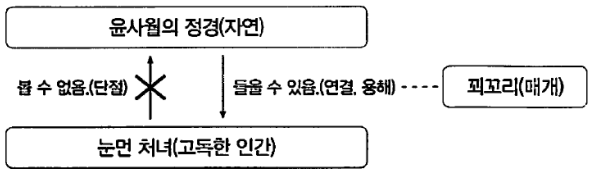
조건

- 행동의 동기를 포함시킬 것.
- 꾀꼬리 소리와 연관 지을 것.

<작품 완전 분석>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01. 절제된 언어로 윤사월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02. 7·5조, 3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03. '기-승-전-결'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4. 화자의 시선은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05. 화자는 관찰자의 위치에 서서 외딴 산골의 윤사월 풍경과 눈먼 처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06. 1연에서는 시각, 2연에서는 청각을 통해 계절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07. '외딴 봉우리'와 '외딴집'은 바깥세상과 단절된 세계로, 눈먼 처녀의 애틋한 동경과 그리움을 강화하는 배경이 된다.
08. 꾀꼬리는 윤사월의 정경을 누리는 존재인 동시에 눈먼 처녀에게 이 정경을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09. 눈먼 처녀는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인물로, 윤사월의 정경을 눈으로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바깥세상과 단절된 존재를 의미한다.
10. 눈먼 처녀는 장애로 인해 내면적 설움과 고뇌를 소유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11. 4연에 나타난 눈먼 처녀의 행동은 바깥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 그리움이 담긴 것이다.
12. '문설주에 귀 대이고 / 엿듣'는 행동을 통해 눈먼 처녀는 윤사월의 정경을 눈이 아닌 귀로 느끼면서 그 정경 속으로 용해되고 있다.
13. '문설주에 귀 대이고 / 엿듣'는 눈먼 처녀의 행동 속에서 꾀꼬리는 눈먼 처녀와 '송홧가루 날리는' 바깥 풍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화상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윤동주, <자화상>

<기본 실력 다지기>

※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49.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 자아 성찰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50. 현실적 자아가 과거의 순수했던 자아를 발견하면서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51. 화자는 자신에 대해 '미움 → 가엾음, 연민 → 미움 → 그리움'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52. 반어법을 활용하여 순수했던 과거 화자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53. 자연물을 열거하면서 화자가 그리워하는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54. '-ㅂ니다'로 문장을 종결하여 산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55.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물 속 풍경은 화자의 초라한 모습과 대조되고 있다.

56. 화자는 자신에 대한 연민을 느끼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다.

57. 3연에서 '사나이'가 밉다고 표현한 이유는,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초라한 현실적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다.

58. 5연에서 화자가 '그 사나이'를 그리워하는 것은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작품의 2연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어 및 시구를 쓰시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

59. 열거법:

60. 시적 허용:

61. 공감각적 심상:

62. 이 작품의 시어와 시구의 의미이다.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시오.

우물	㉠	ⓐ	자신에 대한 연민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	ⓑ	자아 성찰의 매개체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	ⓒ	과거의 순수했던 자아, 이상적 자아

63. 이 작품의 화자의 정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 )	→	가엾음, 연민	→	미움	→	( )

<내신 수능 대비 문제>

64. 다음은 윗글에 대한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　)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우물에 비친 (　)는 화자 자신으로 볼 수 있는데, 화자는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 우물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화자의 이러한 부끄러움은 암담했던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식민지 지식인의 고뇌라고 할 수 있다. 화자는 우물에 비친 자신에 대해 '미움→가엾음, 연민→미움→그리움'의 정서 변화를 보이는데, 6연에서 화자는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현실의 자아와 화해하며 (　)을 해소하고 있다.

65.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② 규칙적인 운율을 통해 음악적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경어체의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④ 시적 공간의 변화에 따라 점차 고조되는 화자의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⑤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현실적 화자의 모습을 대조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66. <보기>의 밑줄 친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문학 작품을 읽을 때에는 작품의 내용이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또한 작품의 내용이나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작품을 쓴 작가,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 현실, 작품을 읽는 독자에게 미치는 효용까지 생각해야 한다. 즉, **작가는 누구이며, 왜 그렇게 표현하였는지 생각해 보는 관점**, 작품 속에 어떠한 역사와 현실이 반영되었는지 생각해 보는 관점, 독자가 그 작품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관점 등을 통해 하나의 작품을 다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다.

① 6연에서 2연을 반복, 변형함으로써 형태적 안정감과 균형감을 얻고 있어.
② 작가의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로 부끄러움을 통한 자기 성찰이 표현되어 있어.
③ 감정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화자의 모습이 내 모습과 유사해서 쉽게 공감할 수 있어.
④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작품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보다 깊이 있게 화자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어.
⑤ 2연과 6연에서는 우물 속에 비친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어.

67. <보기>의 ⓐ~ⓔ 중 윗글의 '우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보기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런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 윤동주, <참회록>

① ⓐ
② ⓑ
③ ⓒ
④ ⓓ
⑤ ⓔ

68. <보기>는 ㉠의 심상의 전이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보기

㉠에는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서 표현하는 공감각적 심상이 드러나 있다. 즉, ㉠에는 ( )이 ( )화되어 표현되고 있다.

69.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6연에서 2연을 반복, 변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서술하시오.**

보기

- '구성상 ~을 준다.'의 형태로 쓸 것.
- 20자 이내의 한 문장으로 쓸 것.

<작품 완전 분석>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01.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 자아 성찰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02. 현실적 자아가 과거의 순수했던 자아를 발견하면서 내적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03. 화자의 정서 변화에 따라 자아 성찰을 표현하고 있다.
04. 화자의 행위의 반복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5.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며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6. '-ㅂ니다'로 문장을 종결하여 산문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7. '우물'은 화자가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해 주는 매개체이다.
08. 우물 속에 비친 자연물을 나열하면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09. 순수하고 아름다운 우물 속 풍경을 화자의 초라한 모습과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10. 3연의 '사나이'는 성찰의 대상인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11. 3연에서 화자가 사나이를 밉다고 표현한 이유는, 암울한 현실을 살아가는 초라한 현실적 자아에 대한 부끄러움 때문이다.
12. 5연에서 화자는 자신에 대한 미움과 그리움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13. 5연에서 화자가 '그 사나이'를 그리워하는 것은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다.
14. 6연에서 2연을 반복, 변형함으로써 구성상 안정감과 균형감을 주고 있다.
15. 6연의 '사나이'는 평화로운 자연과 함께 있는 과거의 순수했던 자아, 이상적 자아를 의미한다.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은 정월 보름이다
대보름 명절인데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남의 나라** 쓸쓸한 객고[1]에 있는 신세로다
옛날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먼 타관에 나서 이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A]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
새 옷을 입고 새 신도 신고 떡과 고기도 억병[2] 먹고
일가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이련만
나는 오늘 때 묻은 입든 옷에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혼자 외로이 앉어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옛날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 이렇게 마른 물고기 한 토막으로 외로이 쓸쓸한 생각을 한 적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어느 먼 외진 거리에 한 고향 사람의 **조그마한 가업집**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 집에 가서 그 맛스러운 떡국이라도 한 그릇 사 먹으리라 한다
우리네 조상들이 먼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으레히 그러하며 오듯이
먼 타관에 난 그 두보나 이백 같은 이 나라의 시인도
이날은 그 어느 한 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반관**(飯館)[3]을 찾어가서
그 조상들이 대대로 하든 본대로 원소(元宵)[4]라는 떡을 입에 대며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5] 위안하지 않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맑은 옛 시인들은
먼 훗날 그들의 먼 훗자손들도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원소를 먹을 것을
외로이 타관에 나서도 이 원소를 먹을 것을 생각하며
그들이 아득하니 슬펐을 듯이
나도 떡국을 놓고 아득하니 슬플 것이로다
아,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
㉠**거리에는 오독독이**[6] **탕탕 터지고 호궁**(胡弓)[7] **소리 삘삘 높아서**
내 쓸쓸한 마음엔 자꾸 이 나라의 옛 시인들이 그들의 쓸쓸한 마음들이 생각난다
내 쓸쓸한 마음은 아마 두보나 이백 같은 사람들의 마음인지도 모를 것이다
아무려나 이것은 옛 투의 쓸쓸한 마음이다
- 백석,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어휘 풀이]
1) 객고(客苦): 객지에서 고생을 겪음. 또는 그 고생. 2) 억병: 매우 많이. 3) 반관(飯館): 작은 중국 식당. 4) 원소(元宵): 중국에서 정월 대보름날 먹는 새알 모양의 전통 음식. 5) 느꾸어: '긴장이나 흥분을 풀어'라는 의미의 평북 방언. 6) 오독독이: 오독도기. 불꽃놀이에 쓰는 딱총의 하나. 화약 심지에 불을 붙이면 터지는 소리를 내면서 불꽃이 떨어진다. 7) 호궁(胡弓): 중국 전통 현악기의 하나. 우리나라의 해금과 비슷함.

<기본 실력 다지기>

※ 이 작품의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70.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흥겨움을 표출하고 있다.

71. 대비적인 상황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쓸쓸함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72.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73. 가정적 상황과 상상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74. 특정 인물들을 끌어들여 화자 자신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75.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에 대한 위로를 드러내고 있다.

76. 특정한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여 화자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77.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화자와 대비되는 주변 분위기를 보여 주고 있다.

※ 이 작품의 시어 및 시구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어나 시구를 찾아 쓰시오.

- 대보름 명절
-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 떡과 고기

- 마른 물고기 한 토막
- 원소(元宵)

---

78. 현재 화자의 고달픈 삶의 모습:

79. 고향 집에서의 화자의 행복한 삶:

80. 화자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시적 대상:

81. 타관에 있는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시간적 배경:

82. '떡국'과 시적 의미가 유사한 시어로, 고향을 느끼게 해 줌:

※ 이 작품의 공간들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공간을 모두 찾아 쓰시오.

- 먼 타관
- 고향의 내 집
- 조그마한 가업집
- (흥겨운) 거리

---

83. 화자의 쓸쓸한 처지와 대비됨:

84. 화자의 쓸쓸한 처지를 드러냄:

85. 화자가 고향을 느끼기 위해서 찾아감:

86. 화자가 가고 싶은 공간으로, 화자에게 행복을 느끼게 함:

<내신 수능 대비 문제>

87. 다음은 윗글에 대한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작품은 (　) 명절을 타관에서 맞이한 회자가 느끼는 정회를 노래하고 있다. 회자는 '고향에서의 삶'과 '타지에서의 삶'이라는 대비적 상황과 '쓸쓸한 마음'이라는 동일 구절의 반복을 통해 타관에서 느끼는 쓸쓸함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처지와 유사한 (　)을 들어 이들 역시 쓸쓸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　)하고 있다.

88.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물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냉소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② 상징적 소재를 제시하여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③ 화자의 처지를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④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공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대비적 상황 제시를 통해 회자가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89.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고향을 떠나 이국땅에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
② 두보나 이백을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③ 정월 대보름날을 맞이하여 쓸쓸한 마음을 표출하고 있다.
④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고향을 찾아가려 하고 있다.
⑤ 두보나 이백의 처지와 자신의 처지가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90. 윗글의 소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대보름 명절'은 타관에 있는 화자로 하여금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시간적 배경이다.
② '새 옷'은 '때 묻은 입든 옷'과 대비되는 소재로, 고향에서의 행복했던 삶을 의미한다.
③ '일가친척들'은 고향을 되찾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화시켜 준다.
④ '마른 물고기 한 토막'은 현재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화자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⑤ '맛스러운 떡국'은 '원소'와 대응하는 것으로 고향을 느끼기 위해 화자가 떠올린 것이다.

9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시어나 시구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시에서 장소는 안과 밖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화자는 물리적으로는 물론 심리적으로도 장소의 안 또는 밖에 자리하게 된다. 화자가 특정 장소의 안에 있다고 느끼는 소속감이나 일체감은 장소와 화자 사이에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렇게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 장소감을 '장소애'라 일컫는다. 한편, 화자가 장소의 밖에 있다고 느끼는 소외감은 화자로 하여금 부정적인 장소감을 갖게 만든다. 이때 장소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소외감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비롯되는데, 과거에 진정한 장소애를 경험했다가 자의든 타의든 이를 잃게 되어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그 하나이고, 특정한 장소감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아직 장소에 익숙하지 않아 특정 장소에서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그 다른 하나이다.

① '남의 나라'는 화자가 심리적으로 밖에 있는 공간으로, 화자에게 부정적인 장소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② '고향의 내 집'은 화자가 물리적, 심리적으로 소속되었던 공간으로, 화자에게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주는 곳이다.
③ '조그마한 가업집'은 화자가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 찾아가려는 곳이다.
④ '주막이나 반관(飯館)'은 물리적인 장소의 밖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화자가 직접 찾아가서 두보나 이백이 처한 상황을 경험해 보고자 하는 곳이다.
⑤ '거리'는 화자에게 소속감, 유대감이 아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9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고 있다.
② 화자의 쓸쓸함을 더욱 부각시켜 준다.
③ 정월 대보름날의 분위기를 드러낸다.
④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외적 상황에 해당한다.
⑤ 화자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북돋워 주는 역할을 한다.

93. [A]에 사용된 표현상 특징을 쓰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3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단, '~으로써 ~고 있다.'의 형태로 쓸 것)

<작품 완전 분석>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01. 시간적 배경은 정월 대보름 명절날로, 이는 남의 나라(타관)에 있는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킨다.
02. 화지는 현재 고향을 떠나 남의 나라에서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다.
03. 두보나 이백은 화자가 명절날 떠올린 인물들로, 화자와 마찬가지로 고향을 떠나 외롭고 쓸쓸하게 타향살이를 한 인물들에 해당한다.
04. 화자는 두보나 이백이 자신과 마찬가지로 타향에서 명절을 맞이하여 쓸쓸한 마음을 지녔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05. 과거 고향에서의 행복했던 삶과 현재 타관에서의 고달픈 처지를 대비하여 화자가 느끼는 쓸쓸함을 더욱 부각하고 있다.
06.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면'은 화자가 가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의 화자의 처지와 대비된다.
07. '새 옷'과 '새 신'은 '때 묻은 입든 옷'과 '떡과 고기'는 '마른 물고기 한 토막'과 대비되는 소재이다.
08. '일가 친척들과 서로 모여 즐거이 웃음으로 지날 것'은 명절날 고향집에서의 행복했던 모습을 보여 준다.
09. '조그마한 가업집'은 화자가 고향을 느끼기 위해 찾아가려는 공간으로, 두보나 이백이 찾아갔던 '주막이나 반관(飯館)'과 대응되는 공간이다.
10. '맛스러운 떡국'은 화자가 고향을 느끼기 위해 먹으려는 음식으로, 두보나 이백이 먹은 '원소(元霄)'와 대응되는 소재이다.
11. '그 조상들이 대대로~위안하지 않었을 것인가'는 두보나 이백이 원소를 먹으며 위안을 얻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표현으로, 화자 자신에 대한 위안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12. '아 이 정월 대보름 명절인데'에서는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타관에서 명절날을 맞이하는 화자의 쓸쓸한 마음을 보여 준다.
13.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명절날을 맞이한 거리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거리의 상황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어 화자의 쓸쓸함을 더욱 부각시킨다.
14. '쓸쓸한 마음'을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15. 화자는 자신의 쓸쓸한 마음처럼 두보나 이백 역시 쓸쓸한 마음을 지녔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 자신의 처지를 두보나 이백과 동일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선산[1] 뒤에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가
적송[2]밭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들**이
방생[3]의 시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멧새[4]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막막궁산[5] 오솔길로 사라진다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
둥근 여백이여 뒤안길이여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의 잡초 다 스러진 뒤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아니면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그 아래 네가 앉아 있는
-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어휘 풀이]
1) 선산(先山): ① 조상의 무덤. ②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 2) 적송(赤松): 소나무는 적송(赤松)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소나무의 껍질이 붉고 가지 끝에 있는 눈의 색깔도 붉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함. 3) 방생(放生): 다른 사람들이 잡은 물고기새짐승 따위의 산 것들을 사서, 산에나 못에 놓아 살려 주는 일. 4) 멧새: 우리나라의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참새과의 텃새. 5) 막막궁산(莫莫窮山): 고요하고 쓸쓸한 느낌이 드는 깊은 산속.

<기본 실력 다지기>

※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94. 화자는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여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95. 화자는 어머니의 죽음이 무(無)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96. 활유법, 영탄법, 직유법 등과 같은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다.

97. 유사한 문장 구조와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98. 독백체의 어조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담담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99. 화자는 먼 훗날 다른 사람에게 위안과 위로를 주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100. 감탄사의 사용과 감탄형 종결 어미의 반복으로 간절함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101. 미완성된 구조로 작품을 마무리함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있다.

102.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현재 상황을 실감 나게 묘사하고 있다.

103. 불교의 연기론적 사고와 역설적 인식을 통해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 이 작품의 시구들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구를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 팽팽한 바람이 멧새의 발목을 툭, 치며
㉡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
둥근 여백이여 뒤안길이여
㉢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104. **직유법:**

105. **활유법:**

106. **음성 상징어:**

107. **제목과 관련이 있음:**

108. **화자의 소망이 드러남.:**

109. **이 작품의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을 <u>모두</u> 찾아 선으로 연결하시오.**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	㉠	•	ⓐ	자유로움, 치유
동산	㉡	•	ⓑ	어머니의 무덤이 있는 곳
잔소리	㉢	•	ⓒ	화자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
방생의 시냇물	㉣	•	ⓓ	안식처, 화자가 남기고 싶은 것
내 마음의 잡초	㉤	•	ⓔ	그리움의 대상인 어머니의 부재
고요한 여백	㉥	•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10. **다음은 윗글에 대한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작품의 화자는 돌아가신 어머니와 있었던 추억을 상기하며 어머니의 죽음이 무(無)가 아니라는 인식에 도달하고 그로부터 많은 위로를 얻는다. 서울에서의 삶에 지친 화자는 어머니의 ( )에서 마음의 위안과 ( )을 얻고, 사라지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 )을 낳는다는 '여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 화자는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해 주었듯, 모든 존재가 모성과 같은 포용성(큰 여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화자는 자신이 사라진 후에 세상 사람들에게 '고요한 ( )'이 되어 위안과 위로가 되기를 ( )하고 있다.

111. **윗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③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감탄형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깨달음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미완성된 구조로 마무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여운을 느끼게 하고 있다.

112.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평안을 얻고 있다.
② 깨달음과 소망을 담담한 어조로 전달하고 있다.
③ 역설적 인식을 통해 여백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④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과 위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
⑤ 작품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대상을 관찰하고 있다.

11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은 삶의 위안을 주는 대상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어머니의 포용력을 의미한다.
② ㉡은 소음, 갈등, 번잡스러움 등과 같이 살면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의미의 모든 것을 가리킨다.
③ ㉢은 마음속에 있는 온갖 번뇌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 ㉣은 역설적 표현으로, '사라지는 것'은 무(無)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창조와 탄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은 화자가 자신에게 위안과 위로를 주는 안식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담담하게 표현한 것이다.

11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동양의 산수화에서 여백은 단순히 서로 다른 자연물 사이의 빈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물, 구름, 안개 등과 같은 또 다른 사물의 공간을 의미한다. 즉, 얼핏 보면 비어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채워진 공간인 것이다. 이것은 큰북을 치면 주위 공간에 소리가 울려 퍼지는, 큰 북을 포함한 공명(共鳴)의 공간처럼 '무언(無言)'이면서도 '불언(不言)'이 되는 역설의 미학인 것이다.

①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가 시냇물 따라 흘러가서 '쟁쟁쟁' 소리를 내는 것은 비어 있는 공간으로 갔기 때문이겠군.
② '바람'이 '막막공산 오솔길'로 사라지는 것은 그것이 여백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겠군.
③ '어머니'가 남겨 준 '여백'은 '나'를 포용하면서 '내 마음의 잡초'로 남아 빈 공간을 채우고 있군.
④ '나'가 어머니처럼 세상을 떠나 '무덤'에 잠들게 될 때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빈 공간인 '여백'이 생기겠군.
⑤ '여백'이란 모든 부재(不在)하는 존재가 남기는 쓸쓸한 공간이지만, 그것이 텅 빈 공백의 공간이 아닌 이유는 부재(不在) 뒤 생성된 무언(無言)의 여백이 화자에게 위안을 주기 때문이군.

115. **<보기>는 윗글을 감상한 후 화자의 태도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보기

화자는 어머니의 무덤가에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으며, 사라지고 남은 '( )'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있다. 이러한 생각과 깨달음을 통해 화자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과 위로를 주는 평안한 ( )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116.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서술하시오. (단, 50자 이내의 한 문장으로 쓸 것)**

조건

- '화자는 ~고 있다.'라는 문장 형태로 쓸 것.
- '마음의 잡초', '사람들', '평안', '위로', '안식처'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할 것.

<작품 완전 분석>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01. 화자는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얻고, '여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02. 화자는 어머니의 죽음이 무(無)가 아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03. 활유법, 영탄법, 직유법 등과 같은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다.

활유법	'팽팽한 바람이 멧새의 발목을 툭 치며'
영탄법	'오', '둥근 여백이여 뒤안길이여',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등
직유법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등

04. 유사한 문장 구조,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5. 독백체로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담담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06. 화자는 먼 훗날 다른 사람에게 위안과 위로를 주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07. 감탄사의 사용과 감탄형 종결 어미의 반복으로 깨달음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08. 미완성된 구조로 작품을 마무리함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있다.
09.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이 느껴진다.
10. 불교의 연기론적 사고와 역설적 인식을 통한 깨달음을 의식의 순차적인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11. '잔소리', '내 마음의 잡초'는 시름, 걱정, 번뇌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것들을 가리킨다.
12.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그리운 대상의 부재라는 화자의 상황을 알려 준다.
13.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는 어머니가 화자에게 삶의 위안을 주는 존재로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흘러흘러 바다로 들어가고'는 화자의 번뇌(잔소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5. '고요한 여백'은 안식처, 화자가 남기고 싶은 여백(위로, 위안)을 의미한다.

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 땅에도
오히려 꽃은 발갛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쪽 툰드라[1] 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옴작거려[2]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約束)이여

한바다 복판 용솟음치는[3]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 성(城)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이육사, <꽃>

[어휘 풀이]
1) 툰드라: 스칸디나비아반도 북부에서부터 시베리아 북부, 알래스카 및 캐나다 북부에 걸쳐 타이가 지대의 북쪽 북극해 연안에 분포하는 넓은 들판. 2) 옴작거려: 작은 몸을 느리게 자꾸 움직여. 3) 용솟음치는: 물 따위가 매우 세찬 기세로 위로 나오는.

<기본 실력 다지기>

※ 이 작품의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117. 겨울과 봄의 자연 현상을 통해 긍정적 미래를 확신하고 있다.

118. 부정적 현실에서 긍정적 미래를 전망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19.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120. 대립적 시어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21.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사건의 교훈성을 강조하고 있다.

122. 색채 이미지를 통해 부정적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123.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와 열망을 강조하고 있다.

※ 시어 및 시구의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다음 시어 및 시구와 관련된 의미를 찾아 기호를 쓰시오.

㉠ 부정적 현실에 대한 인식
㉡ 생명력을 지닌 존재
㉢ 광복이 된 조국

124. 하늘도 다 끝나고

125. 꽃

126. 북쪽 툰드라

127. 눈

128. 한바다 복판 용솟음치는 곳

129. 꽃 성

130. 상징적 의미에 해당하는 시어와 관련 있는 표현을 알맞게 선으로 연결하시오.

상징적 의미	시어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 표현
㉠ 조국 광복의 희망	ⓐ 꽃	㉮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 광복이 된 조국	ⓑ 제비 떼	㉯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 조국의 광복	ⓒ 꽃 성	㉰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31. 다음은 윗글에 대한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작품의 제목인 <꽃>은 작품의 중심 소재이기도 한다. 화자는 극한 시련을 겪는 ( )의 상황과 이를 이겨 내는 의지를 '꽃'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밝은 ( )에 대한 강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 )에 창작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이 작품은 저항시라고 할 수 있으며, 일제 강점하에서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자연 현상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 )에 대한 확신과 의지를 다지고 있다.

132.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와 열망을 강조하고 있다.
②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③ 영탄적 표현을 통해 미래의 긍정적 상황에 대한 의지와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④ 색채 이미지를 통해 부정적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⑤ 미래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묘사하여 긍정적 상황의 도래에 대한 환희를 드러내고 있다.

133.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있다.
②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③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④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설득적 어조를 구사하고 있다.

134. 윗글의 구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1연에서 '꽃'이 필 수 없는 극한적 상황을 제시한 뒤, 꽃이 빨갛게 핀다는 역설적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 초극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2연에서 계절의 순환 원리를 통해 봄의 도래에 대한 당위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3연에서는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를 돌아보며, 소극적으로 현실에 대응하고 있는 무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④ 1연과 2연은 의미적으로 대응되며, 3연에서는 비극적 상황을 이겨 낼 긍정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⑤ 2연의 '꽃맹아리'는 1연의 '꽃', 3연의 '꽃 성'으로 연결되며, 자연물의 성장과 더불어 시적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135. <보기>의 관점에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일제에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시기를 일제 강점기라 한다. 당시 일제의 강력한 탄압으로 대다수의 작가들이 친일화되었지만, 끝까지 일제에 저항했던 작가들도 있다. 특히 시인 이육사는 문학을 통해 일제의 강압 통치를 비판하며, 선명한 저항 정신으로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였다.

① 1연의 '하늘도 다 끝'난 곳,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 땅'은 우리 민족을 탄압하는 일제의 강압 통치를 보여 주고 있다.
② 1연의 '쉬임 없는 날'은 화자가 멈추지 않고 걸어가는 길로, 독립운동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고 있다.
③ 2연에서 '옴작거'리는 '꽃맹아리'는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겠다는 생명의 의지로, 조국의 독립을 가져올 힘을 의미하고 있다.
④ 2연에서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은 3연에서 조국의 독립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⑤ 3연에서 화자가 부르는 '너'는 일제의 탄압에 의해 친일화된 이들로, 독립된 조국을 위해 이들을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136. <보기 1>을 바탕으로, 윗글의 '꽃'에 대응하는 시어를 <보기 2>

에서 찾아 쓰고, 두 시어의 공통점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보기 1

이육사의 시에는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과 역사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강인하고 의지적인 어조로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며, 미래에 대한 전망을 예언자적 자세[1]로 표현한다.

[어휘 풀이]
1) 예언자적 지세: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짐작하여 말하는 사람과 같이 미래의 상황에 대해 확신하는 자세.

보기 2

섣달에도 보름께 달 밝은 밤
앞내강(江) 깽깽 얼어 조이든 밤에
내가 부른 노래는 강 건너 갔소

강 건너 하늘 끝에 사막도 닿은 곳
내 노래는 제비같이 날아서 갔소

못 잊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
가기는 갔지만 어린 날개 지치면
그만 어느 모래불에 떨어져 타서 죽겠죠

사막은 끝없이 푸른 하늘이 덮어
눈물 먹은 별들이 조상 오는 밤

밤은 옛일을 무지개보다 곱게 짜내나니
한 가락 여기 두고 또 한 가락 어디멘가
내가 부른 노래는 그 밤에 강 건너 갔소
- 이육사, <강 건너간 노래>

(1) '꽃'에 대응하는 시어:
(2) 두 시어의 공통점:

<작품 완전 분석>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01. 강인하고 의지적인 어조로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2. 극한적 상황을 설정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03. 극한적 상황에서도 피는 '꽃', '꽃맹아리'는 생명력을 지닌 자연물로, 초극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04. 각 연의 1~3행에서는 화자가 인식한 상황에 대한 묘사를, 4행에서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05.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상황을 대비시켜 미래에 대한 강한 염원을 노래하고 있다.
06. 1, 2연에서는 유사한 구조를 활용하여 비극적인 현실 인식과 이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3연에서는 미래의 상황을 묘사하여 1, 2연에서의 현실에 대한 대응 방식이 정당함을 드러내고 있다.
07. 화자는 겨울의 추위를 겪으며 제비 떼가 날아오는 봄을 기다리고 있다. 화자는 계절의 순환 원리에 따라 겨울 뒤에 봄이 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08. '꽃맹아리'가 '꽃'이 되고, 무리를 이루어 '꽃 성(城)'이 되는 것을 통해 조국 광복의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09. '꽃'과 '꽃맹아리'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생명력을 의미하며, '제비 떼', '꽃 성(城)'은 화자가 기다리는 봄의 상황을 나타낸다. 시대적으로 '꽃', '꽃맹아리'는 일제에 대한 끈질긴 저항 정신이자 조국 독립의 기운을, '제비 떼'는 조국의 광복을, '꽃 성(城)'은 광복된 조국을 상징한다.
10.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은 광복된 조국인 '꽃 성(城)'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민족을 의미한다.
11. 영탄적 표현과 설의적 표현을 통해 미래의 긍정적 상황에 대한 의지와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12. 색채 이미지와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긍정적 상황이 오리라는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13. 화자는 1연에서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로 현실에 대한 저항 정신을 드러내고, 2연에서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며, 3연에서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로 '너'를 향한 열망을 드러내고 있다.

한계령을 위한 연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겨울** 못 잊을 사람하고
한계령쯤을 넘다가
뜻밖의 **폭설**을 만나고 싶다
ⓑ**뉴스**는 다투어 수십 년 만의 풍요를 알리고
자동차들은 뒤뚱거리며
제 구멍들을 찾아가느라 법석이지만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오오, 눈부신 **고립**
사방이 온통 흰 것뿐인 **동화의 나라**에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면 풍요는
조금씩 공포로 변하고, 현실은
두려움의 색채를 드리우기 시작하지만
헬리콥터가 나타났을 때에도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헬리콥터가 ⓒ**눈 속에 갇힌 야생조들과**
짐승들을 위해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 젊은 심장을 향해
ⓓ**까아만 포탄**을 뿌려 대던 헬리콥터들이
고라니나 꿩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
자비롭게 골고루 먹이를 뿌릴 때에도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아름다운 한계령에 기꺼이 묶여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 둘 바를 모르리**
- 문정희, <한계령을 위한 연가>

<기본 실력 다지기>

※ 이 작품의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137.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38. '눈 속의 고립'이라는 상황 설정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139. 고립을 소망하고 구조를 거부하는 등 보편적인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태도를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140. 특정 어미를 반복하여 화자의 소망을 부각하고 있다.

141. 특정 부사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142.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43.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을 다양한 사물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144.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통해 화자의 고난을 암시하고 있다.

145.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146. 역설적 표현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부각하고 있다.

※ 이 작품의 시구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구를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
㉯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
㉰ 나는 결코 손을 흔들지는 않으리

㉲ 나는 결코 옷자락을 보이지 않으리
㉳ 난생 처음 짧은 축복에 몸 둘 바를 모르리

147. **부사를 활용하여 의지를 강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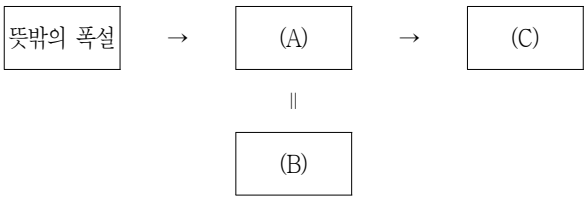
148. **가정과 소망을 표현하는 어미를 사용함.**:

149. **추측과 의지를 드러내는 어미를 사용함.**:

150. **시어 및 시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때**, (A)~(C)**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보기

한겨울, 못 잊을 사람, 제 구멍, 눈부신 고립, 동화의 나라, 일용할 양식, 짧은 축복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51. 다음은 윗글에 대한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　)의 상황을 설정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표현한 작품이다. 화자는 (　)로 인해 한계령에 (　)되는 조난의 상황을 설정하고 이러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머물고 싶은 강렬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 화자의 이러한 소망은 (　) 같은 구조의 손길을, 그 고립을 파괴하는 현실의 힘으로 인식하여 의도적으로 (　) 하는 의지적 자세에 의해 더욱 강화된다.

15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화자가 지향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자연물을 통해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③ 대상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시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계절적 배경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53.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③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특정 시어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⑤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과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15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에서는 '-(으)면'이라는 어미를 통해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② ㉢~㉤에서는 '-(으)리'라는 어미를 통해 화자의 추측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③ ㉢~㉣에서는 '결코'라는 부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단호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에서는 일시적, 물리적인 고립이 아니라 영원한 고립이길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⑤ ㉤에서는 '몸 둘 바를 모'른다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불안과 초조를 암시하고 있다.

15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의 시어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시어의 의미는 어휘의 사전적 의미만이 아니라 다른 시어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둠'이라는 하나의 시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 '절망'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 '평온함'이라는 긍정적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① '폭설'은 '만나고 싶다'와 관련지어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군.
② '자동차들'은 '법석이지만'과 관련지어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군.
③ '고립'은 '눈부신'과 관련지어 보면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군.
④ '동화의 나라'는 '묶였으면'과 관련지어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군.
⑤ '헬리콥터'는 '포탄'과 관련지어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군.

15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 화자에게 시련을 주는 시간적 배경에 해당한다.
② ⓑ: 화자의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매개체에 해당한다.
③ ⓒ: 세상과 단절되어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에 해당한다.
④ ⓓ: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현실의 모습에 해당한다.
⑤ ⓔ: 화자의 소박한 소망을 함축한 소재에 해당한다.

157. 다음은 '헬리콥터'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3연의 '헬리콥터'는 조난 상황을 끝낼 수 있는 (　)의 손길이지만 화자는 이를 (　)한다. 그 이유는 4연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화자는 헬리콥터의 기본 역할이 '뿌리는' 행위를 통한 파괴와 훼손[1]에 있다고 본다. 전쟁에서 (　)을 뿌려 생명을 파괴했던 헬리콥터가 지금은 (　)를 뿌려 야생 동물의 야생성을 파괴하고 있으며 자신이 소망하는 고립도 구조라는 위선[2] 아래 파괴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듯 화자에게 헬리콥터의 (　)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상황의 (　)이자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어휘 풀이]
1) 훼손(毁損):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듦. 2) 위선(僞善): 겉으로만 착한 체함. 또는 그런 짓이나 일.

158.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눈부신 고립'에 담긴 표현 의도를 서술하시오.

조건

- 화자의 인식과 표현 방식을 모두 포함할 것.
- 80자 내외의 한 문장으로 쓸 것.

<작품 완전 분석>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01. '폭설로 인한 고립'이라는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2. 화자는 '폭설'이나 '고립'과 같은 상황에 대해 보편적인 반응(부정적)과는 다른 생각(긍정적, 소망함.)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 반응(부정적)	↔	**화자의 반응(긍정적)**
법석, 두려움, 공포		풍요, 눈부신, 동화의 나라, 축복

03. '-(으)면', '-(으)리' 등의 어미를 반복하여 화자의 소망과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04. 유사한 시구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5. '기꺼이', '결코' 등의 부사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06.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이나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07. '한겨울'과 '한계령'은 각각 화자의 소망(고립)을 가능케 하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에 해당한다.
08. '못 잊을 사람'은 화자가 '고립'을 소망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인물로, 화자가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09.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에서는 '한계령(寒溪嶺)'의 '한계(寒溪)'를 '한계(限界)'와 연결 짓는 일종의 언어유희로 화자의 소망(고립)을 드러내고 있다.
10. '오오'라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11. '눈부신 고립'에서는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고립'을 '눈부신' 것으로 표현하는 역설법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부각하고 있다.
12. '발이 아니라 운명이 묶였으면'에서는 자신이 바라는 고립이 일시적,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13. 화자는 '헬리콥터'를 일반적 인식(구조의 손길)과는 달리 자신이 소망하는 고립을 파괴하는 현실의 간섭으로 인식하고 거부하고 있다.

일반적 인식(긍정적)	↔	**화자의 인식(부정적)**
구조, 자비		파괴, 훼손

14. '헬리콥터'에 대한 화자의 거부는 '나는 결코 ~지 않으리'라는 의지적 자세를 다지는 문장의 반복을 통해 드러난다.
15. '헬리콥터'에 대한 화자의 거부에는 '뿌리는' 행위를 통해 대상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헬리콥터'의 역할이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다.
16.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고립의 상황을 '축복'으로 표현하며 그 상황에서 느낌 행복감을 상상하고 있다.
17. '짧은 축복'이라는 표현에는, 폭설로 인한 고립의 상황이 눈이 녹으면 해소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과의 축복과 같은 시간도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산상(山上)의 노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높으디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1]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2]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u>내 홀로 서서</u>
<u>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u>.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어휘 풀이]
1) 시(十)월 상(上)달: '시월'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햇곡식을 신에게 드리기에 가장 좋은 달이라는 뜻에서 온 말이다. 2) 싸릿순: 콩과의 나무에서 새로 돋아난 싹

<기본 실력 다지기>

※ 이 작품의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159. 해방을 맞은 감격을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나타내고 있다.

160. 화자인 '나'가 겉으로 드러나 있다.

161. 명령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62. 비유와 상징을 통해 광복을 맞은 화자의 감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63. 산상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통해 암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164.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65.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166. 역설적 상황을 제시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이 작품의 시구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구를 찾아 기호를 쓰시오.

㉠ 낡은 고목(古木)
㉡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 아아 이 아침
㉣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167. 감탄사를 사용함:

168. 명령적 어조:

169. 의문형으로 종결함:

170. 암울한 일제 강점기의 상황:

171. 광복이 온 것을 청각적으로 표현함:

172. <보기>는 이 작품의 시어를 정리한 것이다. 성격에 따라 시어를 분류하여 ㉠과 ㉡에 기호를 쓰시오.

보기

1연	ⓐ 낡은 고목(古木), ⓑ 긴 밤
2연	ⓒ 아침, ⓓ 시들은 핏줄, ⓔ 종소리
3연	ⓕ 꽃다운 하늘
4연	ⓖ 시월상달
5연	ⓗ 피
6연	ⓘ 노래
7연	ⓙ 맑은 바람

부정적 시어 → ㉠

↕

긍정적 시어 → ㉡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73. 다음은 윗글에 대한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작품은 광복을 맞이한 화자의 기쁨을 (　)적상징적 표현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광복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민족의 미래에 대한 또 다른 이상을 염원하고 있다. 작품의 흐름으로 볼 때, 일제 강점기의 모습을 '시들은 핏줄', '메마른 입술' 등으로 표현하여 생명력을 (　)한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에 '종소리'와 '피'가 (　)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화자는 또 다시 '높으디 높은 산마루'에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처럼 울고 있지는 않지만 민족의 미래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는 선구자로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174.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상징적 시어를 통해 극한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② 감각적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정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④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시적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⑤ 밝음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75.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더 밝은 미래가 오기를 염원하고 있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치를 이동하고 있다.
③ 역사적 암흑기를 지나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④ 과거의 두려움과 슬픔이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⑤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이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있다.

176.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일제 강점기 이전의 평화로웠던 시절에 대한 회상을 의미한다.
② 민족의 앞날을 염려하며 바른 길을 모색하려는 태도가 나타난다.
③ 해방을 맞아 다시 돌아오게 될 유랑민에 대한 기다림이 나타난다.
④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 민족이 겪어야 하는 고난을 의미한다.
⑤ 암담한 상황 속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억압에 대한 표출을 상징한다.

177. 윗글의 시어 중 의미상 성격이 나머지와 <u>다른</u> 하나는?

① 낡은 고목(古木)
② 밤
③ 시들은 핏줄
④ 샛별
⑤ 피리

178.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1]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영영 멀리 떠나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보리라.

[어휘 풀이]
1) 오롯하다: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다.
- 신석정, <꽃덤불>

---

① 윗글과 <보기> 모두 광복 후의 상황에 대한 심정이 드러나 있다.
② 윗글과 <보기> 모두 광복의 기쁨과 함께 또 다른 염원이 드러나 있다.
③ 윗글과 <보기> 모두 비유와 상징을 통해 광복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
④ 윗글에 비해 <보기>는 민족의 화합에 대한 소망을 더욱 간절히 나타내고 있다.
⑤ <보기>에 비해 윗글은 암울한 현실 극복에 대한 투쟁의 모습이 더 강조되고 있다.

179. **다음을 바탕으로 윗글에서 광복을 '아침'에 비유한 의도를 4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시간	밤		아침
화자의 상황	일제 강점기	→	광복을 맞이한 조국
의미	어둡고 암울한 상황임.		날이 밝아 환해짐.

<작품 완전 분석>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01. 해방의 감격을 비유적상징적인 표현과 절제된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02. 화자가 산 위에서 고고하고 정결한 자세로 미래의 이상을 염원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03. 화자는 일제 강점기에 광복을 간구했었다.
04. 화자는 광복 후 바람직한 조국의 미래에 대해 염원하고 있다.
05. 변형된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시적 안정감을 획득하고 있고, 1연과 7연의 대비를 통해 변화된 화자의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06. 감각적 이미지의 사용으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7. 감정 이입을 사용하여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08. 영탄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09.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10. 대조적 시어를 활용하여 변화된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11. 의문형 종결 표현과 명령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12. 암울한 현실 속에서 화자는 두려움과 슬픔을 느꼈다.
13. 해방 후 우리 민족이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14. '긴 밤'은 '아침'과 대조되는 시어로 '무엇'을 간구하던 시간이다.
15. '아침'은 화자가 간구하던 독립이 이루어진 시간이다.
16. 1연의 '산마루'는 일제 강점기의 험난한 공간이고, 7연의 '산마루'는 희망찬 미래를 염원하는 공간이다.
17. '종소리'와 '피'는 황폐화된 조국과 우리 민족에게 생기와 생명력을 불어넣는 존재이다.
18. 화자는 광복의 상황에서 민족의 미래를 염려하며 밝고 바람직한 국가가 건설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꽃덤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달빛이 흡사[1] 비 오듯 쏟아지는 밤에도
우리는 ㉡**헐어진 성터**를 헤매이면서
언제 참으로 그 언제 우리 하늘에
오롯한[2] 태양을 모시겠느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그러는 동안에 영영 잃어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멀리 떠나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몸을 팔아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맘을 팔아 버린 벗도 있다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그 어늬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 신석정, <꽃덤불>

[어휘 풀이]
1) 흡사: 거의 같을 정도로 비슷한 모양. 2) 오롯하다: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다.

<기본 실력 다지기>

※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180.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81. 어둠과 밝음의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182.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83. 일제 강점기의 암담함을 상징하는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184. 광복 직후의 혼란 속에서 새로운 민족 국가 수립에 대한 소망과 염원이 나타나고 있다.

185.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구절이 나타나고 있다.

186.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현실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187. 바람직한 민족 국가의 모습을 특정한 시어로 형상화하고 있다.

188.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이 작품의 시구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구를 찾아 기호를 쓰시오.

㉠ 태양을 의논하는 거룩한 이야기는
㉡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
㉢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
㉣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 그 어늬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 보리라

189. 광복 후 사회적 혼란의 상황을 나타냄.:

190. 혼란이 극복된 밝은 미래에 대한 염원이 드러남.:

191. 조국의 광복에 대한 논의를 상징적으로 나타냄.:

192. 어두운 곳에서 독립 투쟁이 시작됐음을 나타냄.:

193. 암울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통함과 대응 태도가 나타남.:

194. <보기>는 이 작품의 시어이다. 이를 상징적 의미에 따라 [A]와 [B]로 각각 분류하여 쓰시오.

보기

- 태양
- 태양을 등진[1] 곳
- 달빛
- 밤
- 헐어진 성터
- 겨울밤
- 오는 봄
- 꽃덤불

[어휘 풀이]

1) 등지다: ① 등 뒤에 서다. ② 관계를 끊고 멀리하거나 떠나다. 여기서는 ①의 뜻으로 쓰이고 있음.

[A] 어둠(부정)	↔	[B] 밝음(긍정)

<내신 수능 대비 문제>

195. 다음은 윗글에 대한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작품에서 '(　　)'과 '(　　)', '오는 봄'은 밝은 미래를 의미하는데,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연관 지을 때 조국의 완전한 광복으로 볼 수 있다. 1연에서 광복을 위한 독립 투쟁의 노력은 '태양을 등진 곳', 즉 암흑 속에서 은밀하게 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5연에 등장하는 '꽃덤불'은 이러한 암흑을 극복하고 이루어 낼 진정한 화해와 평화의 민족 국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 시어들은 민족 간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우리 민족이 장차 이루어야 할 조국의 (　　)에 대한 소망을 형상화[1]한 것이다.

[어휘 풀이]
1) 형상화(形象化)하다: 형체로는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어떤 방법이나 매체를 통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형상으로 나타내다.

---

196.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역설법을 활용하여 개인적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②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③ 대립적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④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독립된 한 행을 한 연으로 구성함으로써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197.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재 상황에 대한 기쁨과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② 불안한 현실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③ 밝은 미래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④ 어두운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불가능한 이상향을 꿈꾸고 있다.
⑤ 안타까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자책하고 있다.

19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 일제 강점기의 암담한 현실을 상징한다.
② ㉡: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긴 조국의 현실을 상징한다.
③ ㉢: 갈등에서 비롯된 광복 후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의미한다.
④ ㉣: 우리 민족이 앞으로 극복해야 할 인고의 시간을 의미한다.
⑤ ㉤: 모두가 화합되어 평화를 이루는 진정한 광복의 모습을 상징한다.

199. <보기 2>를 참조하여 윗글과 <보기 1>을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1

높으디높은 산마루
낡은 고목(古木)에 못 박힌 듯 기대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 왔는가.

아아 이 아침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이제 눈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거니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

환히 트이는 이마 우
떠오르는 햇살은
시월상달의 꿈과 같고나.

메마른 입술에 피가 돌아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더듬노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싸릿순을 사양하라.

여기 높으디높은 산마루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보기 2

조지훈의<산상의 노래>는 해방의 감격을 비유적인 표현과 절제된 어조를 통해 우회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산 위에서 고고하고[1] 정결한 자세로 미래의 이상을 염원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작가의 지사적[2]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어휘 풀이]
1) 고고(孤高)하다: 세상일에 초연하여 홀로 고상하다. 2) 지사적(志士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사람과 같은.

① 윗글과 <보기 1> 모두 광복에 대한 화자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
② 윗글과 <보기 1> 모두 광복 후 화자의 또 다른 염원이 나타나고 있다.
③ 윗글과 달리 <보기 1>은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를 나타내고 있다.
④ 윗글과 <보기 1> 모두 대조적 시어를 통해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⑤ 윗글은 혼란의 상황 속에서 바람직한 미래를 염원하고 있고, <보기 1>은 기쁨 속에서 더 밝은 미래를 염원하고 있다.

200. **다음을 바탕으로 화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미래를 2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단, 명사로 종결할 것)**

이 시가 쓰인 것은 광복 직후이다. 일제로부터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기는 하였지만 세계는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대립되어 냉전[1]체제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분단되어 연합군의 신탁 통치[2]를 받았으며, 좌우익의 이념 갈등은 극에 달해 있었다.

[어휘 풀이]
1) 냉전(冷戰): 직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외교·정보 따위를 수단으로 하는 국제적 대립. 특히 제이 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을 뜻하며, 1990년 소련의 해체와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양 진영 사이의 냉전 상태는 사실상 종결되었다. 2) 신탁통치(信託 統治): 제이 차 세계 대전 후, 국제 연합의 위임을 받은 나라가 일정한 비자치 지역에서 행하는 통치 형태. 자치 능력이 결여되어 정치적 혼란이 우려되는 지역을 잠정적으로 위임 통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정치 질서의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작품 완전 분석>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01. 일제 강점기와 조국의 광복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다.
02. 시적 상황은 광복 직후의 혼란스러운 사회이다.
03. 화자는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회상하며 완전한 광복이 찾아오기를 염원하고 있다.
04. 화자는 현재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며 근심을 갖고 있다.
05. '과거-현재-미래'의 시간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가 나타나고 있다.
06.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7. 독립된 하나의 행을 한 연으로 구성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08. 대립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09. 일제 강점기는 '어둠'의 이미지로, 새로운 조국의 모습은 '밝음'의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다.
10. 상징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11.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여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12.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13.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에는 화자의 비통함과 광복에의 절실함이 드러나고 있다.
14. 암울한 현실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화자가 경험했던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15. '태양을 등진 곳', '밤'은 일제 강점하의 어둡고 암담한 현실을 의미한다.
16. '헐어진 성터'는 일제에 국권을 빼앗긴 조국을 상징한다.
17. '겨울밤'은 좌우익의 대립 등으로 혼란스러웠던 광복 직후의 상황을 의미한다.
18. 광복에 대한 화자의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19. '오는 봄'은 갈등이 극복되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진정한 광복의 시간을 의미한다.
20. '꽃덤불'은 혼란을 극복하고 모두가 화합된 바람직한 민족 국가의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이다.

사령(死靈)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활자[1]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않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2]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3]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않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어휘 풀이]
1) 활자(活字): 활판이나 워드 프로세서 따위로 찍어 낸 글자. 2) 섬세(纖細): '섬세하다(곱고 가늘다)'의 어근. 3) 교외(郊外): 도시의 주변 지역.

<기본 실력 다지기>

※ 이 작품의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201. 수미상관의 구성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202.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203. 특정한 대상과의 대화 형식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04.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 자신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05. 도치법을 활용하여 화자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강조하고 있다.

206.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207.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208. 대상에 대한 열거를 통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09. 특정한 시구를 반복하여 부정적 현실에 대응하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이 작품의 시어 및 시구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어 및 시구를 모두 찾아 쓰시오.

• 자유	• 나의 영(靈)	• 황혼
• 잡초	• 푸른 페인트 빛	• 고요함
• 그대의 정의	• 우리들의 섬세	• 욕된 교외

210. 긍정적 이미지의 시어 및 시구:

211. 부정적 이미지의 시어 및 시구:

212. 이 작품의 시어 및 시구들이다. 서로 관련 있는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시오.

자유	㉠	ⓐ	자유와 정의가 부재하는 공간
나의 영(靈)	㉡	ⓑ	화자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
벗	㉢	ⓒ	의인화된 존재로, 성찰의 매개체
고요함	㉣	ⓓ	책 속에 존재하는 관념적인 정의
그대의 정의	㉤	ⓔ	자유를 위해 행동하지 못하는 화자
욕된 교외	㉥	ⓕ	부정적 현실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
우스워라	㉦	ⓖ	무기력한 자신에 대한 자조적 태도

<내신 수능 대비 문제>

213. 다음은 윗글에 대한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작품의 화자는 (ⓐ)와 (ⓑ)의 가치를 알면서도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신의 영혼이 (ⓒ) 것이 아니냐는 반성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자유와 정의를 위해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마음에 들지 않아라'라며 (ⓓ)인 태도로 비웃고 있다. 이를 통해 머릿속으로는 자유와 정의의 가치와 필요성에 공감하고[1] 이해하면서도 부정적 현실에 맞서지 못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나약한 (ⓔ)의 무기력한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어휘 풀이]
1) 공감(共感)하다: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다.

21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특정한 시구의 반복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④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부정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⑤ 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을 통해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15. <보기>에 제시된 시어를 중심으로 화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 자유　　㉡ 나의 영(靈)
㉢ 고요함　　㉣ 그대의 정의
㉤ 욕된 교외

① 화자는 '반짝거리면서'와 연결하여 ㉠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② 화자는 ㉡을 '죽어 있는 것'으로 인식함으로써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화자는 ㉣을 '마음에 들지 않아라'라고 말함으로써 부정적 현실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④ 화자는 ㉠을 위해 ㉢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⑤ 화자는 ㉠을 실현하기 위해 ㉤에서의 삶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216. 윗글의 '활자'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화자에게 부정적 현실을 일깨운다.
② 화자의 수동적인 태도를 반성하게 한다.
③ 화자에게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일깨운다.
④ 화자에게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한다.
⑤ 화자에게 자유와 정의를 위한 행동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217. 윗글([A])과 <보기>([B])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폭포는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1]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金盞花)도 인가(人家)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醉)할 순간(瞬間)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2]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幅)도 없이
떨어진다.

[어휘 풀이]
1) 고매(高邁)하다: 인격이나 품성, 학식, 재질 따위가 높고 빼어나다. 2)

나타(懶惰): 나태(懶怠). 행동, 성격 따위가 느리고 게으름.
- 김수영, <폭포(瀑布)>

① [A]의 화자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B]의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지는 폭포와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겠군.
② [A]의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화자와 달리 [B]의 '폭포'는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모습을 통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고 있군.
③ [A]에서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 [B]에서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으로 형상화되었군.
④ [A]의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와 달리 [B]의 '곧은 소리'는 자유와 정의를 위해 타협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있군.
⑤ [A]에서 화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욕된 교외'는 [B]의 '나타(懶惰)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한 부정적 현실을 의미하고 있군.

218.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태도를 서술하시오.**

조건

- 윗글의 시어나 시구를 인용할 것.
- 50자 이내의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쓸 것.

<작품 완전 분석>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01. 화자인 '나'가 '벗(그대)'인 '활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2. 수미상관식 구성 방식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며 화자의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03. 설의적 표현을 통해 자유를 위해 행동하지 못하는 화자 자신에 대한 반성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4. 특정한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부정적 현실에 대응하지 못하는 화자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05. 자유와 정의를 위해 행동하지 못하는 화자 자신과 부정적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06. 자조적 어조를 통해 부정적 현실에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7. 특정한 보조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며 부정적 상황을 총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08. 도치법을 활용하여 부정적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강조하고 있다.
09. 동일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며 화자 자신에 대한 자조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0. '활자'를 '벗', '그대'로 의인화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드러내며, 화자가 지식인임을 보여 주고 있다.
11. '활자는 ~ 자유를 말하는데'와 '그대의 정의'는 활자로만 존재하는 '자유'와 '정의를 의미하므로, 현실에서는 '자유'와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또한 '활자'에만 존재하는 '자유'와 '정의'를 통해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12. '자유'와 '정의'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치를 의미하며,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 자유를 말하는데'를 통해 자유의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3. 화자는 '자유'와 '정의'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 자신을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표현함으로써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자신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14. '고개 숙이고 듣는 것',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우리들의 섬세' 등은 '자유'와 '정의'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5. '황혼', '돌벽 아래 잡초',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 '고요함'은 '마음에 들지 않아라'와 연결되어, 거짓된 고요와 평화에 불과한 것들, 부정적 현실에 침묵하는 태도와 같은 부정적 의미를 지닌다.
16. '마음에 들지 않아라'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불만과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17. '우스워라'에는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인식함으로써 불의에 맞서지 못하는 화자 자신의 무기력함에 대한 자조적인 태도가 집약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왜 아침 출근길에
구두에 질펀하게 오줌을 싸 놓은
강아지도 한 마리 용서하지 못하는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구두를 신는 순간
새로 갈아 신은 양말에 축축하게
강아지의 오줌이 스며들 때
나는 왜 강아지를 향해
이 개새끼라고 소리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고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멱살잡이까지 했던 내가
왜 강아지를 향해 구두를 내던지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는데
나는 한 마리 강아지의 마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진실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윤동주 시인은 늘 내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밥만 많이 먹고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 있을까
강아지는 이미 의자 밑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다
오늘도 강아지가 먼저 나를 용서할까 봐 두려워라
- 정호승,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기본 실력 다지기>

※ 이 작품의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219. 시적 대상을 관찰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220. 유사한 종결 표현을 반복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21. 평범한 화자의 일상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222.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223. 화자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이 서로 대비되고 있다.

224. 상징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225.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226. 특정한 사건이 화자 자신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고 있다.

※ 이 작품의 시어 및 시구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어 및 시구를 찾아 기호를 쓰시오.

ⓐ 아침 출근길
ⓑ 윤동주 시집
ⓒ 강아지의 오줌
ⓓ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 밥

227. 세속적인 욕구:

228. 평범한 일상:

229. 사소한 실수:

230.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담긴 것:

231. 화자가 깨달은 내용:

232. 이 작품의 상징적 시구이다. 서로 관련 있는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시오.

윤동주 시집	㉠	ⓐ	삶의 진리를 찾아다니는 사람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	㉡	ⓑ	자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	ⓒ	용서와 이해가 필요한 일
인생의 순례자	㉣	ⓓ	생명에 대한 평등과 존중

<내신 수능 대비 문제>

233. **다음은 윗글에 대한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작품은 화자가 평범한 일상인 아침 출근길에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출근을 하기 위해 구두를 신는 순간 강아지가 싼 (　)이 양말에 스며들자 화자는 욕을 하고 구두를 던지는 등 (　)를 표출한다. 그의 가방에는 (　)의 시집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서 화자는 (　)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지만 정작 강아지에게는 그러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옹졸함에 대해 (　)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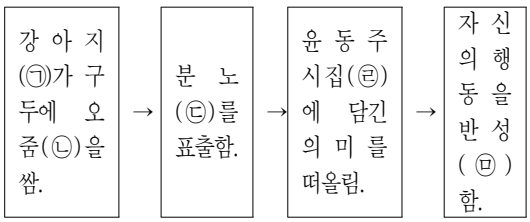
[어휘풀이]
1) 표출(表出)하다: 겉으로 나타낸다.

234.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암시하고 있다.
②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③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⑤ 청자를 설정하여 대화하는 형식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추구하고 있다.

235. **<보기>는 윗글의 주요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① 화자는 ㉠이 ㉡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을 미리 알지 못했으며, 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
② ㉠이 ㉡의 잘못을 함으로써, 화자는 삶에 대한 깨달음의 계기를 얻게 된다.
③ ㉢은 ㉠에 대한 감정의 표현으로,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일관된 화자의 태도를 보여 준다.
④ ㉣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상징적인 소재로, 작품의 주제를 담고 있다.
⑤ ㉤은 ㉣을 통해 화자가 배우게 된 것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태도와 관련된다.

236. **윗글에 사용된 시어의 의미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오줌'	'윤동주 시집'
①	사소한 실수	옹졸함
②	일상적 경험	타자에 대한 질책
③	예견된 사고	부끄러움
④	사건의 시작	미안함
⑤	분노의 원인	반성과 성찰

237.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작품을 접했을 때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오십 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후략)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①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 태도는 윗글의 화자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
② '기름 덩어리'는 화자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므로 윗글의 '오줌'과 유사하군.
③ '옹졸하게 욕을 하고'는 윗글의 화자의 행동을 두고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해.
④ '분개하는가'라는 의문형의 표현은 윗글의 '못하는가'와 비슷한 의도로 풀이되는군.
⑤ '욕'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돼지 같은 주인 년'은 윗글의 '사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군.

238.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삶을 상징하는 2어절의 시구를 찾아 쓰시오.

239.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윗글의 주제 의식을 3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조건

- '윤동주 시집'에 담겨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할 것.
- 작품의 중심 사건을 포함하여 쓸 것.

<작품 완전 분석>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01. 화자가 겪은 일상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02. 화자의 일상적 삶에서 얻은 교훈과 반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독자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용서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각성을 하게 한다.
03. 화자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통해 독자에게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04. 의문형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질책을 드러내고 있다.
05. 과거와 현재의 화자의 모습을 대비시켜 표현하고 있다.
06. 화자는 아침 출근길에 자신의 구두에 강아지가 오줌을 싸 놓은 것에 분개하여 강아지를 향해 분노를 표출한다.
07. 화자는 과거에 개나 사람이나 풀잎이나 생명의 무게는 다 똑같은 것이라는 평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산에 개를 데려왔다고 시비를 거는 사내와 싸움을 벌였었다.
08. 과거에 화자는 생명을 존중하면서 여러 생명들에 대해 평등한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09. 화자의 가방에 들어 있는 '윤동주 시집'을 통해 화자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10. 화자는 구두에 오줌을 싼 강아지도 용서하지 못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인생의 순례자가 될 수는 없다고 반성하고 있다.
11. 화자는 자신의 옹졸한 행동에 대해 깊이 인식하며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
12. '윤동주 시집'은 화자를 반성과 성찰로 이끄는 상징적인 소재이자, 주제를 전달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13. 화자가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는 것은 윤동주 시인의 삶의 모습과 가르침 속에서 인생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一生)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원(永遠)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畏敬)**[1]**을**
알리라

아침저녁
네 머리 위 쇠 항아릴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久遠)[2]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憐憫)**[3]**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모리며.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어휘 풀이]
1) 외경(畏敬):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2) 구원(久遠): ① 아득하게 멀고 오래됨. ② 영원하고 무궁함. 여기서는 ②의 뜻으로 쓰이고 있음. 3) 연민(憐憫): 불쌍하고 가련히 여김.

<기본 실력 다지기>

※ 이 작품의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240. 수미상관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241. 대립적이고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42. 대화체를 사용함으로써 시적 상황을 현장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243. 명령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244.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하여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245. 각 연을 다양한 문장 종결 방식을 사용하여 끝맺음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46. 설의적 표현을 통해 부정적 현실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247. 반복적 표현과 영탄적 표현을 통해 민중의 시련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 이 작품의 시구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구를 찾아 기호를 쓰시오.

㉠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

248. 영탄과 시어의 반복을 통해 시련의 삶을 강조함.

249. 점층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을 강조하여 드러냄.

250. 설의적 표현을 통해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는 정서를 강조함.

251. 명령형과 도치법을 사용하여 과거의 어리석었던 삶을 떨쳐 버릴 것을 촉구함.

252. 이 작품의 시어들이다.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시오.

하늘	㉠	•	ⓐ 민중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부정적 요소
먹구름, 쇠 항아리	㉡	•	ⓑ 불특정 다수의 민중
너	㉢	•	ⓒ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회
연민(憐憫)	㉣	•	ⓓ 서럽고 고단한 민중의 아픔

<내신 수능 대비 문제>

253. 다음은 윗글에 대한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작품은 먹구름이 끼고 쇠 항아리로 덮인 하늘 아래, 즉 구속과 억압 아래에서 살아가야 했던 1960년대 이 땅의 민중의 삶을 제재로 한 작품이다. '(　)'은 민중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의미하며, '(　)'과 '(　)'는 올바른 현실을 가로막아 인간 본연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을 의미한다. 4~6연에서는 이와 같은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후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마지막 연은 1연을 반복하는 (　)적 표현을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254.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부정적 현실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② 명령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③ 대화체를 사용함으로써 시적 상황을 현장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④ 다양한 문장 종결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동일한 시어 및 시행의 반복적 사용으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55.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윗글의 시어 및 시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이 시에 제시된 부정적인 현실 상황은 1960년대의 역사적, 사회적인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불의한 권력을 제거한 4·19 혁명 이후 뒤이어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군사 정권이 들어섬으로써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 시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부정적인 것을 닦고 찢어 버림으로써 참된 자유와 평화가 있는 민주주의 사회를 이룰 것을 촉구하고 있다.

① 하늘: 민중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민주주의가 실현된 세상을 의미한다.
② 먹구름, 쇠 항아리: 민중의 올바른 현실 인식을 방해하고 억압하는 대상, 즉 군사 정권을 의미한다.
③ 닦아라, 사람들아: 민중이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해야 하는 과제를 의미한다.
④ 네 마음속 구름: 민중이 닦아 내야 할 대상으로, 부정적 현실의 원인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음을 의미한다.
⑤ 티 없이 맑은 영원(永遠)의 하늘 / 볼 수 있는 사람: 자유와 평화가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56.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미래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맑은 하늘'이 있던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다.
③ '사람들'이 올바른 현실 인식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④ 관조적인 자세와 절제된 태도로 시적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⑤ 마지막 연에서 화자가 바라는 세상이 도래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257.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 김수영, <풀>

① 윗글과 <보기> 모두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
② 윗글과 <보기> 모두 대립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고 있다.
③ 윗글과 <보기> 모두 동일한 시행의 반복으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④ 윗글과 <보기> 모두 민중을 수동적 주체로 인식해 그들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⑤ 윗글과 <보기> 모두 인간 본연의 바람직한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

258. **윗글에서 ㉠과 ㉡을 위해 사람들이 수행해야 할 과제로 제시된 것 두 가지를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서술하시오.**

조건

- 윗글에 나오는 단어를 이용하여 20자 이내로 쓸 것.
- '~고~야 한다.'와 같이 이어진문장으로 쓸 것.

<작품 완전 분석>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01. 이 작품은 대립적인 1960년대 참여시로, 주제는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비판과 자유롭고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갈망'이다.
02. 대립적이고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03. 명령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04. 반복적 표현과 영탄적 표현을 통해 민중의 시련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05. 설의적 표현을 통해 부정적 현실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06. 다양한 문장 종결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7. 점층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다.
08. 정상적인 언어 배열 순서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강한 인상을 주는 표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09. 수미상관의 구조를 통해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10. '하늘'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인간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
11. '(먹)구름'과 '쇠 항아리'는 '하늘'과 대립되는 부정적인 존재로, 암담한 현실 상황을 상징한다.
12. '구름, 먹구름, 쇠항아리'는 모두 '사람들'을 억압하고 구속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13. '닦아라, 찢어라'는 화자가 '사람들'에게 촉구하는 민족사적 과제로 볼 수 있다.
14. 8연에서는 민중이 시련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현실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5. 이 작품을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보면, '구름, 먹구름, 쇠 항아리'는 1960년대 정치적 격변 속에서 민중들의 자유로운 삶을 억압하고 구속하던 군사 정권을 의미한다.

홀린 사람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가 외쳤다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시다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사회자는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
이분은 자신을 위해 푸성귀[1] 하나 심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다
사회자는 흐느꼈다
보라, 이분은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2]
군중[3]**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4]
그때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인가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유령**인가, 목소리가 물었다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사회자가 소리쳤다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 기형도, <홀린 사람>

[어휘 풀이]
1) 푸성귀: 사람이 가꾼 채소나 저절로 난 나물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제지(制止)하다: 말려서 못 하게 하다. 3) 군중(群衆): 한곳에 모인 많은 사람 4) 실신(失神)하다: 병이나 충격 따위로 정신을 잃다.

<기본 실력 다지기>

※ 이 작품의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259. 대상에 대한 아부와 찬양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260. 극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261. 의문형을 통해 대상의 실체에 대한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262.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부정적인 사회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다.

263.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대상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264. 대상을 의인화하여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65. 해학적 기법을 통해 무거운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다.

266. 표면화된 화자가 부정적인 인물들의 행위를 폭로하고 있다.

※ 이 작품의 시구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구를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 그때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인가
㉣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267. 비판적 사고를 지닌 사람이 존재함을 보여 줌.:

268. 우매하고 비이성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줌.:

269.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려는 인물의 위선을 나타냄.:

270. 민중들의 우매한 행동이 대상의 실체를 가려 버린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여줌.:

271. 이 작품의 상징적 시어 및 시구이다. 서로 관련 있는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시오.

사회자	㉠	ⓐ	이타적인 삶을 살아옴.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	㉡	ⓑ	'그분'에게 홀린 우매한 민중들
푸성귀	㉢	ⓒ	권력에 아부하는 선동가
목소리	㉣	ⓓ	무욕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	ⓔ	권력의 실체를 의심하는 사람
사내들, 분노한 여인들	㉥	ⓕ	비판적 사고가 허용되지 않음.

<내신 수능 대비 문제>

272. 다음은 윗글에 대한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　)인 방식을 통해 (　)의 기만[1]적인 통치 방식과 이에 현혹되어[2] 살아가는 우매한 민중들을 풍자하며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그분'은 그럴듯한 명분과 교묘한 통치술로 민중들의 복종을 이끌어 내는 최고 권력자로, '그분'을 지지하는 선동가인 사회자에 의해 그 실체가 왜곡되며 미화되고 있다. 군중들은 이러한 사회자의 선동에 현혹되어 이성을 상실한 채 '그분'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분'의 실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누군가'의 '목소리'는 사회자와 군중들에 의해 미치광이로 몰려 배제되고 만다. 이는 (　)이고 이성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결국 작가가 우의[3]적인 방식으로 그려 낸 이 작품은 과거 독재 시절을 풍자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을 비판한다고도 볼 수 있다.

[어휘 풀이]
1) 기만(欺瞞): 남을 속여 넘김. 2) 현혹(眩惑)되다: 정신을 빼앗겨 하여야 할 바를 잊어버리다. 3) 우의(寓意):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함. 또는 그런 의미.

273.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우화적인 방식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②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인물들의 상징성을 통해 부정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④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실체를 폭로하고 있다.
⑤ 의문형 어조를 통해 대상의 실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74. <보기>는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학생들이 윗글을 감상한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선생님: 우화적 방식이란, 대상을 의인화하거나 인물과 배경이 등장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설정하여 그 속에서 풍자와 교훈을 우의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가상의 인물들은 부정적이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모순되고 부정적인 사회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 드러난 우화적 방식의 특징을 확인해 봅시다.

학생1: 사회자가 군중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을 통해, 권력에 아부하는 선동가와 이에 현혹되는 민중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

학생2: '누군가'가 '그분'에게 '당신은 신인가'라고 묻는 것을 통해, 권력의 실체에 대한 의심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

학생3: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와 같이 인물의 말을 직접 인용[1]하여, 건전한 비판이 배제되는 현실을 보여 주고 있어요. ⓒ

학생4: '그분'이 성난 사회자를 제지하는 행동을 통해, 권력자에 의해 계층 간의 갈등이 완화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

학생5: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그분'의 답변이 들리지 않는 상황을 통해, 민중들의 우매함으로 인해 권력의 실체가 가려진 현실을 폭로하고 있어요. ⓔ

[어휘 풀이]
1) 직접 인용(直接引用): 원문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인용.

① ⓐ
② ⓑ
③ ⓒ
④ ⓓ
⑤ ⓔ

275.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채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삶에서 얻은 깨달음을 고백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③ 대상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인물들의 관계 변화를 통해 부정적 현실을 제시하고 있다.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276. 사회자와 군중들의 입장에서 '그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정의로운 사람이다.
②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은 이타적인 사람이다.
③ '당신들(군중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는 헌신적인 사람이다.
④ '누군가'를 '끌어내'려는 사회자를 제지할 만큼 관용적인 사람이다.
⑤ '누군가'의 물음에 진솔하게 답하는 솔직한 사람이다.

277. 다음은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의 상징성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사회자	'그분'을 지지하며 권력에 아부하는 ( )
'그분'	그럴듯한 명분과 교묘한 통치술로 민중들의 복종을 이끌어 내는 위선적인 ( )
군중들	선동에 현혹되어 이성을 상실한 채 '그분'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우매한 ( )
'누군가'	권력의 실체에 의심을 가지며 비판적 사고를 지닌 ( )

278.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윗글의 특징을 2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조건

- '우화적인 방식을 통해 ~하고 있다.'와 같은 문장 형식으로 서술할 것.
- 형식상의 특징과 함께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

<작품 완전 분석>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01.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우화적 기법이 사용되었다.
02. 화자는 작품에 등장하지 않으며, 다만 극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03. 인물의 말을 직접 인용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04. 작품이 쓰인 배경인 1980년대를 고려하면 '그분'은 독재자, 사회자는 언론사, '누군가'는 비판적 지식인으로 볼 수 있다.
05. 단어의 두 가지 뜻을 바탕으로 제목의 의미를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06. '그분'에 대한 '사회자'의 아부와 찬양은 '외쳤다', '맹세했다', '흐느꼈다'로 점차 고조되고 있다.
07. '사회자'는 권력에 아부하는 선동가를 상징하는데, 그가 '그분'을 소개하는 말들은 '그분'을 찬양하는 말들뿐이다.
08. '사회자'가 '그분'에 대해 찬양하는 내용을 군중들은 맹목적으로 믿는데, '그분'이 실제로 어떤지는 나타나지 않으며, '그분'은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에만 신경 쓴다.
09. '그분'은 위선적인 권력자를 상징하는데, 사회자를 두 번 제지하는 모습에서 이런 특징이 잘 드러난다.
10. 군중들은 사회자의 말을 듣고 맹목적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들로, 우매한 민중들을 상징한다.
11.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는 두 번 반복되는데, 이를 통해 이성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민중들의 모습을 강조한다.
12. '누군가(목소리)'는 권력의 실체를 의심하는 이성적인 사고를 지닌 사람을 상징한다.
13. '누군가'는 질문을 통해 '그분'의 실체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14. '그분', '사회자', '군중들'은 부정적인 인물, '누군가(목소리)'는 긍정적인 인물로, 이들은 서로 대조된다.
15. 마지막 부분에서 '그분'의 답변이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게 되는 상황은 민중들의 우매한 행동으로 인해 권력의 실체가 가려지게 된 것을 보여 준다.

종소리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는 떠난다. 청동(靑銅)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1]의 새가 되어
광막한[2]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인종(忍從)[3]은 끝이 나는가.
청동의 벽에
'역사'를 가두어 놓은 칠흑의 감방에서.

나는 바람에 실리어
들에서는 푸름이 된다.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천상[4]에서는 악기가 된다.

먹구름이 깔리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雷聲)[5]이 되어
가루 가루 가루의 음향(音響)[6]이 된다.
- 박남수, <종소리>

[어휘 풀이]
1) 진폭(振幅): 진동의 중심에서 진동의 끝까지의 거리. 2) 광막(廣漠)하다: 아득하게 넓다. 3) 인종(忍從): 묵묵히 참고 따름. 4) 천상(天上): 하늘 위. 5) 뇌성(雷聲): 천둥 치는 소리. 6) 음향(音響): 물체에서 나는 소리와 그 울림.

<기본 실력 다지기>

※ 이 작품의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279.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280. 특정 종결 어미를 통해 미래 지향적인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281.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대상이 지닌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282.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83. 말의 순서를 바꾸어 표현함으로서 강한 인상을 전달하고 있다.

284.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그 대상이 마치 의지를 가진 존재인 것처럼 형상화하고 있다.

285. 대립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286. 시적 대상이 특정 인물에게 하는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287. 시적 대상을 다양한 이미지로 변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88.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가 가진 문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다음은 '종소리'와 연관이 있는 시어의 의미이다. <보기>에서 해당하는 시어들을 모두 찾아 쓰시오.

보기

• 청동(靑銅)의 표면 • 진폭의 새 • 울음 • 소리 • 청동의 벽 • 칠흑의 감방 • 푸름 • 웃음 • 악기 • 뇌성(雷聲) • 음향(音響)

289. 자유를 향한 비상과 변신:

290. 자유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

291. 다음은 이 작품에 사용된 표현이다. 서로 관련 있는 것을 모두 찾아 선으로 연결하시오.

도치법	㉠	•	ⓐ	나는 떠난다. 청동(靑銅)의 표면에서
의인법	㉡	•	ⓑ	나는 바람에 실리어 들에서는 푸름이 된다.
반복법	㉢	•	ⓒ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천상에서는 악기가 된다.
대구법	㉣	•	ⓓ	가루 가루 가루의 음향(音響)이 된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292. 다음은 윗글에 대한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작품은 (　)를 의인화하여 자유를 향한 움직임을 역동적이고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종소리가 청동[1]의 표면(벽)에 갇혀 있는 동안은, 다시 말해 종이 울리지 않는 동안은 (　)의 감방에 갇힌 것과 같이 억압받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종소리가 종을 떠나 퍼져 나가면서 특히 (　)을 타고 날아가면서 '푸름'이 되고 '웃음'이 되며 '악기'가 되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 또한 자유를 방해하는 먹구름이 깔릴 때면 종소리는 '(　)'이 되어 억압을 헤쳐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다.

[어휘 풀이]
1) 청동(靑銅): 구리와 주석의 합금. 용도에 따라 알루미늄, 납 따위를 첨가한 구리 합금을 포함하여 이르는 말로 쓰기도 한다. 구리나 그 밖의 비철금속에 비하여 주조성과 내식성이 뛰어나다.

293.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자가 외부 세계의 경물을 관찰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②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관념적인 내용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수미상관의 구성을 활용하여 구조적인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④ 역동적인 심상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⑤ 대립되는 시어를 대칭적으로 배치하여 화해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294. <보기>는 윗글의 시어들의 의미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청동의 벽, 칠흑의 감방	⇨	자유에 대한 (ⓐ)
↕		
㉡ 푸름, 웃음, 악기	⇨	자유의 (ⓑ)

① ㉠의 '청동의 벽'은 청동으로 이루어진 종의 표면을 의미한다.
② ㉠의 '칠흑의 감방'은 종소리가 종을 떠나기 전의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낸다.
③ ㉡은 종소리가 긍정적으로 변신한 모습이다.
④ ⓐ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말은 '억압'으로, 종소리가 저항하고자 하는 대상이다.
⑤ ⓑ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말은 '확산'으로,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295. 화자인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부정적인 현실에 좌절하는 존재이다.
②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의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③ 내면세계의 소망과 즐거움을 외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④ 뚜렷한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⑤ 과거 자신이 있던 장소를 그리워하여 돌아가고자 한다.

296. <보기>를 윗글의 2연처럼 바꾸었다고 할 때 그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청동의 벽.
'역사'를 가두어 놓은
칠흑의 감방에서
인종(忍從)은 끝이 나는가.

① 행을 짧은 것에서 긴 것으로 배치하여 구조적인 아름다움을 갖춰야겠어.
② 문장의 일반적인 배열 순서에 변화를 주어 시의 주제 의식을 강조해야겠어.
③ 앞의 연과 어조를 달리하여 작품을 감상할 때 색다른 느낌을 전달해야겠어.
④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해석을 쉽게 해야겠어.
⑤ 평범한 진술을 의문형으로 바꾸어 독자들이 시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야겠어.

297. '자유'를 중심으로 할 때 윗글의 4연에서 서로 대립적인 의미를 지니는 시어 두 가지를 찾아 쓰시오.

298.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윗글의 표현상 특징을 100자 이내로 서술하시오.

조건

- 작품 전체에 드러나는 화자의 중심 생각을 바탕으로 할 것.
- 마지막 행에 담긴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

<작품 완전 분석>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01. '종소리'를 제재로 하여 종으로부터 종소리가 뻗어 나가는 상황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2. '나는 떠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종으로부터 자유롭게 떠나는 것은 종소리이며, 이러한 종소리의 의인화를 통해 보다 강렬한 의지를 전달한다.
03. 종소리가 자유롭게 뻗어 나가면서 다양하게 변신하는 모습이 드러나며, 이러한 역동적인 표현들은 작품의 주제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04. 종소리의 모습을 빗대어 나타낸 비유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었으며, 종소리가 자유를 갈망하는 이미지를 다양한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05. 마지막 행의 '가루 가루 가루의 음향(音響)이 된다.'는 종소리라는 청각적인 심상이 눈에 보이는 가루라는 시각적 심상으로 전이되는 공감각적인 표현이다.
06. '청동(靑銅)의 표면'은 종의 몸체로, 종소리가 뻗어 나가기 전 구속되어 있는 억압적인 현실을 의미한다.
07. '진폭의 새'는 종소리가 뻗어 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며, 소리가 일정한 진동의 폭을 가지고 퍼져 나가는 이미지를 그려 내고 있다.
08. '광막하다'는 아득하게 넓다는 의미로, '광막한 울음'은 종소리가 종으로부터 출발해 넓고 멀리 퍼져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09. '인종(忍從)'은 억압받는 삶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끝났다는 것은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찾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10. '칠흑의 감방'의 '청동의 벽'에 '역사'를 가두어 놓았다는 것은, 종의 몸체라는 자유의 구속으로부터 종소리가 자유를 찾겠다는 표현이다.
11. 종소리가 자유로운 '바람'을 타고 푸름이 되고 웃음이 되며 악기가 된다는 것은 자유의 확산을 의미하며, 이때 '바람'은 종소리가 자유롭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12. '먹구름'은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종소리가 뻗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을 의미한다.
13. '뇌성(雷聲)'은 '먹구름'을 뚫고 뻗어 나가는 것으로, 억압에 저항하는 자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14. 자유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종소리'를 통해 표현함으로써, 자유를 향한 비상과 신념을 노래하고 있다.
15. 모더니즘의 성격을 지닌 작품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정신적인 세계(자유)를 감각적인 시어들을 통해 잘 표현하고 있다.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다음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윤기 잘잘 흐르는 까망 얼룩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사뿐사뿐 뛸 때면 커다란 까치 같고
공처럼 둥글릴 줄도 아는
작은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나는 툇마루에서 졸지 않으리라.
사기그릇의 우유도 핥지 않으리라.
가시덤풀 속을 누벼 누벼
너른 벌판으로 나가리라.
거기서 **들쥐**와 뛰어놀리라.
배가 고프면 살금살금
참새 떼를 덮치리라.
그들은 놀라 후닥닥 달아나겠지.
아하하하
폴짝폴짝 뒤따르리라.
꼬마 참새는 잡지 않으리라.
할딱거리는 고놈을 앞발로 툭 건드려
놀래 주기만 하리라.
그리고 곧장 내달아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

이윽고 해는 기울어
바람은 스산해지겠지.
들쥐도 참새도 가 버리고
어두운 벌판에 홀로 남겠지.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어둠을 핥으며 낟가리를 찾으리라.
그 속은 아늑하고 짚단 냄새 훈훈하겠지.
훌쩍 뛰어올라 깊이 웅크리리라.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은은히 빛나겠지.
혹은 **거센 바람**과 함께 **천비**가
빈 벌판을 쏘다닐지도 모르지.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시지 않을걸**.
나는 꿈을 꾸리라.
놓친 참새를 쫓아
밝은 들판을 내닫는 꿈을.
- 황인숙,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기본 실력 다지기>

※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299. 화자의 소망을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00. 화자는 고양이로 태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301. 대화체를 사용하여 화자가 소망하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302. '-리라', '-겠지' 등과 같은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303.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장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304.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305. 고양이로 태어난 후 벌판에 나가 살며 하고 싶은 일과 살게 될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있다.

306. 화자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보다는, 시련이 있더라도 야생에서 자유롭게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307.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문장의 끝에 배치하여 그 내용에 대한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308. **미완성으로 문장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만들며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 이 작품의 시어 및 시구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구를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 윤기 잘잘 흐르는 까망 얼룩 고양이로
㉡ 아하하하 / 폴짝폴짝 뒤따르리라.
㉢ 바람은 스산해지겠지.
㉣ 나는 꿈을 꾸리라. / 놓친 참새를 쫓아 / 밝은 들판을 내닫는 꿈을.

---

309. **도치법:**

310. **음성 상징어:**

311. **촉각적 이미지:**

312. **미완성 종결 표현:**

313. **이 작품의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시오.**

이다음	㉠	•	•	ⓐ 자유의 공간
공처럼 둥굴릴 줄도 아는	㉡	•	•	ⓑ 유연함을 지닌 존재
너른 들판	㉢	•	•	ⓒ 먹이로 삼으려는 대상
들쥐	㉣	•	•	ⓓ 불교의 윤회 사상과 관련됨
큰 참새	㉤	•	•	ⓔ 편안한 잠자리를 방해하는 대상
달빛	㉥	•	•	ⓕ 자유로운 공간에서의 교유의 대상
거센 바람, 찬비	㉦	•	•	ⓖ 야생적인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주는 존재
난 털끝 하나 적시지 않을걸	㉧	•	•	ⓗ 힘든 상황에서도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다짐

<내신 수능 대비 문제>

314. 다음은 윗글에 대한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화자는 (　)로 태어난다는 참신한 표현을 통해 자신이 꿈꾸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이다음의 생애를 설정하여 고양이로 태어나 자유의 공간인 (　)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　)와 놀고 참새를 쫓으며 사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소망은 강력한 것이어서 어두운 밤이 되어서도 포기할 수 없기에, 화자는 들쥐도 참새도 없는 어두운 벌판에서도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는 인간 세상으로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소망의 강렬함은 동일한 (　)을 반복하거나 '-리라'라는 (　)을 사용함으로써 더욱 부각되고[1] 있다.

[어휘 풀이]
1) 부각(浮刻)되다: 어떤 사물이 특징지어져 두드러지게 되다.

315.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② 특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③ 미완성으로 문장을 종결하여 독자들에게 여운을 남기고 있다.
④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이루고 싶은 강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이나 행동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316. 윗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현실의 삶에 대해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② 극복해야 할 사회적 문제의 해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③ 자유를 속박하는 인간 세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안락하고 편안한 삶보다는 야생에서 자유롭게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⑤ 야생의 삶 속에서 맞닥뜨린 시련에도 굴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317. 삶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거리가 <u>먼</u> 것은?

① 편안하고 안락한 삶 거부
② 자연 속에서의 야생적인 삶 추구
③ 원대한 꿈과 포부를 지닌 삶 지향
④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고한 삶 지향
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삶 추구

318. <보기>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시구로 알맞은 것은?

보기

화자는 불교의 윤회 사상에 따라 다음 생애에는 고양이로 태어나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소망이 그만큼 강렬함을 표현하고 있다.

[어휘 풀이]
1) 윤회사상(輪廻思想): 생명이 있는 것, 즉 중생은 죽어도 다시 태어나 생이 반복된다고 하는 불교 사상.

① 이다음에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② 나는 툇마루에서 졸지 않으리라.
③ 가시덤불 속을 누벼 누벼
　너른 벌판으로 나가리라.
④ 할딱거리는 고놈을 앞발로 툭 건드려
　놀래 주기만 하리라.
⑤ 나는 돌아가지 않으리라.
　어둠을 핥으며 낟가리를 찾으리라.

319.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꽃가루와 같이 부드러운 고양이의 털에
고운 봄의 향기가 어리우도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그란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고요히 다물은 고양이의 입술에
포근한 봄 졸음이 떠돌아라,

날카롭게 쭉 뻗은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 이장희, <봄은 고양이로다>

① 윗글과 <보기>의 화자 모두 고양이가 되고 싶어 하는군.
② 윗글은 <보기>와 달리 계절적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 없군.
③ 윗글의 고양이는 <보기>의 고양이에 비해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는군.
④ 윗글과 <보기>의 화자 모두 고양이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군.
⑤ 윗글보다 <보기>에서 고양이의 외양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군.

320. **<보기>는 윗글의 표현상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보기

이 작품에서는 '-리라', '(　)' 등과 같은 특정한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　)을 형성하고 있다.

321.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윗글의 화자가 원하는 삶을 30자 내외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조건

- '화자는 ~하고 있다.'라는 문장 형태로 쓸 것.
- '고양이, 벌판, 자유로운 삶' 등과 같은 단어를 사용할 것.

<작품 완전 분석>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01. 화자의 소망을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02. 화자는 고양이로 태어나 자유로운 야생의 삶을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03. 화자는 다음 생이 있다고 믿는 불교의 윤회 사상에 따라 고양이로 태어나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
04. 화자는 안락하고 편안한 삶보다는, 시련이 있더라도 야생에서 자유롭게 사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
05. 화자는 고양이로 태어난 후 벌판에 나가 살며 하고 싶은 일과 살게 될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있다.
06. 동일한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의미를 강조하며 음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07. 특정한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8.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장면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09.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10.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문장의 끝에 배치하여 그 내용에 대한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11. '툇마루'와 '사기그릇의 우유'는 인간의 보살핌을 받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의미한다.
12.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는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벌판)이다. 이와 대비되는 인간 세계는 속박만이 존재하는 부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13. '가시덤풀'은 고양이가 자유로운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시련의 공간이다.
14. '참새'는 고양이로 태어난 화자가 추구하는 꿈, 이상, 목표 등을 의미한다.
15. '거센 바람', '찬비'는 편안한 잠자리를 방해하는 대상들이다.
16. 미완성으로 문장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으며,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풍장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세상 뜨면 풍장[1]시켜다오
섭섭하지 않게
옷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 놓고
아주 춥지는 않게
가죽 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群山)에 가서
검색[2]이 심하면
곰소[3]쯤에 가서
통통배에 옮겨 실어다오

가방 속에서 다리 오그리고
그러나 편안히 누워 있다가
선유도 지나 무인도 지나 통통 소리 지나
배가 육지에 허리 대는 기척에
잠시 정신을 잃고
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우고
무인도의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구두와 양말도 벗기우고
손목시계 부서질 때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튕기는 씨들을
무연히[4] 안 보이듯 바라보며
살을 말리게 해다오
어금니에 박혀 녹스는 백금(白金) 조각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다오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화장(化粧)[5]도 해탈(解脫)도 없이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다오.
- 황동규, <풍장 1>

[어휘 풀이]
1) 풍장(風葬): ① 시체를 태우고 남은 뼈를 추려 가루로 만든 것을 바람에 날리는 장사. ② 시체를 한데 버려두어 비바람에 자연히 없어지게 하는 장사법. 2) 검색(檢索): 범죄나 사건을 밝히기 위한 단서나 증거를 찾기 위하여 살펴 조사함. 3) 곰소: 전북 무안에 위치한 포구. 4) 무연(憮然)히: 크게 낙심하여 허탈해하거나 멍하게. 5) 화장(化粧): 화장품을 바르거나 문질러 얼굴을 곱게 꾸밈.

<기본 실력 다지기>

※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322.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23. 죽음을 매개로 하여 유한한 인생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324. 화자가 죽으면 풍장시켜 달라는 내용의 유서 형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325. 상징적 시어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326.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327. 담담한 어조로 죽음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328. 민요적인 가락으로 애상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329. 구속과 자유의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330. 여정에 따른 공간적 이동을 통해 죽음의 의미를 모색하고 있다.

331. 시신을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죽음을 바라보는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 이 작품의 시어 및 시구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어 및 시구

를 찾아 기호를 쓰시오.

㉠ 검색이 심하면
㉡ 가방, 옷, 구두, 양말
㉢ 무인도의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
㉣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튕기는 씨들
㉤ 바람과 놀게 해 다오.

---

332. **공감각적 표현:**

333. **생명의 순환 과정:**

334. **억압과 간섭이 심했던 당대의 현실:**

335. **현실에서 화자를 구속하고 억압했던 존재:**

336. **자연으로의 회귀를 통한 완전한 자유에 대한 염원:**

337. **이 작품의 상징적 시어들이다.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시오.**

통통배	㉠	•	ⓐ	화자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공간
무인도	㉡	•	ⓑ	존재를 소멸시킴으로써 자연의 품으로 되돌려 보내는 대상
바람	㉢	•	ⓒ	부자연스럽고 억압된 삶으로부터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

<내신 수능 대비 문제>

338. 다음은 윗글에 대한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작품은 장례 풍습을 일종인 (　)을 제재로 하여 화자가 바라는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시신을 비바람 속에서 저절로 썩어 없어지게 하는 (　)처럼, 화자는 현실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　)으로의 완전한 회귀를 소망하고 있다. 즉, 화자는 풍장을 통해 억압적 현실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　)에로의 귀환[1]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어휘 풀이]
1) 귀환(歸還): 다른 곳으로 떠나 있던 사람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339.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여 죽음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다.
③ 대조적 이미지를 제시하여 화자의 바람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감정 이입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⑤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당부를 간곡하게 표현하고 있다.

340.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죽음을 있는 그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② 가장 알맞은 때에 죽는 것을 큰 행복으로 여기고 있다.
③ 죽어서 영혼이 이리저리 떠도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④ 죽음을 모든 것을 무(無)로 되돌리는 허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⑤ 해탈과 같은 종교적 깨달음을 통해 죽음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3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황동규의 <풍장 1>은 진정한 자유로 복귀하려는 화자의 바람과 의지를 노래하고 있다. 현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습과 제도, 가치관으로 인해 자유를 잃고 구속과 억압 속에 살고 있다. 그와 같은 현실 속에 머무는 현대인들은 삶에 대한 권태[1]와 싫증에 사로잡히게 마련이다. <풍장 1>에서는 이러한 현실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고자 한다.

[어휘 풀이]
1) 권태(倦怠):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싫증.

① '군산(群山)'은 화자를 억압하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② '검색'은 '풍장'을 꺼리던 당시 현실의 억압적 제도와 관습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어.
③ '시간을 떨어트리고'를 통해 인위적 세계와 자연적 질서를 연결하고 있어.
④ '화장(化粧)도 해탈(解脫)도 없이'는 세속적이고 인위적인 가치관을 거부하는 화자의 태도와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⑤ '바람과 놀게 해 다오.'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은 화자의 염원을 느낄 수 있어.

342. 윗글을 읽은 학생들이 ㉠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현실적인 문제 상황 속에서 화자가 겪게 된 시련을 상징해.
② 화자에게 죽음의 공포를 환기하는 배경으로서 기능하고 있어.
③ 방랑 생활을 하며 살아온 화자의 지나온 삶의 모습을 함축하고 있어.
④ 화자가 꿈을 위해 현실 상황에서 타협해야 했던 존재들을 암시하고 있어.
⑤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존재야.

343. <보기>의 화자(A)와 윗글의 화자(B)가 서로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

① A: 삶과 죽음은 명확하고 분명한 경계로 나눌 수 없는 것이지요.
② B: 맞습니다. 삶과 죽음은 자연의 커다란 순환 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③ A: 그래서 저는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곳이 이승이라고 생각하여 삶이 '소풍'같다고 느꼈습니다.
④ B: 저도 세속적인 욕망은 가식이라 생각되어 제가 소유한 것들을 버림으로써 허무의 세계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⑤ A: 그렇군요. 저도 삶에 대한 집착과 세속적 욕망은 덧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344. **<보기>를 바탕으로 화자가 '풍장'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30자 내외의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단, '화자는 풍장을 통해 ~ 얻기를 소망한다.'의 형태로 쓸 것)**

보기

'풍장'은 삶과 죽음 사이에 절대적인 경계가 있다는 '매장'이나 내세[1] 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화장'과는 차이가 있다. '풍장'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순환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 작품에서 화자는 '풍장'에 의해 바람 속에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신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어휘 풀이]
1) 내세(來世): 삼세(三世)의 하나. 죽은 뒤에 다시 태어나 산다는 미래의 세상을 이른다.

<작품 완전 분석>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01. 화자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02.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 자신의 부탁을 간곡하게 전달하고 있다.
03. 여정에 따른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4.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05. 화자는 자신의 죽음을 가정함으로써 죽음에 대한 의미를 성찰하고 있다.
06. 화자는 자신의 장례를 풍장으로 치러 줄 것을 유서의 형식으로 당부하고 있다.
07. 명령형인 '~ 다오'를 반복하여 자유로운 삶을 바라는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08. 구체적 지명을 활용하여 사실감을 높이고 있다.
09. 현실적 억압과 구속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0. 시신을 살아 있는 것처럼 표현하여 삶과 죽음이 연속적인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11. 구체적 사물을 통해 일상적 삶의 구속을 표현하고 있다.
12. 세속적 욕망 및 현실적 억압과 자유의 이미지를 대비하여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는 화자의 염원을 부각하고 있다.
13.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선명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14. '바람'은 모든 존재를 소멸시켜서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5. 소멸의 이미지를 통해 죽음을 형상화함과 동시에 생명 순환의 원리를 암시하고 있다.
16. 화자는 자신의 죽음에 세속적 · 종교적인 의미 부여를 거부하고 있는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다.
17. 자연으로의 회귀를 통한 완전한 자유로의 귀환 의지와 갈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빠삐용 – 영화 사회학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침 티브이에 난데없는 **표범 한 마리**
물난리의 북새통[1]을 틈타 서울 대공원을 탈출했단다
수재에 수재(獸災)[2]가 겹쳤다고 했지만, 일순 마주친
우리 속 세 마리 표범의 우울한 눈빛이 서늘하게
내 가슴 깊이 박혀 버렸다 한순간 바람 같은 자유가
무엇이길래, 잡히고 또 잡혀도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삐용처럼
총알 빗발칠 폐허의 산속을 택했을까
평온한 동물원 우리 속 그냥 남은 세 명의 드가
그러나 난 그들을 욕하지 못한다
빠삐용, 난 여기서 감자나 심으며 살래
드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동물원 같은 공간이 아닐까
친근감 넘치는 검은 뿔테 안경의 드가를 생각하는데
저녁 티브이 뉴스 화면에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가 보였다
거봐, 결국 죽잖아!

티브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내가 드가?
– 유하, <빠삐용 – 영화 사회학>

[어휘 풀이]
1) 북새통: 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이는 상황. 2) 수재(獸災): 짐승으로 인한 재난.

<기본 실력 다지기>

※ 이 작품의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345. 시어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346.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347. 독백의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48. 영화 속 상황을 현실 상황에 접목시켜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349. 대상을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독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350. 역접 관계의 접속어를 기준으로 시적 어조가 변화하고 있다.

351. 비유를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352. 특정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353. 대상과 화자를 동일시하여 현실에 대한 화자의 자각을 드러내고 있다.

354. 의문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355. 의도적인 행간 걸침을 활용하여 시작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356. '영화 사회학'이라는 부제에서 보이듯 영화를 소재로 하여 현대인의 자화상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이 작품의 시어 및 시구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어 및 시구를 모두 찾아 쓰시오.

- 표범 한 마리
- 세 마리 표범
- 바람 같은 자유
- 빠삐용
- 폐허의 산속
- 평온한 동물원
- 드가
- 티브이

357. 긍정적 이미지:

358. 부정적 이미지:

359. 이 작품에 쓰인 상징적 시어들이다.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시오.

표범 한 마리, 빠삐용	㉠	•	ⓐ 자유를 택한 결과
세 마리 표범, 드가	㉡	•	ⓑ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
파도의 아가리	㉢	•	ⓒ 자유가 없지만 평온한 공간
동물원	㉣	•	ⓓ 자유보다 안전을 택하는 마음
드가 같은 마음	㉤	•	ⓔ 현대인의 사고를 지배하는 현실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	㉥	•	ⓕ 자유를 얻기 위해 견뎌야 할 시련
티브이 우리	㉦	•	ⓖ 억압에 길들여져 현실에 안주하는 존재

<내신 수능 대비 문제>

360. 다음은 윗글에 대한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작품은 동물원을 탈출한 (　)와 우리 속에 있는 (　)의 대비를 통해 자유를 추구하기보다 현실에 안주하는[1]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화자의 연상[2]을 통해, 탈출한 '표범 한 마리'는 자유를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끝없이 탈출을 시도하는 (　)에, 우리 속의 '세 마리 표범'은 탈출을 포기하고 감옥을 선택한 (　)와 연결된다. 화자는 자신을 '드가'에 비유함으로써 (　)라는 우리에 갇혀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자신과 현대인들의 모습을 (　) 태도로 성찰하고 있다.

[어휘 풀이]
1) 안주(安住)하다: ① 한곳에 자리를 잡고 편안히 살다. ② 현재의 상황이나 처지에 만족하다. 여기서는 ②의 뜻으로 쓰이고 있음. 2) 연상(聯想):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 '기차'로 '여행'을 떠올리는 따위의 현상이다.

361.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비유를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② 대립적인 시어를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③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④ 행간 걸침을 활용하여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⑤ 단정적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

362. 다음은 윗글의 시어이다. 화자를 중심으로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 표범 한 마리　㉡ 세 마리 표범　㉢ 자유
㉣ 빠삐용　㉤ 폐허의 산속　㉥ 동물원　㉦ 드가

① 화자는 ㉠의 행위가 ㉢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② 화자는 ㉠과 ㉣을, ㉡과 ㉦을 서로 연결하여 동일시하고 있다.
③ 화자는 ㉠에 관한 뉴스를 들으면서 ㉡의 모습에 더욱 연민을 느끼고 있다.
④ 화자는 ㉥에 갇히게 된다면 누구나 ㉦과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⑤ 화자는 ㉣이 추구한 ㉤이, ㉦이 선택한 ㉥보다 더욱 가치 있는 삶이라고 여기고 있다.

363. 윗글에서 '티브이'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화자가 외부와 상호 소통하는 매체로 기능한다.
② 화자에게 일상의 평안함을 일깨우는 수단이 된다.
③ 화자에게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④ 화자가 영화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⑤ 화자에게 일상의 구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게 한다.

36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이 작품은 표범이 대공원을 탈출한 실제 사건으로서의 뉴스, 영화 <빠삐용>, 뉴스를 보는 '나'라는 세 가지 내용이 연결되어 있다. 화자는 연상 작용을 통해 실제와 허구[1]를 연결시키고 그러한 시선이 화자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어휘 풀이]
1) 허구(虛構): 사실에 없는 일을 사실처럼 꾸며 만듦.

① 화자는 동물원 우리를 탈출한 '표범 한 마리'에 관한 뉴스를 보고 자유를 찾아 탈출한 '빠삐용'을 떠올리고 있다.
② 화자는 저녁 뉴스를 통해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를 보면서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삐용'의 비극적 결말에 실망하고 있다.
③ 저녁 뉴스를 보던 화자의 시선이 '티브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자신이 '드가'일지도 모른다는 내면으로 향함으로써 성찰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④ 화자는 동물원을 탈출한 표범에게 '자유'와 '탈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자유를 찾아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삐용'을 연상함으로써 실제와 허구를 연결하고 있다.
⑤ 티브이 속 뉴스를 보며 현실을 이해하는 사람이 화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나'와 같은 수많은 '드가'들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36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유하는 '영화 사회학'이라는 부제가 붙은 시편들을 통해 1980년대 폭력적인 군사 독재 정권과 그 시대의 삶을 비판하고 있다. 유하의 시에서 '영화'는 시를 구성하는 중요한 장치이자 시대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우의[1]적 기능을 한다.

[어휘 풀이]
1) 우의(寓意):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함, 또는 그런 의미.

①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는 자유를 억압하는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군.
② '그러나 난 그들을 욕하지 못한다'라는 화자의 말은 '총알 빗발칠 폐허의 산속'을 선택한 '표범 한 마리'의 삶에 공감할 수 없기 때문이군.
③ '빠삐용, 난 여기서 감자나 심으며 살래'라는 영화 속 인물인 '드가'의 말을 그대로 옮겨 놓음으로써 시에서 영화가 중요한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④ '거봐, 결국 죽잖아!'라는 화자의 말을 통해 군사 독재 정권의 억압과 구속에 길들여진 당대인들의 모습을 드러내는군.
⑤ '티브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 내가 드가?'처럼 영화의 인물을 화자와 동일시함으로써 티브이를 통해 현실을 통제하고자 한 독재 정권을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군.

366.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윗글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6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조건

- 화자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할 것.
- 하나의 완결된 문장으로 쓸 것.

<작품 완전 분석>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01. '표범 한 마리', '빠삐용'과 같이 '자유'의 의미를 지닌 시어와 '세 마리 표범', '드가', '나'와 같이 '순응과 안주'의 의미를 지닌 시어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02. 동물원을 탈출한 '표범 한 마리'는 '바람 같은 자유'를 얻기 위해 '파도의 아가리에 몸을 던진' '빠삐용'처럼 자유를 얻기 위해 과감한 용기를 지니고 행동하는 존재를 의미한다.
03. 동물원의 '우리 속 세 마리 표범'은 '빠삐용'과 달리 '감자나 심으며' 사는 삶을 선택한 '드가'처럼 구속과 억압의 현실에 순응하며 안일하게 살아가는 존재를 의미한다.
04. 의문형 표현을 통해 화자의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05. 동음을 활용한 언어유희를 통해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06. 동물원 우리 밖과 동물원 우리 안의 공간적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07.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08. 특정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9. 동물원에서 표범 한 마리가 탈출했다는 '아침 티브이'를 본 화자는 영화 <빠삐용>을 떠올리고 '저녁 티브이 뉴스'에서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를 본 후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10. 탈출한 표범보다 '우리 속 세 마리 표범'과 '드가'에게 연민과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 화자를 통해 화자 속에 있는 '드가 같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11. '파도의 아가리', '총알 빗발칠 폐허의 산속'은' 평온한 동물원'과 달리 '자유를 얻기 위한 시련 또는 위험한 공간'을 의미한다.
12. '드가 같은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든 / 동물원 같은 공간'이라고 인식함으로써 화자는 환경(상황)에 대응하는 주제의 의식과 태도가 중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13.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는 화자에게 자유를 추구하는 것의 위험함을 일깨우고, '거봐, 결국 죽잖아!'라는 반응을 통해 안일하고 순응적인 삶을 합리화하는 화자의 태도로 연결되고 있다.
14. '아침 티브이'와 '저녁 티브이 뉴스 화면'은 '티브이'를 통해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15. '티브이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티브이에 의해 사고가 지배당하는 현실을 드러낸다.
16. '티브이 우리 안에 갇혀 있는, / 내가 드가?'를 통해 화자의 성찰적 태도가 드러나는데, 그러한 성찰 과정에서 화자는 '나=드가'라는 불편한 진실에 도달함으로써 자조적 태도를 보인다.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비알[1]에 **돌밭**에 **저절로 나서**
저희들끼리 자라면서
재재발거리고[2] 떠들어 쌓고
밀고 당기고 간지럼질도 시키고
시새우고[3] **토라지고** 다투고
시든 잎 생기면 서로 떼어 주고
아픈 곳은 만져도 주고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끼리 자라서는
늙으면 동무나무 **썩은 가질**랑
슬쩍 잘라 주기도 하고
세월에 곪고 터진 상처는
긴 혀로 핥아 주기도 하다가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머리와 어깨와 다리에
가지와 줄기에
주렁주렁 달았다가는
별 많은 밤을 골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 온 고을에 뿌리는
우리 동네 **늙은 느티나무들**
- 신경림,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어휘 풀이]
1) 산비알: '산비탈'의 방언. 2) 재재발거리다: '조금 수다스럽게 자꾸 재잘거리다'의 뜻인 '재재거리다'의 방언. 3) 시새우다: 자기보다 잘되거나 나은 사람을 공연히 미워하며 싫어하다.

<기본 실력 다지기>

※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367. 자연물인 느티나무를 의인화하여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368. 화자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감싸 주고 배려하기도 하며 더불어 살아온 느티나무들을 예찬하고 있다.

369. 서로 의지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370. 열거를 활용하여 느티나무의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 주고 있다.

371.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72.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 간의 유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373. 특정한 종결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374.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375. 시상을 명사로 마무리함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있다.

376. 추상적 대상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377. 상징적 시어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이 작품의 시어와 시구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어와 시구를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 시든 잎
㉡ 서로 떼어 주고
㉢ 아픈 곳
㉣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 동무나무 썩은 가질랑
㉥ 슬쩍 잘라 주기
㉦ 세월에 곪고 터진 상처
㉧ 긴 혀로 핥아 주기

---

378. 아픔과 상처:

379. 위안과 치유:

380. 이 작품의 상징적 시어와 시구들이다.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시오.

산비알, 돌밭	㉠	ⓐ	아픔과 상처
시든 잎	㉡	ⓑ	척박한 삶의 터전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	㉢	ⓒ	공동체적 삶의 결정체
별 많은 밤	㉣	ⓓ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시간
늙은 느티나무들	㉤	ⓔ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지닌 존재들

<내신 수능 대비 문제>

381. 다음은 윗글에 대한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작품은 (　)라는 자연물을 통해 서로 위로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느티나무들은 '(　)'이나 '(　)'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 저희들끼리 함께 살아간다. 느티나무들은 때로 다투기도 하지만 서로의 상처를 위로하면서 성장하고, 늙으면 동무나무의 (　)를 슬쩍 잘라 주기도 하며 터진[1] (　)는 핥아 주기도 한다. 작가는 느티나무들을 (　)하여 공동체적 삶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온몸에 달고 사는 늙은 느티나무들의 모습을 그려 냄으로써, 느티나무로 상징되는 민중들의 삶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어휘 풀이]
1) 터지다: ① 둘러싸여 막혔던 것이 갈라져서 무너지다. 또는 둘러싸여 막혔던 것이 뚫어지거나 찢어지다. ② 거죽이나 겉이 벌어져 갈라지다. 여기서는 ②의 뜻으로 쓰이고 있음.

382.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② 시상을 명사로 마무리함으로써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다.
③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④ 특정한 연결 어미와 조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383. 다음은 윗글의 시상 전개 방식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출생 ㉠	→	성장 ㉡	→	노년 ㉢

① ㉠에서 느티나무들은 척박한 터전에서 태어났다.
② ㉡에서 느티나무들은 때로는 서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다.
③ ㉡에서 느티나무들은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 주며 살아가고 있다.
④ ㉢에서 느티나무들은 풍부한 삶의 이야기들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⑤ ㉢에서 느티나무들은 체념하면서 허무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다.

384. 윗글의 시어와 시구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저절로 나서'는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게 된 환경적 요건을 의미한다.
② '저희들끼리'는 다른 집단을 수용하지 않는 배타적인 모습을 의미한다.
③ '슬쩍'은 동무의 상처를 남모르게 보살피는 성숙한 모습을 의미한다.
④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삶의 과정에서 생겨난 경험과 지혜의 이야기들을 의미한다.
⑤ '주렁주렁 달았다가는'은 인생에서 지닌 이야기들이 풍부함을 의미한다.

38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이 작품에서 '느티나무들'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신의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민중[1]'을 상징한다. 작가는 민중들의 모습을 억압적인 현실에 고통받고 저항하는 집단으로 그려 내기보다는,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존재로 인식하며 그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어휘 풀이]
1) 민중(民衆): 국가나 사회를 구성하는 일반 국민. 피지배 계급으로서의 일반 대중을 일컬음.

① '산비알'과 '돌밭'은 가난한 민중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의미한다.
② '저희들끼리 자라면서'는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진 민중들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③ '재재발거리고', '밀고 당기고', '시새우고 토라지고', '끌어안기도 하고'는 민중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화한 것이다.
④ '세월에 곪고 터진 상처'는 억압적인 현실에 고통받는 민중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⑤ '늙은 느티나무들'이 지닌 사연을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라고 표현하여 민중들의 삶에 대한 작가의 따뜻한 시선을 보여 준다.

386. **윗글([A])과 <보기>([B])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중략)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 이성부, <벼>

① [A]의 '저희들끼리 자라면서'와 [B]의 '서로 어우러져 / 기대고 산다.'는 '느티나무들'과 '벼'가 보여 주는 유대감과 연대감을 의미하는군.
② [A]의 '시든 잎', '썩은 가지'와 [B]의 따가운 '햇살'은 '느티나무들'과 '벼'가 바라는 외부적 도움을 뜻하는군.
③ [A]는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통해, [B]는 '사랑', '그리움', '힘'을 통해 '느티나무들'과 '벼'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④ [A]와 [B] 모두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군.
⑤ [A]와 [B] 모두 '느티나무들'과 '벼'라는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군.

387. **[서술형]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윗글에 나타난 '느티나무들'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조건

• '갈등'을 중심으로 느티나무들의 성장기와 노년기의 모습을 비교할 것.

<작품 완전 분석>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01. 상징적 시어를 통해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0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03. 자연물인 '느티나무'를 의인화하여 공동체적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04. 열거를 활용하여 느티나무의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보여 주고 있다.
05. 특정한 연결 어미와 조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6.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 간의 유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07.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08. 시상을 명사로 마무리함으로써 여운을 남기고 있다.
09. 추상적 대상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10. '저희들끼리'와 '느티나무들'과 같이 접미사를 활용하여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11. '저희들끼리 자라면서'는 '산비알'과 '돌밭'에서 난 느티나무들 사이의 유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12. 느티나무들의 삶의 과정에서 성장기에는 '시새우고 토라지고 다투고' 갈등하는 모습이 드러나지만, 노년에는 동무나무의 '썩은 가지'를 남몰래 잘라 주는 속 깊은 배려와 '세월에 곪고 터진 상처'를 '긴 혀로 핥아 주기도' 하는 헌신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늙은 느티나무들'의 모습은 공동체적 삶을 통한 내적 성숙을 보여 준다.
13.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늙은 느티나무들'이 지나온 삶에서 온몸으로 겪은 풍부한 경험과 그로 인해 얻은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의미한다.
14. 화자는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 동네 늙은 느티나무들'의 삶을 긍정하고 예찬하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15. '별 많은 밤을 골라 그것들을 / 하나하나 떼어 온 고을에 뿌리는'은 늙은 느티나무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16. '우리 동네 늙은 느티나무들'은 출생부터 노년까지 '저희들끼리' 서로 함께 살아오면서 공동체적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 주는 대상이다.

들길에서 마을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거름, **들길**에 선다. ⓐ<u>기엄기엄 산 그림자 내려오고</u> **길섶의 망초꽃들 몰래 흔들린다**. 눈물방울 같은 점점들, 이제는 벼 끝으로 올라가 수정 방울로 맺힌다. 세상에 허투른 것은 하나 없다. 모두 새 몸으로 태어나니, ⓑ<u>**오늘도 쏙독새는 저녁 들을 흔들고**</u> 그 울음으로 **벼들은 쭉쭉쭉쭉 자란다**. 이때쯤 또랑물에 삽을 씻는 노인, 그 한 생애의 백발은 나의 꿈. 그가 문득 서천[1]으로 고개를 든다. 거기 붉새[2]가 북새질[3]을 치니 내일도 쨍쨍하겠다. ⓒ<u>**쨍쨍할수록 더욱 치열한 벼들**</u>, 이윽고는 또랑물 소리 크게 들려 더욱더 푸르러진다. 이쯤에서 대숲 둘러친 **마을** 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 아직도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 저 질긴 전통이, 저 오롯한[4] 기도가 거기 밤꽃보다 환하다. 그래도 밤꽃 사태 난 밤꽃 향기. 그 싱그러움에 이르러선 문득 들이 넓어진다. 그 넓어짐으로 난 아득히 안 보이는 지평선을 듣는다. 뿌듯하다. 이 뿌듯함은 또 어쩌려고 웬 쑥국새 울음까지 불러내니 아직도 참 모르겠다, 앞 강물조차 ⓓ<u>시리게 우는 서러움</u>이다. 하지만 이제 하루 여미며[5] 저 노인과 나누고 싶은 **탁배기**[6] **한 잔**. 그거야말로 금방 뜬 개밥바라기[7] 별보다도 고즈넉하겠다. 길은 어디서나 열리고 사람은 또 스스로 길이다. ⓔ<u>서늘하고 뜨겁고 교교하다</u>[8]. 난 아직도 들에서 마을로 내려서는 게 좋으나, 그 어떤 길엔들 노래 없으랴. 그 노래가 세상을 푸르게 밝히리.

- 고재종, <들길에서 마을로>

[어휘 풀이]
1) 서천(西天): 서녘 하늘. 2) 붉새: '노을'의 방언(전라). 3) 북새질: 많은 사람이 야단스럽게 부산을 떨며 법석이는 짓. 4) 오롯하다: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다. 5) 여미다: '여물다(일이나 말 따위를 매듭지어 끝마치다)'의 잘못. 6) 탁배기: '막걸리'의 방언. 7) 개밥바라기: 저녁 무렵 서쪽 하늘에 보이는 '금성'을 이르는 말. 8) 교교(皎皎)하다: ① 썩 희고 깨끗하다. ② 매우 조용하다.

<기본 실력 다지기>

※ 이 작품의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388.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389.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 내고 있다.

390.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농촌의 들길과 마을의 정경을 형상화하고 있다.

391. 행과 연의 구분이 없는 산문시의 형식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

392.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전원적, 토속적인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393.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다.

394.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395.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과 확장을 통해 시상을 발전시키고 있다.

396. 현재형 종결 어미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97.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98. 쉼표와 마침표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이 작품의 시구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구를 모두 찾아 기호를 쓰시오.

㉠ 기엄기엄 산 그림자 내려오고
㉡ 그 울음으로 벼들은 쭉쭉쭉쭉 자란다.
㉢ 이쯤에서 대숲 둘러친 마을 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
㉣ 앞 강물조차 시리게 우는 서러움이다.
㉤ 저 노인과 나누고 싶은 탁배기 한 잔.

ⓗ 그 어떤 길엔들 노래 없으랴.

399. 설의법:

400. 공감각적 심상:

401.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공간의 이동):

402.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

403. 노인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픈 화자의 바람:

404. 이 작품의 시어들이다.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시오.

쏙독새 울음, 또랑물 소리	㉠	•	ⓐ 벼와 교감하는 자연물
노인	㉡	•	ⓑ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와 관련됨.
쑥국새 울음	㉢	•	ⓒ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인물

<내신 수능 대비 문제>

405. 다음은 윗글에 대한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작품은 농촌 마을의 전원적[1]이고 (　)인 정경을 다양한 (　)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해가 저무는 순간 마을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듯한 세밀한 묘사가 인상적이다. 또한 연과 행이 나눠지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　)의 특성을 보여 준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쉼표와 마침표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운율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　)의 이동을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으며, 아름다운 농촌의 들길과 마을의 정경을 단순히 묘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연의 이치와 생명력의 힘에 대한 (　)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어휘 풀이]
1) 전원적(田園的): 도시에서 떨어진 시골이나 교외(郊外)의 성격을 띠는 것.

406. 윗글을 창작하기 위해 작가가 고려했을 계획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색채어를 통해 자연의 생명력을 선명하게 드러내자.
② 자연의 싱그럽고 풍요로운 광경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자.
③ 자연 속에서의 화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자.
④ 앞부분에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자.
⑤ 시선의 이동에 따라 펼쳐지는 풍경을 섬세하게 관찰하여 표현하자.

407. 윗글을 영상으로 제작하고자 할 때 기획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일과를 끝내고 도랑물에 삽을 씻는 노인의 모습을 배경으로 배치한다.
② 들길에서 마을로 장면을 교차시키며 연기 오르는 집, 밤꽃 등의 장면을 보여 준다.
③ 해거름 무렵의 들길 풍경을 전체적으로 보여 주거나 점차 대상 하나하나를 비추도록 한다.
④ 쏙독새의 울음소리와 도랑물 소리를 음향 효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벼들을 클로즈업한다.
⑤ 노을이 지고 떠오르는 개밥바라기 별과 함께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쓸쓸한 뒷모습을 한 화면에 담는다.

408. ⓐ~ⓔ 중 <보기>의 밑줄 친 심상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시는 관념이나 추상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한다. 언어에 의해 마음속에 그려지는 이러한 감각적 영상(映像)을 '이미지' 또는 '심상(心象)'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대상의 의미뿐만 아니라 대상의 상태, 모양, 움직임 등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추상적 관념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한 함축적 의미를 표현할 수 있고 독자에게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때 둘 이상의 감각이 결합되어 하나의 감각이 다른 종류의 감각으로 전이되기도[1] 하는데, 이를 <u>공감각적 심상</u>이라고 한다.

[어휘 풀이]
1) 전이(轉移)되다: ① 자리나 위치 따위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다. ② 사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고 바뀌다. 여기서는 ①의 뜻으로 쓰이고 있음.

① ⓐ
② ⓑ
③ ⓒ
④ ⓓ
⑤ ⓔ

409. <보기>는 화자의 시선 이동에 따라 윗글의 시상 전개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① 화자는 들길의 풍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다가 점차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군.
② 화자는 해가 질 무렵 산 그림자가 길어지는 모습을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군.
③ 화자는 도랑물에 삽을 씻는 노인을 바라보며 노동의 고단함과 애환을 함께 느끼고 있군.
④ 화자는 벼를 보며 자연의 건강한 생명력을 예찬하고 있군.
⑤ 화자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드넓은 들의 모습을 쏙국새 울

음을 통해 청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410. 윗글을 읽고 감상을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화자가 관찰하여 묘사하는 중심 대상은 '들길'과 '마을'입니다.
② '길섶의 망초꽃들 몰래 흔들린다.'는 잔잔한 바람에 미미하게 흔들리고 있는 꽃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③ '벼들은 쭉쭉쭉쭉 자란다.'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벼가 지닌 건강한 생명력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④ '쨍쨍할수록 더욱 치열한 벼들'을 통해 역경과 시련은 성숙의 밑바탕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⑤ '탁배기 한 잔'은 노인과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고픈 화자의 마음이 반영된 소재입니다.

411. <보기>는 이 시의 주제 의식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보기

이 시를 통해 시인은 자연물과 자연물,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연관을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과 도랑물 소리는 벼를 자라게 하는데, 이는 자연물 사이의 (　)과 조화를 보여 주는 것으로 동양적 가치관 및 인식과도 연관이 있다. 그리고 노인은 해가 지는 서쪽 하늘을 보며 내일의 날씨를 예감하는데, 이는 앞으로 여물어 가야 하는 (　) 들을 생각하는 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간과 (　)의 교감[1]을 보여 준다. 이러한 교감은 시의 마지막에서 화자와 (　)의 정서적 밀착, 인간애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게 된다.

[어휘 풀이]
1) 교감(交感): 서로 접촉하여 따라 움직이는 느낌.

<작품 완전 분석>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01.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02. 향토적이고 서정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농촌 마을의 전원적, 토속적 분위기를 형상화하고 있다.
03. 섬세하고 감각적인 관찰과 묘사를 통해 들판의 생명력과 농촌 마을의 서정성을 보여 주고 있다.
04. 행과 연의 구분이 없는 산문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쉼표와 마침표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05. 자연 풍경에 대한 묘사와 느낌을 현재 시제로 표현하여 생동감 및 현장감을 부여하고 있다.
06.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농촌의 들길과 마을의 정경을 형상화하고 있다.
07. 구체적 소재들을 연결하여 자연과 자연, 인간과 자연물 사이의 교감과 소통을 그리고 있다.
08.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09. 화자가 관찰하여 묘사하는 중심 대상은 '들길'과 '마을'이다.
10. 전반부에서는 저녁 무렵 들판의 싱그러운 생명력을, 후반부에서는 대숲 둘러친 마을의 서정적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11. 처음 부분에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다.
12. 설의법을 통해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13.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14.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5. '이쯤에서 대숲 둘러친 마을 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에서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의 전환이 나타난다.
16. '탁배기 한 잔'에는 노인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고픈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B]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C]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D]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E]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u>그늘</u>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기본 실력 다지기>

※ 이 작품의 표현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41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413.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414. 고백적 어조를 사용하여 성찰적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415. 특정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416.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417. 도치의 방식을 사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여운을 주고 있다.

418.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차분하고 담담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419. 지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420. 색채 이미지와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이 작품의 시구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구를 <u>모두</u> 찾아 기호를 쓰시오.

㉠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
㉡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421. 문장의 일반적인 어순을 뒤바꾸어 여운을 줌

422. 반복을 통해 화자의 깨달음의 순간을 강조함

423.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표현함

424.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표현함

425. 경어체를 사용하여 차분하고 담담한 분위기를 형성함

426. 이 작품의 상징적 시어들이다.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시오.

흰 꽃과 분홍 꽃	㉠	ⓐ	조화와 어울림의 시간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	ⓑ	대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선입견
수천의 빛깔	㉢	ⓒ	대상의 진정한 모습, 본질
저녁	㉣	ⓓ	외적으로만 판단한 대상의 피상적 모습

<내신 수능 대비 문제>

427. 다음은 윗글에 대한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작품은 복숭아나무를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존재로 (　)하여 화자와 타인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너무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 마음을 읽어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　)에 복숭아나무를 멀리한다. 그런데 흰 꽃과 분홍 꽃만 있는 줄 알았던 복숭아나무를 멀리서 바라보니 그 사이에 눈부신 (　)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복숭아나무가 외로웠을 것이라고 짐작하며 그를 이해하고 그의 마음에 공감하게 된다. 이처럼 화자는 후반부에 인식의 (　)을 드러내면서 대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와 완전한 조화와 교감을 이루게 된다.

---

428.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지시어를 반복 사용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③ 도치의 방식을 사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여운을 주고 있다.
④ 일상적이지 않은 소재를 활용하여 관념적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⑤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고백적이고 성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429.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A]: 대상에 대한 태도가 드러나며 시상이 촉발되는 부분으로,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고 되는 이유를 보여 준다.
② [B]: 대상에 대한 감정이 행동으로 구체화되는 부분으로, '멀리로 멀리로만'은 화자가 대상을 피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③ [C]: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으로, '눈부셔 눈부셔'는 화자가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서 '수천의 빛깔'을 발견하는 순간을 강조한다.
④ [D]: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나타나는 부분으로, '피우고 싶은 꽃빛'은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을 나타낸다.
⑤ [E]: 대상에 대한 깨달음 이후의 상황이 나타나는 부분으로,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화자가 가까이에서 발견한 대상의 또 다른 모습을 의미한다.

430. 윗글의 시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흰 꽃과 분홍 꽃'은 겉으로 드러난 복숭아나무의 모습을 나타낸다.
②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은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과 선입견을 보여준다.
③ '수천의 빛깔'은 화자가 멀리서 본 복숭아나무의 모습으로, 복숭아나무의 본질에 해당한다.
④ '흩어진 꽃잎들'은 복숭아나무가 피운 꽃잎들이 떨어지는 모습으로, 복숭아나무의 꿈이 좌절되었음을 암시한다.
⑤ '저녁이 오는 소리'는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진 화자가 복숭아나무와 조화를 이루고 교감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431. 윗글의 ㉠과 <보기>의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내 창작도 태반은 여기서 되었다. 직접 이 철학자를 두고 짜여진 것은 아직 한 편도 없으나, 이 철학자와 벗하여 상(想)이 닦였던 것만은 사실이다. 상이 막히어 붓대가 내키지 않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책상을 떠나 이 철학자의 그늘 밑으로 나왔다. 그리하여 그 밑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뒷짐을 지고 거닐면서 매듭진 상을 골라서 풀곤 했다. 생각이 옹색해도 이 그늘을 찾았고 독서와 붓놀음에 지친 피로가 몸에 미칠 때에도 이 그늘을 찾았다. 실로 이 늙은 철학자 밤나무는 나에게 있어 내 생명의 씨를 밝혀 주는 씨앗터였다.

이러한 씨앗터를 내 이제 떠나 살게 되니 해마다 버들잎에 기름이 지면 이 늙은 철학자의 그늘 밑이 더할 수 없이 그리워진다. 인제 그 밤나무에도 잎이 아마 푸르렀겠지. 비바람에 고삭은 가지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안부가 지극히 알고 싶어지고, 그 밑에서 고요히 눈을 감고 사색에 잠겨 보고 싶어진다.

더욱이 생각의 가난에 원고를 자꾸만 찢게 될 땐, 어쩐지 그 ⓐ<u>**그늘**</u> 밑 자연석 위에서 잠깐만 앉아 눈을 감아 보아도 매듭진 상의 눈앞은 훤히 트여질 것만 같게 그 품속이 생각난다.

-계용묵, <율정기(栗亭記)>

---

① ㉠은 화자의 기대에 어긋나는 장소이고, ⓐ는 '나'의 휴식을 방해하는 장소이다.
② ㉠는 화자가 복숭아나무의 영향을 받았던 장소이고, ⓐ는 '나'가 밤나무에 영향을 주었던 장소이다.
③ ㉠은 화자가 복숭아나무에 대해 사색에 잠겼던 장소이고, ⓐ는 '나'가

밤나무에 대한 글을 썼던 장소이다.
④ ㉠은 복숭아나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장소이고, ⓐ는 밤나무에 대한 '나'의 고민이 저절로 해소되는 장소이다.
⑤ ㉠은 곁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을, ⓐ는 떠나온 밤나무에 대한 '나'의 그리움을 강화하는 장소이다.

432. [서술형] 윗글에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시행을 찾아 쓰시오.

보기

-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임.
-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태도 변화를 강조함.

<작품 완전 분석>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01.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이 나타나 있다.
02. 도치의 방식을 사용하여 시상을 마무리함으로써 여운을 주고 있다.
03. 지시어를 반복 사용하여 중심 소재로 초점을 모으고 있다.
04.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고백적이고 성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05. 특정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06. 복숭아나무를 의인화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07.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여 화자의 깨달음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08. '흰 꽃과 분홍 꽃'은 겉으로 드러난 복숭아나무의 모습을 나타낸다.
09.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은 복숭아나무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과 선입견을 보여 준다.
10. '수천의 빛깔'은 화자가 멀리서 본 복숭아나무의 모습으로, 복숭아나무의 본질에 해당한다.
11.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는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으로, 시구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태도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12.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은 시간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13. '저녁이 오는 소리'는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진 화자가 복숭아나무와 조화를 이루고 교감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14. 화자는 복숭아나무에 대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상의 본질을 깨달은 이후에는 복숭아나무와 진정한 조화와 교감을 이루게 된다.
15. '복숭아나무 그늘'이라는 공간은 화자와 복숭아나무 사이에 진정한 이해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저녁'이라는 시간은 복숭아나무와 화자가 진정한 조화와 통합을 이루는 시간이다.

등꽃 아래서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 뻗는 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1] 색깔로
연등 날 지등(紙燈)[2]의 불빛이 흔들리듯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결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평발 밑으로 처져 내린 ㉠<u>등꽃 송이</u>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아랫도리의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
큰 둥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 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또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그러면 어느 문갑[3] 속에서 파란 옥빛 구슬
꺼내 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 송수권, <등꽃 아래서>

[어휘 풀이]
1) 버무리다: 여러 가지를 한데에 뒤섞다. 2) 지등(紙燈): 겉을 종이로 발라 만든 등. 3) 문갑(文匣): 문서나 문구 따위를 넣어 두는 방세간. 서랍이 여러 개 달려 있거나 문짝이 달려 있고, 흔히 두 짝을 포개어 놓게 되어 있다.

<기본 실력 다지기>

※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다. 맞으면 ○, 틀리면 ×표 하시오.

433. 화자가 작품 표면에 드러나 있다.

434. 대상을 의인화하여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

435. 비유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436. 현재형 종결 어미를 통해 현재의 마음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437. 조화와 합일을 이루는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438. 화자는 구름을 바라보며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

439. 삶의 비애와 고통이 승화된 것을 '구슬 같은 소리'로 표현하고 있다.

440. 화자는 등꽃 송이를 보고 난 후 마음의 평정을 얻었다.

441. '너와 내'가 조화를 이룰 때 '좋은 꽃들'이 피어남을 이야기하고 있다.

442. 구름이 흘러가면서 등나무에 핀 등꽃 송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 이 작품의 시구이다. 다음에 해당하는 시구를 찾아 기호를 쓰시오.

㉠ 등꽃 송이를 보고 난 / 그 후
㉡ 철없이 주거주걱 흐르던 눈물
㉢ 너와 내가 자꾸 꼬여 가는 그 속
㉣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443. 삶의 비애와 고통:

444. 삶의 결실을 맺음.:

445.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모습:

446. 화자의 마음이 평정심에 도달하게 되는 계기:

447. 이 작품의 시어와 시구의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을 찾아 선으로 연결하시오.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 뻗는 것	㉠	ⓐ	평정에 도달한 화자의 내면세계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	㉡	ⓑ	조화와 합일을 이루는 삶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	㉢	ⓒ	바람에 등꽃 송이가 흔들리는 소리
옥빛 구슬 꺼내 드는 / 은은한 소리	㉣	ⓓ	삶의 비애

<내신 수능 대비 문제>

448. 다음은 윗글에 대한 감상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작품은 화자가 (　)를 보고 난 후 깨달은 삶의 이치를 담고 있다. 화자는 구름이 한가로이 흘러가는 어느 날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등꽃을 바라보는데, 가닥가닥 꼬여서 큰 둥치를 이루는 등나무와 색색의 등꽃을 보면서 (　)와 합일을 이루는 삶에 대해 생각한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있던 화자의 마음은 등꽃을 보면서 점차 무뎌져 (　)을 이루게 된다. 그리고 결국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가면, '좋은 꽃들'처럼 삶의 아름다운 (　)을 맺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449.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미상관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② 다양한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③ 역설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④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청자로 설정하고 있다.
⑤ 동일한 시어와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450.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있다.
② 현대 사회의 부조리와 병폐를 고발하고 있다.
③ 이상 세계를 설정하여 현실과 대비시키고 있다.
④ 대상을 보고 나서 얻은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⑤ 대상에 대한 절실한 사랑과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451. '등꽃 송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삶의 고통과 비애를 상징한다.
② 화자의 과거 삶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③ 화자가 예찬하고 동경하는 대상이다.
④ 화자의 마음을 평정에 도달하게 만든 계기이다.
⑤ 모순된 현실에 대해 저항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

452. 윗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기

숲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때는 몰랐다
나무와 나무가 모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
숲을 이루는 줄 알았다
나무와 나무 사이
넓거나 좁은 간격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다
벌어질 대로 최대한 벌어진,
한데 붙으면 도저히 안 되는,
가까이 떨어져 서 있어야 하는,
나무와 나무 사이
그 간격과 간격이 모여
울울창창(鬱鬱蒼蒼) 숲을 이룬다는 것을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숲에 들어가 보고서야 알았다.
- 안도현, <간격>

① 윗글과 <보기> 모두 관조적이고 성찰적인 태도가 나타나 있다.
② 윗글과 <보기> 모두 자연물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윗글과 달리 <보기>는 대상을 의인화하고 있다.
④ 윗글과 달리 <보기>의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⑤ 윗글과 달리 <보기>는 과거의 절망적인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453. [서술형] 다음은 윗글의 시구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2연의 마지막 행인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에서 '좋은 꽃들'은 삶의 아름다운 (　)을 상징하는 것으로, 조화와 합일을 이루며 사는 삶의 의미와 (　)를 강조하고 있다.

454. [서술형] 주어진 <조건>을 이용하여 ㉠의 시적 기능을 20자 내외

로 서술하시오.

조건

- 등꽃 송이를 보기 전과 본 후 화자의 내면 변화를 고려하여 쓸 것.
- 명사로 종결할 것.

<작품 완전 분석>

※ 다음은 작품을 분석하여,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01. 자연물이 지닌 속성을 바탕으로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02. 비유적이고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03. 조화와 합일을 이루며 사는 삶의 가치에 대해 노래하고 있다.
04. 화자가 등꽃 송이를 보고 얻게 된 삶의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05. 등꽃 송이를 통해 화자의 인식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06. 화자는 구름이 흘러가는 등나무 아래에서 등꽃을 바라보고 있다.
07. '구름의 나들이'는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상황을 보여 준다.
08. '가닥가닥 꼬여' 있는 등나무 줄기는 조화와 합일을 이루는 삶을 의미한다.
09. '등꽃 송이'는 화자의 마음이 평정심에 도달하게 된 계기로 볼 수 있다.
10. 삶의 고통과 비애를 승화하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그리고 있다.
11.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화자의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12. 화자는 등꽃 송이를 보고 난 후 내면에 변화가 생겼다.
13.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는 설의법이 사용된 표현이다.
14. '좋은 꽃들'은 삶의 아름다운 결실을 상징한다.
15. 바람이 불면서 등꽃 송이가 흔들리는 소리를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

정답 해설

님의 노래

1) 답 ×

해 임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내면의 울림으로 '님의 노래'를 듣고 있는 것이다.

2) 답 ○

3) 답 ○

4) 답 ○

5) 답 ○

6) 답 ○

7) 답 ○

8) 답 ×

해 자연물에 빗댄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9) 답 ×

해 '고적한 잠자리에 홀로 누워도'에서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추리할 수 있지만 과거와의 대비를 통해 그러한 처지를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10) 답 ○

11) 답 ×

해 '그러나' 이후에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안타까움이 나타나지만 화자의 태도가 '순응 → 저항'과 같이 변한 것은 아니다.

12) 답 ⓑ

13) 답 ⓐ

14) 답 ⓐ

15) 답 ⓐ, ⓑ, ⓒ

16) 답 ⓒ

17) 답 ③, ④, ⑤

18) 답 부재, 님의 노래, 사랑, 위안, 안식, 반어적

해 '님의 노래'가 임이 실제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화자가 주관적으로 듣고 있는 노래라는 점에서 화자의 정서와 연결된다.

19) 답 ①

해 음성 상징어의 사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 ② 7글자, 5글자를 반복하는 7·5조의 음수율을 보인다. ③ 종결 어미 '-요'를 반복하고 있다. ④ '해 지고 저물도록 - 밤들고 잠들도록', '하나도 남김없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시 전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 답 ①

해 '님의 노래'는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투영된 것일 뿐, 임과 함께 하는 행복한 미래에 대한 확신과는 거리가 있다. 오 ② 3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현식 속에서 부재하는 임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로 볼 수 있다. ④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이 '님의 노래'를 언제나 듣는 상황으로 표현된 것이다. ⑤ 부재하는 임의 노래를 듣는 것이므로, 임이 직접 부르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것이다.

21) 답 ④

해 '님의 노래'는 임의 부재로 인해 '외롭고 쓸쓸한(=고적한)' 잠자리에 누운 화자에게 포근한 안식을 준다. 오 ① '긴'은 오래고 간절한 기다림을 표현한 것이다. ② '문밖에서 서서'는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세와 관련된다. 따라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고이도 흔들리는' 것이 화자에게 위안과 안식을 주고 있으므로 갈등이나 혼란과는 거리가 있다. ⑤ 임이 부재하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잘못된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22) 답 ⑤

해 <보기>에서도 '잊었노라'라는 시구와 '당신이 ~면 ~잊었노라'라는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오 ① 이 글: 그리운∨우리 님의∨맑은 노래는(3음보) / <보기>: 먼 훗날∨당신이∨찾으시면(3음보) ② <보기>는 먼 훗날 당신이 찾거나 나무라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③ 이 글은 화자가 부재하는 임에 대한 사랑을 독백하는 형식이고, <보기>는 화자가 부재하는 임(당신)에 대한 사랑을 바로 그 임에게 직접 말하는 형식이다. ④ 이 글의 화자는 4연에서 '님의 노래'를 모두 잃고, 잊는다고 했지만, 이는 '님의 노래'가 언제나 가슴에 젖어 있다는 1연의 내용으로 보아 반어이다. <보기>의 화자도 '잊었노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 절대로 잊지 못한다는 심정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23) 답 노래, 촉각화

24) 답 임도, '님의 노래'도 부재하는 현실을 인식하며 느끼는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인 동시에, 그럼에도 결코 버리거나 잊을 수 없는 임에 대한 사랑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해 이 글 전체의 흐름으로 보아 ⓐ, ⓑ는 반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수(繡)의 비밀

25) 답 ○

26) 답 ○

27) 답 ○

28) 답 ○

29) 답 ×

해 시간의 흐름은 드러나지 않는다.

30) 답 ○

31) 답 ○

32) 답 ×

해 자연물도, 그에 대한 화자의 감정 이입도 보이지 않는다.

33) 답 ○

34) 답 ×

해 대립적이라고 볼 만한 시어들도, 그 병치도 보이지 않는다.

35) 답 ○

36) 답 ×

해 화자는 옷의 완성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

37) 답 ×

해 옷을 완성하지 않는 것은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38) 답 ○

39) 답 ×

해 화자는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이라면서 '당신'을 기다리는 일이 자신의 의지와 소망에 따른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40) 답 ○

41) 답 ○

42) 답 ㉠ - ⓐ, ㉡ - ⓒ, ㉢ - ⓓ, ㉣ - ⓔ, ㉤ - ⓑ, ㉥ - ⓕ

43) 답 당신, 수놓기, 지연, 정화, 인정, 역설적

해 수를 완성하지 않는 이유, 즉 '수의 비밀'을 화자의 역설적 인식과 연결 지어 이해해야 한다.

44) 답 ④

해 '마음'이라는 추상적 관념의 변화(정화)를 수를 놓는 구체적 이미지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오 ① 명암의 대비는 보이지 않는다. ② 시작과 끝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이 반복(수미상관)되고 있지 않다. ③ 자연물도, 인격 부여도, 그것과의 대화도 확인할 수 없다. ⑤ 대상에 대한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지 않는다.

45) 답 ⑤

해 화자는 옷 짓는 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옷의 완성을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 화자가 바라는 것은 계속 수를 놓으면서 임을 사랑하고 그리는 것인데, 옷의 완성은 그 사랑과 그리움을 끝내는 것인 동시에 임의 부재를 확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오 ① '당신'에 대한 사랑과 정성을 옷 짓기를 통해 구현하고 있다. ②~④ 2연에서 드러나는 '수의 비밀'과 연관된다.

46) 답 ③

해 ㉡은 사랑과 정화, 구도의 행위인 수놓기의 한 과정에 사용되는 것으로, '당신'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오 ① ㉠은 '당신'을 위해 짓는 것이므로 화자의 사랑과 정성으로 볼 수 있다. ② ㉢은 화자의 마음을 구현하는 수놓기를 실현하는 대상이므로 화자의 분신으로 볼 수 있다. ④ ㉣은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즉 '당신'의 부재로 고통스러운 때 화자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위안을 주는 것이다. ⑤ ㉤은 '당신'의 옷 주머니에 넣을 만한 값진 것이므로 적절하다.

47) 답 ③

해 '마음이 아프고 쓰린' 것은 대상(당신)의 부재라는 현실 인식으로 인해 화자가 느끼는 정서이므로, 주체적 선택과 극복 의지를 표현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오 ① '손때'가 많이 묻은 것은 수놓기를 반복, 지속한 결과로,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② 임에게 줄 옷을 완성함으로써 그 옷을 받아 줄 임이 부재하는 현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수를 놓으면 그 과정에서 '맑은 노래'가 나온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사랑과 기다림의 행위인 수놓기를 지속하기 위해 옷을 완성하지 않는 것은 임의 부재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48) 답 ㉮ 수놓기, ㉯ 의지, ㉰ 지속, ㉱ 부재, ㉲ 결핍

49) 답 먹고 싶어서 다 먹지 않는 것입니다.

윤사월

50) 답 ○

51) 답 ○

52) 답 ×

해 대구는 보이지 않는다.

53) 답 ○

54) 답 ○

55) 답 ○

56) 답 ○

57) 답 ×

해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인간의 유한성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58) 답 ○

59) 답 ×

해 '꾀꼬리'는 감정 이입의 대상이 아니다.

60) 답 ○

61) 답 외딴 봉우리(외딴집), 윤사월

62) 답 외딴 봉우리, 외딴집

63) 답 송홧가루, 꾀꼬리

64) 답 ⓐ 송홧가루, ⓑ 눈먼 처녀, ⓒ 꾀꼬리

65) 답 외딴, 윤사월, 눈먼 처녀, 3, 애수, 용해

해 풍경을 귀로 듣는 행위가 함축하는 의미를 다각도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66) 답 ③

해 노란색의 색채 이미지(송홧가루)는 확인할 수 있지만 이와 대비되는 색채는 드러나지 않는다. 오 ① '기(1연)-승(2연)-전(3연)-결(4연)'의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② 절제된 언어를 통해 외딴 산골의 윤사월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④ 송홧가루 날리는(7) / 외딴 봉우리(5), 송홧가루∨날리는∨외딴 봉우리(3음보) ⑤ 1·2연(원경) → 3·4연(근경)

67) 답 ①

해 화자는 윤사월 외딴 봉우리와 외딴집에 있는 눈먼 처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오 ② 서경적인 모습을 전달하고 있을 뿐이다. ③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 등 화자의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눈먼 처녀의 행동에서 그리움을 추측할 수는 있지만 화자가 자신의 그리움을 토로한 것은 아니다. ⑤ 눈먼 처녀는 시적 대상일 뿐이다.

68) 답 ⑤

해 1연에서는 시각, 2연에서는 청각을 활용하여 윤사월 외딴 산골의 정경을 형상화하고 있다. 오 ① 눈먼 처녀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화자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지 열거가 아니다. ③ '꾀꼬리'는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④ 속뜻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다.

69) 답 ⑤

해 '외딴 봉우리'와 '외딴집'은 바깥세상과 단절된 세계로, 세상과 격리되

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눈먼 처녀'의 애틋한 동경을 강화하는 배경이 된다. 오 ① '꾀꼬리의 울음'은 윤사월의 풍경을 누리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외딴 봉우리'는 고독한 이미지를 지닌 것이지만, 고고함이나 초연함과는 거리가 있다. ③ '눈먼 처녀'는 바깥세상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을 지닌 존재이다. 특정 대상을 향한 맹목적 사랑을 지녔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송홧가루'는 무르익은 자연의 풍경을 보여 준다.

70) 답 ④

해 ㉠은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처녀에게 바깥세상을 소리로 전달해 주는 존재이고, ㉮는 다정한 모습으로 인해 임과 이별한 화자의 외로움을 자극하는 존재이다. 오 ①, ② 둘 다 화자의 그리움이나 깨달음과는 관련이 없다. ③ 둘 다 분신으로 볼 근거가 없다. ⑤ ㉮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존재가 맞지만 ㉠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 아니다.

71) 답 단절, 슬픔, 애수

72) 답 바깥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설렘, 그리움이 담긴 행동으로, 시각적 대상인 풍경을 꾀꼬리 소리라는 청각을 통해 누리는 것이다.

해 앞을 볼 수 없는 처녀가 엿듣고 있는 것이 무엇일지 추리해야 한다.

자화상

73) 답 ○

74) 답 ○

75) 답 ○

76) 답 ×

해 반어법은 사용되고 있지 않다.

77) 답 ×

해 2연과 6연에서 우물 속에 비친 자연물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지만, 자연은 초라한 화자의 모습과 대비되는 대상이지 화자가 자연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니다.

78) 답 ○

79) 답 ○

80) 답 ×

해 화자는 자신에 대한 연민을 느껴 다시 우물로 되돌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81) 답 ○

82) 답 ○

83) 답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84) 답 파아란

85) 답 파아란 바람

86) 답 ㉠-ⓑ, ㉡-ⓐ, ㉢-ⓒ

87) 답 미움, 그리움

88) 답 우물, 사나이, 내적 갈등

89) 답 ⑤

해 우물 속에 비치는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과 '한 사나이'로 표현된 현실적 화자의 초라한 모습을 대조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 ① 스스로 묻고 답하는 자문자답의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② 규칙적인 운율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ㅂ니다'라는 종결 어미를 통해 산문적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 시적 대상에 대한 예찬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화자는 산모퉁이를 돌아 우물을 들여다보다가 돌아간 후 다시 우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에 따라 화자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지는 않다.

90) 답 ②

해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은 표현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이처럼 작가에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것은 ②이다. 오 ①, ⑤ 내재적 관점에 따른 작품 감상, ③ 효용론적 관점에 따른 작품 감상, ④ 반영론적 관점에 따른 작품 감상

91) 답 ①

해 이글의 '우물'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보기>의 화자는 구리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망국민으로 욕되게 살아온 현재의 삶을 성찰하고 있으므로, ⓐ는 '우물'과 그 역할이 같다고 볼 수 있다.

92) 답 촉각, 시각

93) 답 구성상 안정감과 균형감을 준다.

두보(杜甫)나 이백(李白)같이

94) 답 ×

해 '아'라는 영탄적 표현(감탄사)이 사용되었지만, 흥겨움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95) 답 ○

96) 답 ○

97) 답 ○

98) 답 ○

99) 답 ○

100) 답 ×

해 두보나 이백은 화자가 떠올린 인물이지 청자라고 할 수 없다.

101) 답 ○

102) 답 마른 물고기 한 토막

103) 답 떡과 고기

104) 답 두보(杜甫)나 이백(李白)

105) 답 대보름 명절

106) 답 원소(元宵)

107) 답 고향의 내 집, (흥겨운) 거리

108) 답 먼 타관

109) 답 조그마한 가업집

110) 답 고향의 내 집

111) 답 정월 대보름, 두보나 이백, 위로

112) 답 ⑤

해 6~10행에서 고향에서의 행복했던 삶과 현재의 고달픈 삶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으며, 27행에서 화자의 쓸쓸한 처지와 대비되는 흥겨운 거리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비를 통해 타관에서 쓸쓸함을 느끼는 화자의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오 ① 현실에서 느

끼는 쓸쓸함만 언급되어 있을 뿐, 냉소적 인식은 찾아볼 수 없다. ②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엿볼 수 있을 뿐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③ 타관에서 고달픈 삶을 사는 화자의 처지를 알 수 있지만, 이를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④ 두보나 이백 같은 인물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113) 답 ④

해 화자는 고향을 느끼기 위해 고향 사람이 하는 '조그만 가업집'에 가려고 하고 있을 뿐, 고향에 찾아가려 하고 있지는 않다. 오 ① '나는 멀리 고향을 나서', '객고에 있는 신세로다'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⑤ 화자는 두보나 이백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명절날을 맞이하여 타향에서 쓸쓸하게 지냈을 것이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③ 화자는 대보름 명절에 타관에서 고달픈 삶을 사는 자신이 '쓸쓸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14) 답 ③

해 '일가친척들'은 명절날 화자가 보고 싶어 하는 대상으로, 고향에서의 행복했던 삶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따라서 '일가친척들'이 타관에서 외로운 처지에 있는 화자의 쓸쓸한 정서를 심화시켜 준다고 볼 수 있지만, 고향을 되찾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화시켜 준다고 볼 수는 없다. 오 ① '대보름 명절'은 화자가 남의 나라에서 맞이한 날로 화자로 하여금 타지에서 느끼는 외로움과 쓸쓸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시간적 배경이라 할 수 있다. ② '새 옷'은 명절날 화자가 입었던 것으로, 고향에서의 행복했던 삶과 관련된다. 반면에 '때 묻은 입든 옷'은 현재 고달픈 화자의 처지를 상기시켜 주는 소재이다. ④ '마른 물고기 한 토막'은 '떡과 고기'와 대비되는 소재로 화자가 현재 고달픈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맛스러운 떡국'은 화자가 고향을 느끼기 위해 '조그마한 가업집'을 찾아가 먹으려는 음식으로 두보나 이백이 먹었을 '원소'와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115) 답 ④

해 '주막이나 반관(版鎬)'은 두보나 이백이 정월 대보름 명절날 찾아 갔을 것이라고 화자가 상상해 본 장소일 뿐, 화자가 이곳에 직접 찾아가 두보나 이백이 과거에 겪었던 상황을 경험하려 하지는 않고 있다. 오 ① '남의 나라'는 화자가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화자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장소감을 주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② '고향의 내 집'은 행복한 삶이 존재했었던 공간으로, 화자에게 있어서 소속감이나 일체감을 주었던 공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조그마한 가업집'은 화자가 가려고 하는 공간으로, 이곳에서 화자가 고향을 느끼려 한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소속감을 주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⑤ '거리'는 화자의 외롭고 쓸쓸한 정서를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소외감을 주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116) 답 ⑤

해 ㉠은 정월 대보름날 거리의 떠들썩한 모습을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드러낸 것으로, 화자가 현재 느끼는 정서와 대비되는 상황에 해당한다. 이러한 거리의 분위기는 화자로 하여금 더욱 쓸쓸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이 화자로 하여금 삶의 의욕을 북돋워 준다고는 할 수 없다. 오 ① '탕탕', '삘빨'과 같은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었다. ②, ④ 화자의 쓸쓸한 정서와 대비되는 외적 상황이다. ③ 정월 대보름 명절날의 흥겨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117) 답 가정적, 대비적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외로움과 쓸쓸함을 부각하고 있다.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118) 답 ○

119) 답 ○

120) 답 ○

121) 답 ○

122) 답 ○

123) 답 ○

124) 답 ×

해 감탄사 '오'를 사용하고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를 반복함으로써 깨달음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을 뿐, 간절함과는 거리가 멀다.

125) 답 ○

126) 답 ×

해 음성 상징어인 '툭'과 '쟁쟁쟁' 등을 사용함으로써 생동감을 느끼게 하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현재 상황을 실감 나게 묘사한 것은 아니다.

127) 답 ○

128) 답 ㉣

129) 답 ㉠

130) 답 ㉠, ㉣

131) 답 ㉡

132) 답 ㉣

133) 답 ㉠-ⓔ, ㉡-ⓑ, ㉣-ⓒ, ㉤-ⓐ, ㉥-ⓒ, ㉦-ⓓ

134) 답 무덤가, 평안, 탄생, 여백, 소망

135) 답 ①

해 이 글은 불교의 연기론적 사고와 역설적 인식을 통한 깨달음을 의식의 순차적인 흐름에 따라 전개하고 있다. 오 ② 음성 상징어('툭', '쟁쟁쟁')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③ 1연에서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를 반복하여 운율을 느끼게 하고 있다. ④ 2연에서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의 반복을 통해 깨달음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⑤ '그 아래 네가 앉아 있는'과 같이 미완의 구조로 작품을 결말지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여운을 느끼게 한다.

136) 답 ⑤

해 3연의 처음 부분을 보면 '나'라고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오 ① 1연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여백에 대한 깨달음과 화자의 소망을 독백체로 담담하게 말하고 있다. ③ 화자는 사라지는 것들은 여백을 남기며 이 여백은 탄생이라는 역설적 인식을 통해 여백의 의미를 깨닫고 있다. ④ 3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안과 위로를 주는 안식처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히고 있다.

137) 답 ⑤

해 ㉥은 화자 자신이 사람들에게 위안과 위로를 주는 안식처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담담하게 표현한 것이다.

138) 답 ⑤

해 <보기>에서, 동양의 산수화에서 여백은 빈 공간이 아니라 구름, 물, 안개 등과 같은 또 다른 사물의 공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비어 있지만 채워진 공간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큰북을 치면 공명이 빈 공간(여백)을 채운다. 따라서 '공명'은 '무언(無言)'이면서 '불언(不言)의

언(言)'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⑤를 보면, 여백이란 쓸쓸한 존재이지만 부재 뒤에 생성된 '무언(無言)의 여백'이 화자에게 위안을 준다(<보기>에서 빈 공간을 채우는 것과 동일함.)고 하였으므로 이 글을 바르게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39) 답 여백, 안식처

140) 답 화자는 마음의 잡초가 다 사라진 뒤 사람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안식처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꽃

141) 답 ○

142) 답 ○

143) 답 ×

해 어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작품 전반에서 강인하고 굳센 어조가 드러나고 있다.

144) 답 ○

145) 답 ×

해 반어적인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상황에서 꽃이 빨갛게 핀다는 역설적 상황이 드러나 있다.

146) 답 ○

147) 답 ○

148) 답 ㉠

149) 답 ㉡

150) 답 ㉠

151) 답 ㉠

152) 답 ㉢

153) 답 ㉢

154) 답 ㉠-ⓐ-㉮, ㉡-ⓒ-㉰, ㉢-ⓑ-㉯

155) 답 현실, 미래, 일제 강점기, 광복

156) 답 ②

해 '꽃', '꽃맹아리', '제비 떼'와 같이 자연물을 활용하여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를 드러내고 있지만, 감정을 이입한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 ① '꽃은 발갛게 피지 않는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광복에 대한 열망과 확신을 드러낸다. ③ 1연의 '쉬임 없는 날이여', 2연의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등에서 영탄적 표현을 통해 광복을 향한 화자의 의지와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④ '꽃은 발갛게 피지 않는가'나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에서 붉은색, 검은색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 현실 극복 의지와 광복에 대한 확신을 부각시키고 있다. ⑤ 3연의 '한바다 복판 용솟음치는 곳'에서 광복된 조국의 모습을 역동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광복의 환희를 드러내고 있다.

157) 답 ④

해 화자는 암담한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오 ①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② 화자는 대상을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③ 현재 시제가 사용되었다. ⑤ 강하고 남성적이며 의지적인 어조가 사용되었다. 설득적 어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158) 답 ③

해 '나비처럼 취한 회상의 무리'는 현실의 어려움을 모두 극복한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 즉 현재의 어려움을 돌아볼 때 느끼는 감회를 드러내는 것이다. 즉, 긍정적 미래를 맞이한 이들의 기쁨을 표현한 것으로, 비판적 시각은 드러나지 않는다. 오 ① '비 한 방울 나리잖는'은 '꽃'이 필 수 없는 극한적 상황이나, 오히려 꽃이 빨갛게 핀다는 역설적 상황을 통해 현재의 시련을 이겨 낼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② '눈 속 깊이'를 통해 겨울의 추위를,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에서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계절의 순환 원리를 통해 봄이 도래할 것에 대한 확신과 당위성을 드러내고 있다. ④ 1, 2연은 유사한 구조를 활용하여 의미적으로 대응되고 있다. 즉. 부정적 현실 인식과 이를 극복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3연에서는 미래의 긍정적 상황을 제시하여, 현재의 비극적 상황을 이겨 내려 하고 있다. ⑤ '꽃맹아리'는 '꽃'으로 자라 '꽃 성'을 이루게 된다. 이를 통해 시련을 이겨 내는 생명력과 의지가 결국 긍정적 상황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159) 답 ⑤

해 '꽃 성'을 떠올리며 오늘 여기서 화자가 부르는 '너'는, 화자가 염원하는 바인 '조국 독립 '으로 볼 수 있다. <보기>에서 시인 이육사는 선명한 저항 정신을 표현한다고 하였으므로, 친일화된 이들을 포용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 ① '하늘도 다 끝'난 곳.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 땅'은 극한의 시련을 겪는 절망적인 곳으로, 당시 일제의 강압 통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일제 강점하에서 화자가 목숨을 걸고 쉬지 않고 가는 길은 독립운동의 길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화자의 독립운동에 대한 열의를 드러내고 있다. ③ '꽃맹아리'는 아직 피지는 못했으나, 꽃을 피울 가능성과 힘을 지닌 존재이다. 이는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과 독립의 기운이다. ④ 2연에서 겨울이 지나 봄이 오는 것과 같이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은 봄, 곧 조국 독립을 의미한다. 3연에서는 이러한 독립된 조국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160) 답 (1) (내가 부른) 노래, (2)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해 이 글의 '꽃'은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 준다. <보기 2>의 '내가 부른 노래' 역시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준다.

한계령을 위한 연가

161) 답 ○

162) 답 ○

163) 답 ○

164) 답 ○

165) 답 ○

166) 답 ○

167) 답 ×

해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못 잊을 사람'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168) 답 ×

해 일반적으로는 고난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배경이지만 화자는 이를 자신의 사랑을 누릴 좋은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

169) 답 ○

170) 답 ○

171) 답 ㉮, ㉰, ㉱
172) 답 ㉮, ㉯
173) 답 ㉰, ㉱, ㉲
174) 답 (A) 눈부신 고립, (B) 동화의 나라, (C) 짧은 축복
175) 답 가상, 폭설, 고립, 헬리콥터, 거부

해 '폭설'과 '고립'을 긍정적 상황으로, '헬리콥터'의 구조를 부정적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다.
176) 답 ①

해 화자는 폭설로 인해 고립되는 상황에 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한 고립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화자가 지향하는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오 ② 자연물이 인생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것은 아니다. ③ '폭설'이나 '고립', '헬리콥터' 등에 대해 보편적 인식과는 다른 인식을 보이고 있을 뿐 인식이 변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과거와 현재가 대비되고 있지 않다. ⑤ '한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지만 애상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177) 답 ③

해 1연의 '한계령의 한계에 못 이긴 척 기꺼이 묶였으면'에서 '한계령(寒溪嶺)'의 '한계(寒溪)'를 동음이의어인 '한계(限界)'와 연결 짓는 언어유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언어유희의 표현 의도가 해학인 것과 달리 이 부분에서는 해학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오 ①, ② 2연의 '오오, 눈부신 고립'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묶였으면', '나는 결코 ~지 않으리' 등을 반복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⑤ 전반적으로는 흰색(사방이 온통 흰 것뿐), 부분적으로는 파란색(시퍼렇게)이나 검은색(까아만 포탄)의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178) 답 ⑤

해 '몸 둘 바를 모르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감을 표현한 것이다. 오 ③ '헬리콥터'에 대한 거부의 의지를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의 의미를 지닌 부사 '결코'를 사용하여 단호하게 드러내고 있다. ④ 발이 묶임.: 일시적이고 물리적인 고립 / 운명이 묶임.: 영원한 고립
179) 답 ④

해 '동화의 나라'는 폭설로 인한 고립의 상황을 긍정적·낭만적으로 인식한 표현이다. 이어지는 '묶였으면'도 화자의 소망을 담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오 ① '폭설'은 화자가 소망하는 상황(고립)을 가능케 하는 것이므로 '만나고 싶'은 긍정적 대상이다. ② 화자가 지향하는 바와 상반되는 현실의 모습에 대해 '법석'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담아 표현한 것이다. ③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고립'은 화자가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눈부신' 것이다. ⑤ '헬리콥터'를 무언가를 '뿌려' 대상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180) 답 ④

해 ㉱는 전쟁에서 '시퍼렇게 살아 있는 젊은 심장'을 파괴하던 현실적 폭력에 해당한다. 오 ① 화자가 소망하는 상황을 가능케 하는 시간적 배경이다. ② 화자의 지향과 상반되는 현실의 모습을 보여 주는 대상이다. ③ 한겨울 야생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며,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⑤ 야생 동물의 야생성을 파괴하는 구실에 해당하며 화자의 소망과는 거리가 멀다.
181) 답 구조, 거부, 포탄, 먹이, 구조, 파괴
182) 답 고립은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으로만 인식되지만 화자는 고립을 사랑하는 사람과 오롯이 함께하는 긍정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눈부신'이라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그 의미를 부각한 것이다.

산상(山上)의 노래

183) 답 ○
184) 답 ○
185) 답 ○
186) 답 ○
187) 답 ×

해 이 작품에서 '종소리'는 해방에 대한 감격을 청각적 심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암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188) 답 ○
189) 답 ○
190) 답 ×

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역설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191) 답 ㉣
192) 답 ㉤
193) 답 ㉡
194) 답 ㉠
195) 답 ㉢
196) 답 ㉠-ⓐ, ⓑ, ⓓ / ㉡-ⓒ, ⓔ, ⓕ, ⓖ, ⓗ, ⓘ, ⓙ
197) 답 비유, 상실, 생명력

해 해방의 감격을 비유적·상징적인 표현과 절제된 어조를 통해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작품으로, 산 위에서 고고하고 정결한 자세로 미래의 이상을 염원하는 화자의 모습에서 선구자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198) 답 ⑤

해 '긴 밤 ↔ 아침', '어둠 ↔ 햇살' 등 밝음과 어둠의 대조가 나타나지만 이는 일제 강점기의 암울함과 광복 후의 기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현실 극복 의지와는 관련이 없다. 오 ① 1연에서 '산마루', '낡은 고목(古木)' 등의 상징적 표현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험난하고 극한적인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종소리', '햇살', '메마른 입술' 등의 청각, 시각, 촉각 등을 활용한 감각적 시어를 통해 광복에 대한 화자의 기쁨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③ '긴 밤'으로 상징되는 일제 강점기와 '아침'으로 상징되는 광복 후의 시간 흐름에 따라 슬픔에서 기쁨으로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고 있다. ④ 구절이 변형된 형태로 첫 연과 같은 형태의 문장 구조가 마지막 연에서도 나타나는 수미상관 구조가 사용되었는데,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시적 안정감을 획득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99) 답 ②

해 1연에서 화자는 높은 산마루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 광복을 상징하는 아침을 맞고 있으며 광복에 대한 감회를 표현하고 있다. 마지막 7연에서도 화자는 여전히 산마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화자의 위치는 이동되지 않았고 단지 정서의 변화만 나타날 뿐이다. 오 ① 7연에서 화자는 광복을 맞이한 기쁨 속에서 새로운 사회(진정한 해방 국가)가 건설되기를 염원하고 있다. ③ 1연에서 화자는 일제 강점기라

는 암흑기에 있었으나 '종소리'로 광복을 알린 2연 이후 광복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 ④ 3연에서 화자는 광복을 맞이한 조국의 하늘을 생각하며 '어둠 속에 나래 떨던 샛별아 숨으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일제 강점기라는 어둠 속에서 경험했던 두려움과 슬픔은 광복이라는 아침을 맞이한 만큼 사라져도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⑤ 6연에서 화자는 사슴과 토끼에게 '싸릿순을 사양하라.'라고 했는데, 이는 우리 민족이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00) 답 ②

해 ㉠은 광복을 맞이한 상황에서의 화자의 태도를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시구이다. 역사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사회(진정한 해방 국가) 건설이라는 우리 민족의 과제를 제시하며 바른길을 모색하려는 선구자적 태도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오 ① 광복을 맞이한 상황에서 희망찬 미래를 염원하는 부분이므로 일제 강점기 이전에 대한 회상이라 할 수 없다. ③ 유랑민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언급이 없으며,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도 사람이 아닌 사회(진정한 해방 국가)이다. ④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다짐은 맞지만 그것을 고난이라고 해석할 만한 근거는 없다. ⑤ 암담한 상황에서의 침묵이나 억압과는 관련이 없다.

201) 답 ⑤

해 '피리'는 일제 강점기 이전, 우리 민족의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시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피리의 가락을 더듬'는 것은 그 시절의 행복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암울한 시기와 관련되는 나머지 시어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오 ① 일제 강점기의 극한적 상황을 의미한다. ② 암울했던 일제 강점기를 의미한다. ③ 일제 강점으로 인해 폐허가 된 우리 민족과 조국을 의미한다. ④ 암울한 현실 속에서 겪었던 두려움과 슬픔을 의미한다.

202) 답 ⑤

해 이 글은 '낡은 고목(古木)'으로 상징되는 일제 강점기의 극한 상황 속에서 광복이 오기를 간구하며 눈물을 보일 뿐,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하는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반면 <보기>는 '태양을 의논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등과 같이 현실 극복에 대한 투쟁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오 ① 이 글에서는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라며 광복 이후에 새로운 사회를 기다리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보기>에서는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라며 혼란스러운 광복 후 현실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② 이 글에서는 광복의 기쁨 속에서 더 밝은 미래를 염원하고 있고, <보기>에서는 모두가 화합하는 바람직한 미래를 염원하고 있다. ③ 이 글에서는 '종소리', '햇살', '시월상달'등을 통해, <보기>에서는 '우러러보는 이 하늘'을 통해 광복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다. ④ <보기>에서는 광복을 맞이했지만 아직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에 대해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꽃덤불'을 통해 민족이 화합된 미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203) 답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광복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해 1연은 일제 강점기의 상황으로 '밤'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2연부터는 광복을 맞이한 상황으로 '아침'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아침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광복도 반드시 찾아온다는 절대적 이치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꽃덤불

204) 답 ○

205) 답 ○

206) 답 ×

해 2연의 마지막 행에서 설의법을 사용하고 있을 뿐 자문자답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207) 답 ○

208) 답 ○

209) 답 ○

210) 답 ×

해 화자는 광복이 찾아온 이후에도 사회적 혼란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밝고 희망찬 미래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만족한다고 볼 수 없다.

211) 답 ○

212) 답 ○

213) 답 ㉣

214) 답 ㉤

215) 답 ㉠

216) 답 ㉡

217) 답 ㉢

218) 답 [A]: 태양을 등진 곳, 달빛, 밤, 헐어진 성터, 겨울밤, [B]: 태양, 오는 봄, 꽃덤불

219) 답 태양, 꽃덤불, 미래

해 '태양'은 밝음과 희망이라는 원형적 이미지를 지니는 시어로서 이글에서는 조국 광복을 의미한다. '꽃덤불' 역시 꽃이 엉클어져 있는 수풀을 의미하는 어휘로 여기서는 화합과 조화를 이룬 완전한 광복을 상징하고 있다.

220) 답 ①

해 역설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어두운 곳에서만 조국의 광복을 의논한다는 1연의 내용을 역설법으로 혼동할 수 있지만, 이는 암울한 상황을 강조하는 표현일 뿐 모순된 표현을 통해 진리를 강조하는 역설법과는 다르다. 또한 조국의 광복에 대한 소망이 개인적 욕망이라고 할 수도 없다. 오 ② 2연의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느냐?'에서 광복에 대한 소망과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정서를 설의적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다. ③ 어둠을 의미하는 '태양을 등진 곳', '달빛', '밤', '헐어진 성터', '겨울밤' 등과 밝음을 의미하는 '태양', '봄', '꽃덤불' 등의 대립을 통해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밝은 미래를 소망하는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2연과 3연에서 유사한 문장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드러내고 있다. ⑤ 4연에서 하나의 행을 하나의 연으로 구성하여 암울한 시대가 지나고 광복이 찾아온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221) 답 ③

해 화자는 식민 잔재와 갈등이 극복된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꽃덤불'이라는 상징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오 ① 화자는 일제 강점기라는 암울한 상황을 지내 왔으며 광복 후에도 혼란한 사회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기쁨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있지만 현실에 대한 만족감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② 화자는 일제 강점기에 조국 광복에 대한 큰 뜻을 품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태양을 의논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따라서 현실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 ④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드러

나지만, 현실을 회피하거나 불가능한 이상향을 꿈꾸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화자가 겪거나 목격한 현실의 안타까운 모습은 나타나지만 자신을 자책하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222) 답 ④

해 ㉣은 이념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여 모두가 하나 되는 진정한 광복의 시간을 상징한다. 민족이 극복해야 할 인고의 시간과는 관련지을 수 없다. 오 ① ㉠은 '태양'과 대립되는 이미지로, 은밀하게 독립 투쟁이 이루어지는 어두운 곳이라 할 수 있다. 즉, 일제 강점하의 불행한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다. ② ㉡은 국권을 빼앗긴 조국의 모습을 상징한다. ③ ㉢은 식민 잔재가 청산되지 않은 채, 좌우익의 갈등과 그에 따른 시련을 겪고 있는 해방 직후의 상황을 의미한다. ⑤ ㉤은 이 글의 핵심적인 시어로서, 암흑을 이루어 낼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평화로운 민족 국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23) 답 ③

해 이 글은 '과거-현재-미래'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보기 1> 역시 '긴 밤'에서 '이 아침'까지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오 ① 이 글에서는 '다시 우러러보는 이 하늘에'를 통해, <보기 1>에서는 '꽃다운 하늘이거니', '새들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 부르고'등을 통해 광복에 대한 화자의 기쁨을 엿볼 수 있다. ② 이 글에서는 '꽃덤불'을 통해 모두가 화합된 바람직한 미래에 대한 염원이, <보기 1>에서는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를 통해 이상적인 세상에 대한 염원이 드러나 있다. ④ 이 글에서는 '태양 ↔ 태양을 등진 곳' 등을 통해, <보기 1>은 '밤 ↔ 아침' 등의 대조적 시어를 통해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⑤ 이 글에서는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라며 아직 식민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꽃덤불'이라는 바람직한 미래를 제시하고 있고, <보기 1>은 기쁨 속에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라며 새로운 사회(진정한 해방 국가)를 염원하고 있다.

224) 답 이념의 갈등이 없는 화합된 미래

해 화자는 '꽃덤불'을 통해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나 모두가 화합된 완전한 민족 국가를 이룰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있다.

사령(死靈)

225) 답 ○

226) 답 ○

227) 답 ×

해 특정한 대상과의 대화 형식이 아니라, 대상(벗-활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228) 답 ○

229) 답 ○

230) 답 ○

231) 답 ○

232) 답 ○

233) 답 ×

해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마음에 들지 않아라'를 반복하여 화자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을 뿐, 이를 통해 부정적인 현실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234) 답 자유

235) 답 나의 영(靈), 황혼, 잡초, 무른 페인트 빛, 고요함, 그대의 정의, 우리들의 섬세, 욕된 교외

236) 답 ㉠ - ⓑ, ㉡ - ⓔ, ㉢ - ⓒ, ㉣ - ⓕ, ㉤ - ⓓ, ㉥ - ⓐ, ㉦ - ⓖ

237) 답 ⓐ 자유, ⓑ 정의, ⓒ 죽어 있는, ⓓ 자조적, ⓔ 지식인(들)

238) 답 ④

해 설의적 표현을 통해 부정적 현실이 아니라 화자 자신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오 ① '벗이여 ~ 마음에 들지 않겠지'. '그대는 ~ 말하는데'와 같이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②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마음에 들지 않아라'와 같은 시구의 반복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활자를 '벗', '그대'와 같이 의인화하여 화자가 자유와 정의를 추구함을 드러내고 있다. ⑤ 3연의 '이 황혼도 ~ 이 고요함도'에서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에 순응하는 일상의 삶을 나열함으로써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239) 답 ⑤

해 '욕된 교외(㉥)'는 '마음에 들지 않아라'와 연결되어 화자가 불만스럽게 여기는 공간으로, 자유와 정의가 부재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화자는 ㉥에서의 삶을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오 ④ 3연의 '고요함'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아라'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부정적 대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화자는 '자유를 위해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0) 답 ④

해 화자는 이미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활자'에만 존재하는 자유와 정의가 '마음에 들지 않아라'라고 하여 현실에는 자유와 정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깨닫고, 자유와 정의를 위해 행동하지 못하는 자신을 반성하고 있는 것이다.

241) 답 ⑤

해 [A]의 '이 욕된 교외'는 부정적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공간이므로, [B]의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한 공간이 아니라 '나타와 안정'의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 오 ① [B]에서 '곧은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부정적 현실에 대해 두려움 없이 대응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반면 [A]에서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침묵('고요함')이 존재할 뿐이므로 [A]의 화자는 ①과 같이 생각한 것이다. ② [A]에서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자유와 정의를 위해 행동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반면 [B]의 폭포는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③ [A]에서 '모두 다'에 해당하는 것은 '황혼, 잡초. 푸른 페인트 빛. 고요함'으로, 이는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의미하며 부정적 현실이라고 볼 수 있다. [B]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인간적 유대가 존재하지 않는 부정적 현실이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으로 형상화되었다. ④ [A]의 '고요함'은 자유와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침묵을 의미한다. 반면 [B]의 '곧은 소리'는 자유와 정의를 위해 타협하지 않는 곧은 자세를 보여 주는 시구이다.

242) 답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를 통해 화자가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윤동주 시집이 든 가방을 들고

243) 답 ×

해 화자 자신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주된 내용이다.
244) 답 ○
245) 답 ○
246) 답 ○
247) 답 ○
248) 답 ○
249) 답 ×

해 도치된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
250) 답 ○
251) 답 ⓔ
252) 답 ⓐ
253) 답 ⓒ
254) 답 ⓑ
255) 답 ⓓ
256) 답 ㉠ - ⓑ, ㉡ - ⓓ, ㉢ - ⓒ, ㉣ - ⓐ
257) 답 오줌, 분노, 윤동주, 용서, 반성
258) 답 ②

해 '-는가'의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라는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오 ① 이 글의 화자는 '용서하지 못하는가', '견디지 못하는가', '얻을 수 있을까', '용서할까 봐 두려워라'와 같이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평범한 출근길에 강아지가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로 인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험이 소재인 것은 아니다. ⑤ 화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깨달음을 얻고 있으며, 이 글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259) 답 ③

해 ㉢은 강아지에 대한 분노와 생명 경시의 태도로 볼 수 있다. 화자는 과거에 모든 생명들이 동등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했으므로 이러한 태도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일관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 ① 화자는 강아지가 구두에 오줌을 싼 행동을 미리 알지 못했으며 이를 겪은 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② 강아지가 화자의 구두에 오줌을 싼 것을 통해 화자는 용서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④, ⑤ 윤동주의 시집을 통해 화자는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는 반성과 성찰의 태도를 배우게 되며 이는 이 글의 주제와 연관된다.
260) 답 ⑤

해 '오줌'은 화자가 강아지에게 분노를 퍼붓는 원인이며, '윤동주 시집'은 이러한 화자의 행동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오 ① '오줌'은 화자의 사소한 실수가 맞지만 '윤동주 시집'에 옹졸함이 담겨 있지는 않다. ② '오줌'은 일상적인 경험으로 볼 수 있으나, '윤동주 시집'은 타자가 아닌 자신에 대한 질책이 담겨 있다. ③ '오줌'은 예견되지 않은 사고이며, '윤동주 시집'에는 부끄러움의 감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오줌'은 화자의 분노와 반성이라는 사건의 시작점이 맞으나, '윤동주 시집'에 미안함의 감정이 담겨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61) 답 ⑤

해 <보기>의 '돼지 같은 주인 년'은 화자가 직접 욕을 하고 있는 대상으로, 이 글에서 가장 유사한 의미를 지닌 시어는 '강아지'이다. 오 ①, ③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는 태도는 이 글과 <보기>의 화자 모두에 해당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② <보기>의 '기름덩어리'와 이 글의 '오줌'은 모두 화자의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다. ④ 이 글과 <보기>에 쓰인 의문형 종결 표현은 화자가 스스로를 자책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262) 답 윤동주 시집
263) 답 구두에 오줌을 싼 강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옹졸함에 대한 반성과 성찰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264) 답 ○
265) 답 ○
266) 답 ×

해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받는 대화체는 사용되지 않았다.
267) 답 ○
268) 답 ×

해 '하늘', '구름' 등의 자연물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만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이입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269) 답 ○
270) 답 ○
271) 답 ○
272) 답 ㉢
273) 답 ㉠
274) 답 ㉠
275) 답 ㉡
276) 답 ㉠ - ⓒ, ㉡ - ⓐ, ㉢ - ⓑ, ㉣ - ⓓ
277) 답 하늘, 먹구름, 쇠 항아리, 수미상관
278) 답 ③

해 '네가 본 건, 먹구름', '닦아라, 사람들아' 등에서 청자를 설정하고 있지만, 화자와 청자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대화체는 사용되지 않았다. 오 ①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에서 설의적 표현을 통해 아무도 하늘을 본 사람이 없는 부정적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② '닦아라', '찢어라'에서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부정적 현실 극복을 위한 노력의 촉구라는 화자의 의도를 강조하고 있다. ④ 평서형(2, 3연 등), 의문형(1, 9연), 명사(4연) 등 다양한 종결 방식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⑤ 시어 '서럽게' 등의 반복. 시행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등의 반복으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79) 답 ④

해 '네 마음속 구름'이 민중이 현실 상황의 극복을 위해 닦아 내야 할 대상인 것은 맞지만, 부정적 현실의 원인은 <보기>에서 보듯이 당시의 사회적, 역사적 사건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 ① <보기>를 통해 이상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하늘'은 민주화가 이루어진 세상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② '먹구름'과 '쇠 항아리'는 부정적인 존재로서, <보기>에 따르면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게 한 군사 정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구름을 닦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를 이루기 위한 민족적 과제를 의미한다. ⑤ 마음속 구름을 닦아 티 없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먹구름이나 쇠 항아리를 하늘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들로,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자유와 평화가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80) 답 ③

해 화자는 '사람들'에게 '닦아라', '찢어라'라며 명령적 어조로 말함으로써 올바른 현실 인식을 가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 오 ① 화자는 현실 극복 의지와 평화로운 미래에 대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다. ② 과거에 '맑은 하늘'이 있던 것도, 화자가 이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④ 화자는 '아, 엄숙한 세상을 / 서럽게 / 눈물 흘려'와 같이 영탄적 어조를 통해 정서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므로 관조적인 자세나 절제된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⑤ 마지막 연에서는 1연을 반복함으로써 부정적 현실 인식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살아가리라'에서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281) 답 ④

해 이 글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보기>는 이 글과 달리 민중을 능동적인 변혁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 오 ① 이 글과 <보기> 모두에 부정적인 현실이 나타나 있다. ② 이 글(하늘 ↔ 먹구름, 쇠 항아리)과 <보기>(풀 ↔ 바람) 모두 대립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하였다. ③ 이 글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등이, <보기>는 '풀이 눕는다'가 반복되고 있다. ⑤ 이 글과 <보기> 모두 부정적인 현실을 극복하여 민중이 인간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82) 답 마음속 구름을 닦고 쇠 항아리를 찢어야 한다.

홀린 사람

283) 답 ○

284) 답 ○

285) 답 ×

해 '당신은 신인가', '당신은 유령인가'는 '누군가(목소리)'가 '그분'에게 묻는 것으로, 대상의 실체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의문을 드러내고 있다.

286) 답 ○

287) 답 ○

288) 답 ×

해 우화의 형식이 나타나지만 대상을 의인화한 것은 아니다.

289) 답 ×

해 해학이 아니라 풍자적 기법이 나타나고 있다.

290) 답 ×

해 '나'나 '우리'같은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291) 답 ㄷ

292) 답 ㄴ, ㄹ

293) 답 ㄱ

294) 답 ㄹ

295) 답 ㄱ-ⓒ, ㄴ-ⓐ, ㄷ-ⓓ, ㄹ-ⓔ, ㅁ-ⓕ, ㅂ-ⓑ

296) 답 우화적(우의적), 지배층(권력자), 비판적

297) 답 ④

해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 ① 작가가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 낸 상황을 통해 위선적인 지배층과 우매한 민중들을 비판하고 있다. ② '군중들은 일제히 ~ 여인들은 실신했다'를 반복하여 우매한 군중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다. ③ 사회자, 군중들, '그분', '누군가'의 상징성을 통해 홀린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누군가'가 던진 '당신은 신인가', '당신은 유령인가.'라는 질문은 '그분'의 실체에 대해 비판적 사고를 드러낸 것이다.

298) 답 ④

해 '그분'이 성난 사회자를 제지하는 것은 자신의 긍정적 이미지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계층 간의 갈등이 완화된다고 볼 수 없다.

299) 답 ①

해 화자는 표면에 직접 드러나지 않은 채 단지 주어진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오 ② 삶에서 얻은 깨달음은 나타나 있지 않으며 고백적 진술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비판적 목소리를 직접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부정적 현실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인물들의 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⑤ 대상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300) 답 ⑤

해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으로 인해 들리지 않았으므로, '그분'이 '누군가'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했는지는 알 수 없다. 또한 이 글의 내용상 '그분'이 솔직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오 ①~③ 사회자의 말을 통해서 군중들은 '그분'을 정의롭고 이타적이며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④ '그분'에 대한 의문을 드러내는 '누군가'를 사회자가 끌어내려고 하지만 이를 제지하는 모습을 통해, 군중들은 '그분'을 관용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301) 답 선동가, 권력자, 민중들, 지식인

302) 답 우화적인 방식을 통해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풍자)하고 있다.

종소리

303) 답 ×

해 이 작품의 시상 전개는 시간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다.

304) 답 ×

해 '-ㄴ다'의 현재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화자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을 뿐 미래 지향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305) 답 ○

306) 답 ○

307) 답 ○

308) 답 ○

309) 답 ○

310) 답 ×

해 종소리가 다른 인물에게 하는 말을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311) 답 ○

312) 답 ×

해 반어적인 표현을 통한 문제의식 제시는 드러나지 않는다.

313) 답 진폭의 새, 울음, 소리, 푸름, 웃음, 악기, 뇌성(雷聲), 음향(音響)

해 자유를 향해 역동적으로 날아가며 다양한 모습을 취하는 종소리를 의미한다.

314) 답 청동(靑銅)의 표면, 청동의 벽, 칠흑의 감방

해 종소리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것, 다시 말해 종소리가 자유롭게 떠나기 전의 종의 몸체에 해당한다.

315) 답 ㉠-ⓐ, ㉡-ⓐ·ⓑ, ㉢-ⓓ, ㉣-ⓒ

316) 답 종소리, 칠흑, 바람, 뇌성

317) 답 ②

해 자유라고 하는 관념적인 내용을 종소리로 형상화하여 그것이 넓게 퍼져 나가는 모습을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오 ① 화자는 종소리를 의인화한 '나'로 외부세계에 대한 관찰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수미상관의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역동적인 심상은 드러나지만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먹구름'과 '뇌성(雷聲)'이 서로 대비되기는 하지만, 이들이 화해의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18) 답 ⑤

해 종소리가 종을 떠나 '푸름, 웃음, 악기'로 변화하는 것은 자유가 넓게 퍼져 나가는 확산으로 볼 수 있지만, 이는 외적인 조건에 의한 변화가 아닌 스스로의 자유로움에 대한 갈망과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 ① '청동의 벽'은 청동으로 이루어진 종의 벽을 의미하는 시어이다. ② '칠흑의 감방'은 자유를 억압받는 곳으로, 종소리가 종을 떠나기 전의 부정적인 상황에 해당한다. ③ '푸름, 웃음, 악기'는 종소리가 자유를 찾아 떠나며 변신한 모습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④ 종소리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저항하며 자유를 찾아 퍼져 나가는 것이다.

319) 답 ②

해 화자인 '나'는 억압적인 현실을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특히 먹구름이라는 장애물을 뚫고 뇌성(雷聲)이 되겠다는 표현을 통해 자유를 향한 의지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오 ① 화자는 부정적인 현실을 벗어나 자유를 구하고자 하는 존재로, 좌절하고 있지 않다. ③ 화자의 내면에 즐거움이나 소망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④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이 글은 관련이 없다. ⑤ 화자가 있던 곳은 '청동의 벽', '칠흑의 감방'으로, 화자는 이곳을 벗어나고자 한다.

320) 답 ②

해 <보기>의 일반적인 문장 순서를 2연과 같이 바꾸는 도치법을 사용하여 '인종(忍從)'이라는 억압적 상황을 끝내고 자유를 찾아가겠다는 주제를 강조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오 ① 문장의 길이에 따른 배치는 이 글과 <보기> 모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③ 이 글과 <보기> 모두 화자의 강인한 의지가 어조에 드러난다. ④ 이 글과 <보기> 모두 '청동의 벽, 감방, 역사' 등과 같은 비유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었다. ⑤ <보기>에서 의문형으로 진술된 문장('인종(忍從)은 끝이 나는가')은 이 글 그대로 유지되었다.

321) 답 먹구름, 뇌성(雷聲)

322) 답 마지막 행은 종소리의 음향이라는 청각적 심상이 가루라는 시각적 심상으로 전이되는 공감각적 표현이다. 이는 종소리라는 자유가 가루처럼 세상에 넓고 가득하게 퍼져 나가는 것에 대한 화자의 갈망을 표현한 것이다.

나는 고양이로 태어나리라

323) 답 ○

324) 답 ○

325) 답 ×

해 대화체가 아니라 화자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독백적 어조가 사용되었다.

326) 답 ○

327) 답 ○

328) 답 ×

해 화자가 자유롭게 살고 싶은 소망을 고양이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있을 뿐, 자연과 대비되는 인간의 모습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29) 답 ○

330) 답 ○

331) 답 ○

332) 답 ○

333) 답 ㉣

334) 답 ㉠, ㉡

335) 답 ㉢

336) 답 ㉣

337) 답 ㉠-ⓓ, ㉡-ⓑ, ㉢-ⓐ, ㉣-ⓕ, ㉤-ⓒ, ㉥-ⓖ, ㉦-ⓔ, ㉧-ⓗ

338) 답 고양이, 벌판, 들쥐, 구절, 종결 어미

339) 답 ①

해 2연의 '이윽고 해는 기울어 ~ 어두운 벌판에 홀로 남겠지.'에는 시간의 경과가 드러나 있다. 이전의 상황이 낮에 일어난 것이라면 '이윽고' 이후의 상황은 밤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화자의 공간의 이동이 아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 ② '-리라', '-겠지' 등과 같은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밝은 들판을 내딛는 꿈을.'처럼 미완성으로 문장을 종결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시적 여운을 주며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다. ④ '고양이로 태어나리라.'라는 시구의 반복을 통해 소망을 꼭 이루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잘잘', '사뿐사뿐', '살금살금', '폴짝폴짝' 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고양이의 모습이나 행동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340) 답 ②

해 화자는 이다음의 생을 설정하고 고양이로 태어나 벌판을 마음껏 뛰어다니는 자유로운 삶을 소망하고 있을 뿐,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 ① 화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고양이로 태어나 벌판을 마음껏 뛰어다니고 싶어 한다. ③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세계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와 대비되는 인간 세계는 자유를 속박하는 부정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화자가 인간 세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나는 툇마루에서 ~ 우유도 핥지 않으리라.'를 통해 인간의 보살핌을 받는 안락한 삶이 아닌 야생의 고양이로 자유롭게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⑤ 어두운 밤이 되어 추위가 찾아오고 들쥐도 참새도 모두 가버려 혼자 남게 되더라도 벌판에서 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341) 답 ⑤

해 화자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고양이로 태어나겠다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지만, 이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삶을 추구한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 ① '나는 툇마루에서 졸지 않으리라. / 사기그릇의 우유도 핥지 않으리라.'에서 알 수 있다. ② '너른 벌판으로 나가리라. / 거기서 들쥐와 뛰어놀리라.'에서 알 수 있다. ③ '참새 떼를 덮치리라.'와 '제일 큰 참새를 잡으리라.'에서 알 수 있다. ④ '어둠을 핥으며 낟가리를 찾으리라.'와 '내 잠자리는 달빛을 받아 / 은은히 빛나겠지.'와 '그래도 난 털끝 하나 적시지 않을걸.'에서 알 수 있다.

342) 답 ①

해 이다음에 고양이로 태어난다는 것은 불교의 윤회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화자가 다음 생애가 있다고 믿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양이로 태어나리라.'라는 시구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소망이 강렬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343) 답 ①

해 이 글에서 화자는 고양이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봄을 맞이하여 봄의 향기, 봄의 생명력 등을 느끼며 이를 고양이의 모습과 연결 지어 묘사하고 있지만 화자가 고양이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오 ② 이 글은 계절적 배경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보기>의 계절적 배경은 봄이다. ③ 이 글에서는 '잘잘', '사뿐사뿐', '살금살금', '폴짝폴짝' 등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통해 고양이의 모습이나 행동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보기>의 2, 4연에서 동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지만 이는 봄의 역동적인 모습이지 고양이의 모습이 아니다. ④ 이 글과 <보기> 모두 고양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⑤ 이 글은 1연에서 고양이의 모습이 일부 드러나 있지만, <보기>에서는 1~4연에서 모두 고양이의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344) 답 -겠지, 운율(리듬감)

해 이 글에서는 '-리라', '-겠지'와 같은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미래에 벌어질 상황에 대한 추측이나 소망 실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45) 답 화자는 고양이로 태어나 벌판을 뛰어다니는 자유로운 삶을 소망하고 있다.

풍장 1

346) 답 ○

347) 답 ×

해 죽음을 소재로 하고는 있으나, 죽음을 통한 자연으로의 회귀와 현실적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의 염원을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에 대한 아쉬움과는 관련이 없다.

348) 답 ○

349) 답 ○

350) 답 ○

351) 답 ○

352) 답 ×

해 민요적인 가락이 사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상적 정서도 드러나 있지 않다.

353) 답 ○

354) 답 ○

355) 답 ○

356) 답 ㉣

357) 답 ㉢

358) 답 ㉠

359) 답 ㉡

360) 답 ㉤

361) 답 ㉠-ⓒ, ㉡-ⓐ, ㉣-ⓑ

362) 답 풍장, 풍장, 자연, 자유

해 이 글은 풍장을 제재로 하여 죽음이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63) 답 ④

해 화자가 대상에 정서를 주입하는 감정 이입은 활용되지 않았다. 오 ① '다오', '지나', '벗기우고' 등을 반복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내 세상 뜨면'이라며 죽음의 상황을 가정하여 죽음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③ '가방', '옷', '구두', '양말' 등으로 대변되는 구속, 억압의 이미지와 '바람'이 상징하는 자유의 이미지를 대조하여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는 화자의 바람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 다오'를 통해 명시되지 않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자신이 죽으면 풍장해 달라는 화자의 당부를 전하고 있다.

364) 답 ①

해 화자는 죽음도 삶과 같이 우주의 순환 과정의 일부로 여기고 있으므로, '화장(化粧)'과 같은 세속적 가식이나 '해탈(解脫)'과 같은 종교적 의미 부여 없이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365) 답 ③

해 '시간을 떨어트리고'는 완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 시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즉, 이승을 지배하는 시간 관념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연적 질서로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 ① '군산(群山)'은 많은 사람이 사는 도시로, 억압과 간섭이 많은 공간을 상징한다. ② '검색'은 '풍장'의 관습을 꺼려 하던 당시의 상황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는 시어이다. ④ '화장(化粧)'과 '해탈(解脫)'은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의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장(化粧)도 해탈(解脫)도 없이'에는 세속적 의식이나 종교적 의미 부여 없이 죽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⑤ '바람'은 존재를 소멸시켜 다시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삶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366) 답 ⑤

해 ㉠은 모든 사물을 소멸하게 하여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3연에서 화자는 '바람'을 덮고 '바람'을 여미고, '바람'과 놀고 싶다고 하는데, 이로 보아 화자는 '풍장'을 통해 죽음을 긍정적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기고 있다. 즉,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367) 답 ④

해 <보기>의 화자(A)는 이승에서의 삶을 '소풍'이라고 보고, 때가 되면 잠시 머물렀던 이승을 떠나 하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삶을 하나의 소풍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속에서 겪은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추억처럼 여겨지지 않겠느냐는 달관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한편 이 글의 화자(B)는 자신의 죽음을 가정하여 자신이 죽은 뒤 풍장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죽음이란 단지 자연과 우주의 무한한 순환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슬퍼할 것도 없고 미화시킬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B가 현실 세계를 허무의 세계로 인식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68) 답 화자는 풍장을 통해 현실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회귀하여 완전한 자유를 얻기를 소망한다.

빠삐용 - 영화 사회학

369) 답 ○

370) 답 ○

371) 답 ○

372) 답 ○

373) 답 ×

해 대상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374) 답 ×

해 '그러나'라는 역접의 접속어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이를 전후로 어조가 변하고 있지는 않다.

375) 답 ○

376) 답 ○

377) 답 ○

378) 답 ○

379) 답 ○

380) 답 ○

381) 답 표범 한 마리, 바람 같은 자유, 빠삐용, 폐허의 산속

382) 답 세 마리 표범, 평온한 동물원, 드가, 티브이

383) 답 ㉠ - ⓑ , ㉡ - ⓖ, ㉢ - ⓕ, ㉣ - ⓒ, ㉤ - ⓓ, ㉥ - ⓐ, ㅅ - ⓔ

384) 답 표범 한 마리, 세 마리 표범, 빠삐용, 드가, 티브이, 자조적

385) 답 ⑤

해 '-다'와 같은 단정적 종결 어미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 ① '바람 같은 자유', '빠삐용처럼', '동물원 같은 공간' 등의 비유를 활용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다. ② '표범 한 마리', '빠삐용'과 '세 마리 표범', '드가'의 대립, '폐허의 산속'과 '우리 속'의 대립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③ '수재에 수재'는 '물 수(水)'와 '짐승 수(獸)'의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언어유희이다. ④ 3~6행은 행간 걸침을 통해 시적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386) 답 ④

해 화자는 ㅅ과 같은 마음을 가진다면 어디든 ㅂ과 같은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오 ① 화자는 '표범 한 마리'의 뉴스를 듣고 그가 '자유'를 얻기 위해 탈출하였다고 생각한다. ② 화자는 탈출한 표범의 뉴스를 듣고 끝없이 탈출을 시도한 '빠삐용'을 탈출한 '표범 한 마리'에, 우리 속에 있는 '세 마리 표범'을 감옥에 남기로 한 '드가'와 연결시킨다. ③ 화자는 '표범 한 마리'의 뉴스를 들으면서 ㉡의 '우울한 눈빛이 ~ 박혀 버렸다'라고 하면서 '세 마리 표범'에 연민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화자의 비판적인 태도를 통해 빠삐용이 추구한 '폐허의 산속(자유)'이 드가가 선택한 '동물원(구속과 억압)'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임을 보여 준다.

387) 답 ③

해 '티브이 우리 ~ 내가 드가?'라는 마지막 부분을 통해 '티브이'가 화자에게 삶을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 ① 티브이는 일방적으로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② 평온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화자에게 현실에 대한 자각을 하게 만든다. ⑤ 화자에게 일상의 구속과 억압을 깨닫게 만들지만 거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게 하지는 못하고 있다.

388) 답 ②

해 화자는 사살당한 표범의 시체를 보면서 안일과 순응을 선택한 자신의 삶이 옳았다며 자기 위안을 하고 있다. 오 ①, ④ 화자는 표범 한 마리가 동물원을 탈출했다는 사건에 관한 뉴스를 보고 영화 <빠삐용>을 떠올리고 있다. ③ 화자는 뉴스를 보다가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 ⑤ 뉴스를 보는 '나'(화자)의 모습을 통해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함으로써 사회적 의미를 형성한다.

389) 답 ②

해 화자가 우리에 남은 '세 명의 드가(세 마리 표범)'를 욕하지 못하는 것은 자유를 위해 위험을 선택한 '표범 한 마리(빠삐용)'의 삶에 공감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세 명의 드가'에게 연민을 느꼈기 때문이다. 오 ①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사살당한 표범은 자유를 추구하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로 볼 수 있다. ③ 영화의 대사를 인용함으로써 현실을 우의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④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며 자기 위안을 하는 화자의 말을 통해 군사 독재 정권에 길들여져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당대인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⑤ 화자는 티브이를 통해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티브이를 동물원 '우리'에 빗대어 자신이 그 속에 갇힌 '드가'와 같은 인물임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통해 당시 군사 독재 정권이 티브이를 도구로 하여 현실을 통제하고자 한 것을 비판하고 있다.

390) 답 화자는 자신이 티브이라는 우리에 갇혀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통해 억압된 현실에 순응하며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

391) 답 ○

392) 답 ○

393) 답 ○

394) 답 ○

395) 답 ×

해 시선의 이동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396) 답 ○

397) 답 ×

해 종결 어미가 아니라 연결 어미 '-고'와 조사 '는'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398) 답 ○

399) 답 ○

400) 답 ○

401) 답 ○

402) 답 ㉠, ㉢, ㉤, ㉥

403) 답 ㉡, ㉦, ㉧, ㉨

404) 답 ㉠-ⓑ, ㉡-ⓐ, ㉢-ⓒ, ㉦-ⓓ, ㉤-ⓔ

405) 답 느티나무, 산비알, 돌밭, 썩은 가지, 상처, 의인화

406) 답 ⑤

해 공감각적 이미지가 활용된 부분은 없으며, 열거를 통해 느티나무들의 삶의 모습을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다. 오 ① 느티나무들을 의인화하여 공동체적 삶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주렁주렁'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의 풍부함을 그려 내고 있다. ④ 특정한 연결 어미('-고')와 조사('는')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407) 답 ⑤

해 ㉢에서는 체념하거나 허무해하며 허탈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 ① '산비알', '돌밭'은 척박한 터전을 의미한다. ② '시새우고 토라지고 다투고'를 통해 느티나무들이 갈등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③ '아픈 곳은 만져도 주고'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다고 하였다.

408) 답 ②

해 '저희들끼리'는 느티나무들끼리의 공동체적 유대를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집단에 대한 배타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 ① 느티나무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진 상황을 '저절로 나서'라는 시구로 표현하고 있다. ③ 느티나무들이 동무의 상처를 남몰래 보듬어 주고 도와주는 모습을 '슬쩍'이라는 시어로 표현하고 있다. ④ 더불어 살아가면서 경험한 여러 이야기들을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표현하고 있다. ⑤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풍부한 모습을 '주렁주렁 달았다가는'으로 표현하고 있다.

409) 답 ④

해 <보기>에서 작가는 민중을 '억압적인 현실에 고통받고 저항하는 집단으로 그려 내기보다는,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존재로 인식'한다고 하였으므로, '세월에 곪고 터진 상처'는 '긴 혀로 핥아 주기도 하'는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진 민중들의 모습과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 ① 민중들은 가난한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하였으므로 '산비알'과 '돌밭'은 가난한 민중들의 삶의 터전으로 볼 수 있다. ② 민중들은 공동체적 유대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민중들은 자신의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고 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이를 다양한 모습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⑤ 작가는 민중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10) 답 ②

해 [A]의 '시든 잎'과 '썩은 가지'는 느티나무들이 지닌 아픔과 상처를, [B]의 '햇살'은 '벼'에 가해지는 외부적인 시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외부적인 도움과는 거리가 멀다. 오 ① [A]와 [B]는 모두 중심 소재 간의 유대감과 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③ [A]와 [B]는 모두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④ [A]와 [B]는 모두 명사로 끝맺고 있다. ⑤ [A]와 [B]는 모두 대상인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411) 답 느티나무들은 성장기에는 때로 토라지고 다투는 등 갈등하기도 하지만, 노년기에는 갈등보다는 서로의 상처를 위로해 주는 모습이 나타난다.

들길에서 마을로

412) 답 ○

413) 답 ○

414) 답 ○

415) 답 ○

416) 답 ○

417) 답 ○

418) 답 ×

해 화자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들길과 마을의 정경을 묘사하며 정서를 드러내고 있을 뿐,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419) 답 ×

해 산문적인 진술로 쓰인 산문시로,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과 확장은 드러나지 않는다.

420) 답 ○

421) 답 ×

해 말을 건네는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422) 답 ○

423) 답 ㉥

424) 답 ㉣

425) 답 ㉢

426) 답 ㉠, ㉡

427) 답 ㉤

428) 답 ㉠-ⓐ, ㉡-ⓒ, ㉢-ⓑ

429) 답 향토적, 감각적, 산문시, 시선, 예찬적

해 해거름 무렵의 들판과 마을의 정경을 산문적인 진술을 통해 감각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430) 답 ③

해 화자가 농촌의 들길과 마을의 광경을 바라보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오 ① 쨍쨍한 햇볕과 또랑물 소리에 더욱더 푸르러지는 벼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농촌 마을의 풍요로움과 싱그러운 자연을 묘사하고 있다. ④ '해거름', '들길'과 같이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⑤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펼쳐지는 자연 풍경과 농촌 마을의 정경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431) 답 ⑤

해 평화롭고 생명력 넘치는 들길과 마을의 풍경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작품으로,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쓸쓸한 뒷모습은 전체적인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오 ① '이때쯤 또랑물에 삽을 씻는 노인'이라는 부분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이쯤에서 대숲 둘러친 마을 쪽을 안 돌아볼 수 없다. 아직도 몇몇 집에서 오르는 연기. ~ 밤꽃 사태 난 밤꽃 향기'라는 부분을 통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③ '해거름, 들길'에서 '산 그림자'가 내려오는 풍경을 보여 주다가 길섶의 망초꽃들로, 벼 끝에 맺힌 이슬로 대상 하나하나를 묘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쑥독새'의 '울음으로 벼들은 쭉쭉쭉쭉 자란다.'라고 하였

으며 벼들은 '또랑물 소리 크게 들려 더욱더 푸르러진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32) 답 ④

해 ⓓ는 청각을 촉각으로 전이하여 쑥국새 울음소리에서 느껴지는 정서를 상상하게 형상화한 공감각적 심상이다.

433) 답 ③

해 '노인, 그 한 생애의 백발은 나의 꿈.'으로 볼 때 노인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즉, 화자는 노인을 통해 자신의 소망과 바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화자가 노인을 바라보며 노동의 고단함과 애환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 ① 화자는 해거름 들길에 서서 산 그림자가 내려오는 전체적인 풍경을 조망하다가 길섶의 망초꽃들과 이슬이 맺힌 벼로 시선을 이동하며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② '기엄기엄'이라는 의태어를 통해 산 그림자가 길어지는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④ 화자는 '쨍쨍할수록 더욱 치열한 벼들'이 도랑물 소리를 듣고 '더욱더 푸르러'진다고 하면서 자연의 생명력을 예찬하고 있다. ⑤ 화자는 넓어지는 들의 보이지 않는 지평선에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 뿌듯함은 '쑥국새 울음까지 불러'낸다고 하였다.

434) 답 ④

해 '쨍쨍할수록 더욱 치열한 벼들'은 쨍쨍한 햇볕에 의해 벼가 여물어 갈 것임을 나타낸 표현으로 벼의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이지, 역경과 시련을 통한 성숙의 과정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오 ① 화자는 들길과 마을의 평화로운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② '몰래 흔들린다'는 것은 잔잔한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 ③ '쭉쭉쭉쭉'이라는 음성 상징어를 통해 벼의 생명력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⑤ 화자는 노인과 '탁배기 한 잔'을 나누고 싶어 하는데 이는 노인과 정서적으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5) 답 쑥독새 울음, 교감, 벼, 자연, 노인

해 이 글에는 '꽃, 새, 벼, 도랑물' 등 자연의 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소재들과 이 자연의 세계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온 노인이 등장한다. 화자는 이들을 묘사하며 여러 존재들 간의 교감과 조화를 형상화하고 있다. 즉, 화자는 이러한 자연과 자연,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통해 생명력이 넘치는 들판의 풍경을 묘사하며 자연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436) 답 ○

437) 답 ○

438) 답 ○

439) 답 ○

440) 답 ×

해 소재인 복숭아나무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441) 답 ○

442) 답 ○

443) 답 ○

444) 답 ×

해 색채 이미지를 활용한 부분(흰 꽃과 분홍 꽃)은 찾을 수 있지만 공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445) 답 ㉣

446) 답 ㉡

447) 답 ㉢

448) 답 ㉠

449) 답 ㉡, ㉣

450) 답 ㉠ - ⓓ, ㉡ - ⓑ, ㉢ - ⓒ, ㉣ - ⓐ

451) 답 인격화, 선입견(편견), 수천, 전환

452) 답 ④

해 이 글에 사용된 소재는 '복숭아나무'로 일상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타인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라는 관념적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오 ① '그'라는 지시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복숭아나무'라는 시적 대상이 개별화된 특정한 대상임을 암시한다. 또한 '그 나무', '그 복숭아나무'와 같이 반복, 변주되면서 시적 대상이 초점화되고 있다. ② 대상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인식에서, 진정한 이해와 깨달음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③ 2연의 마지막 행에 나타나 있다. ⑤ 전체에 걸쳐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453) 답 ④

해 [D]는 화자가 대상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화자는 복숭아나무가 외로웠을 것이라며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다. 여기서 외로움의 주체는 화자가 아니라 복숭아나무이므로 '피우고 싶은 꽃빛'을 화자가 외로움을 이겨 낸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 ①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이 때문에 화자는 대상에 대해 거리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② '멀리로 멀리로만'과 같이 반복을 통해 대상을 꺼리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③ '눈부셔 눈부셔'와 같이 반복을 통해 화자가 인식의 전환을 이루게 된 순간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다. ⑤ '조금은 심심한 얼굴'은 화자가 복숭아나무 그늘에 머물면서 발견한 대상의 또 다른 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454) 답 ④

해 '흩어진 꽃잎들'이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복숭아나무의 꿈이 좌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 ① 복숭아나무의 수천의 빛깔을 파악하지 못한 화자가 파악한 피상적인 모습에 해당한다. ② '앉지 못할 그늘'은 사람과 교감하지 못할 성정을 지녔으리라는 의미로, 화자의 부정적 인식에 해당한다. ③ 화자가 복숭아나무를 꺼려 멀리한 것이 오히려 수천의 빛깔이라는 복숭아나무의 본질을 파악하게 한 것이다. ⑤ 저녁은 편견이 사라진 시간으로, 화자와 복숭아나무 사이의 이해와 조화, 교감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455) 답 ⑤

해 이 글의 화자는 처음에 복숭아나무 그늘에 가까이 가지 않다가 인식이 전환된 이후 복숭아나무 그늘로 가는데, 이는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져 친밀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또한 <보기>의 '나'는 '그늘 밑이 더할 수 없이 그리워진다.'에서 알 수 있듯 ⓐ를 떠나온 현재 그곳을 그리워하고 있다.

456) 답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니다.

등꽃 아래서

457) 답 ○
458) 답 ×

해 대상인 등꽃 송이를 의인화하고 있지는 않다.
459) 답 ○
460) 답 ○
461) 답 ○
462) 답 ×

해 화자는 구름을 보고 삶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 아니라 등꽃 송이를 보며 삶의 가치를 깨닫고 있다.
463) 답 ○
464) 답 ○
465) 답 ○
466) 답 ○
467) 답 ㄴ
468) 답 ㄹ
469) 답 ㄷ
470) 답 ㄱ
471) 답 ㄱ-ⓑ, ㄴ-ⓓ, ㄷ-ⓐ, ㄹ-ⓒ
472) 답 등꽃 송이, 조화, 평정, 결실
473) 답 ②

해 '구슬 같은 소리', '연등 날 지등(紙燈)의 불빛이 흔들리듯' 등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오 ① 처음과 끝이 같은 수미상관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대상을 청자로 설정하고 있지도 않다. ⑤ 동일한 시어와 시구를 반복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474) 답 ④

해 화자는 대상인 등꽃 송이를 보고 나서 조화와 합일의 가치에 대해 깨닫고 있다. 오 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반성하고 있지는 않다. ② 현대 사회의 부조리한 병폐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상 세계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⑤ 대상에 대한 사랑이나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475) 답 ④

해 화자는 등꽃 송이를 보고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되므로, 등꽃 송이는 화자의 마음을 평정에 도달하게 한 계기라고 볼 수 있다. 오 ① 삶의 고통과 비애를 상징하는 것은 '눈물'이다. ② 화자의 과거에 비애와 고통으로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등꽃 송이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③ 화자는 등꽃 송이를 보고 삶의 깨달음을 얻고 있는 것이지, 등꽃 송이를 예찬하고 동경하는 것은 아니다. ⑤ 모순된 현실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476) 답 ⑤

해 <보기>에 과거의 절망적인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 ① 이 글과 <보기>는 모두 깨달음을 얻고 난 후의 정서를 관조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로 드러내고 있다. ② 이 글은 등꽃, <보기>는 숲과 나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이 글은 등꽃을 의인화하고 있지 않으나, <보기>에서는 나무를 의인화하여 '어깨와 어깨를 대고'라고 표현하였다. ④ 이 글의 화자는 '나'로 드러나 있으나, <보기>의 화자는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477) 답 결실, 가치
478) 답 화자의 마음이 평정심에 도달하게 된 계기